2020

정책연구 2020-21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진 이수인 · 전희진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20-21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수 인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희 진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최 지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20JU1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요약

연구목적

전라북도는 2000년 전체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18년 31.7%로 전국수준에 비해 높고, 전북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2%, 2018년 52.9%로 2000년 대비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국기준(2000년 57.5%, 2018년 50.3%)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1인가구의 급증은, 일정부분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의 증가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에서의 비혼 선택의 증가,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 이혼율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다층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구성 원인의 다양성이 보여주듯이, 도내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 어떤 유형의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가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 여성 1인가구는 20~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남성 1인가구보다 30~40대가 적고 60대 이상이 많은 형태를 보이며, 소득과 학력이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전북지역 여성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40.6%로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분포되는 형태이다. 다층적인 세대별 구성과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당면한 현실과 정책욕구가 더욱 상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정책 욕구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세대별 여성 1인가구의 분포가 상이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실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 욕구를 이해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2019년에 이미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와 농촌 여성 1인가구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제공하였다.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 및 돌봄, 고용 등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에서의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다양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여성 1인가구 실태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나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시계열적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1인가구의 주거 현황 및 세대별 차이, 고용률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1인가구 관련 주거 여건, 고용 및 직업활동, 안전, 돌봄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성 1인가구 삶의 질 관련 심층면접을 통해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계층별, 가족과의 관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과 삶의 질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요와 평가를 살펴보았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70대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성, 고용상황과 직업생활, 소득상황, 사회적 관계, 돌봄 노동, 노후의 삶에 대한 전망, 삶의 만족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한, 전북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생애주기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면접을 진행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불안정성이 규범이 되어버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1인가구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의 다층적인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인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혼공동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혼과 1인가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많은 비혼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하는 단체임을 감안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전국에서 1인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과 2005년 일반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가구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1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구규모가 계속적으로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과 비슷하게 다인 가구는 감소하고, 2인이하 가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성별 구성원 변화를 보면, 전라북도의 1인가구를 구성하는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2018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47.1%, 여성 1인가구가 52.9%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에 있어 남성은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 여성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도시와 농촌 여성 1인가구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주시의 경우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30.3%인데 비해 임실군의 경우 20~30대는 10.4%에 불과하고 60~70대 이상이 전주는 41.6%, 임실 75.9%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본 연구는 전북지역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분석을 통해 도시 1인가구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해 첫째, 도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질문항목을 설문조사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에 농촌 여성 1인가구 응답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여성 1인가구는 연령대에 따라 형성 원인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2030대는 직장/학교(52.2%)가 과반을 넘었고, 4050대는 직장/학교(46.5%), 이혼/사별(26.8%) 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이혼/사별이 70.5%로 나타나서, 형성원인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 생성 요인에서도 나타나 농촌은 사별/이혼이 51.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시의 직장/학교 37.8%, 사별/이혼 35.3% 대비,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

가 농촌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1인 가구의 3.17점(5점 만점)대비, 도시의 경우 3.49점으로 도시에서의 1인가구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대답을 보이면서, 도시의 경우, 건강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계수입 만족도가 낮았으며, 농촌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은 도시 1인가구가 56.3%로 농촌의 46.1%에 비해 높았으며, 돌보는 대상은 농촌지역은 부모, 도시지역은 손자녀로 나타났다.

1인가구 생활의 단점으로는 도시와 농촌 모두 경제적 불안을 지적하여,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의 부재의 문제를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제일 큰 관심사에 대해, 세대별로는 2030대가 취·창업과 직장생활에, 4050대는 건강 및 직장생활, 60대 이상은 건강 및 인간관계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사가 연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과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이며, 이런 상황은 월평균 소득 분포와도 연관되어 나타났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이 되지 않는 비율도 45.2%에 달해, 노인 1인가구의 취약성이 극명히 나타났다.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많은데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시와 농촌 모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1인가구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80대까지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비혼공동체 단체와의 FGI도 진행되었다.

1인가구의 형성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고, 1인가구의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는 꽤 높은 만족도를 볼 수 있었지만, 주택문제나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와 같이 살거나 혹은 원가족과의 결합도 가능해서, 1인가구는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구 형태로 보여졌다.

1인가구의 주거 상황은 대체로 열악해서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월세를 이용하고 있어, 주거부담을 꽤 크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의 문제에 더해, 주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볼 수 있었다.

1인가구는 소득의 원천이 본인에게 있고, 직장이동, 실직, 이사, 질병 등과 같은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있을 때,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인가족에 비해 낮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1인가구 전체라기보다는 직업이나 종사상의 지위 등과 연관되어 있고, 개인이 어떤 지원의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싼 자원 네트워크의 많은 부분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1인가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결망과 보호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소비나 문화생활에 있어 젊은 세대의 경우 혼자 문화 활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등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판매 기준이 다인가족 중심이어서 양이 많거나 혹은 소포장의 경우 가격이 높아 불편하다는 지적이나, 사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그 형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정과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부터 SNS를 통한 온라인 모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1인가구에 대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나 가족 내에서의 압력 경험에 대해서는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특히 일정 연령이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부모 봉양의 책임을 다른 형제에 비해 강하게 느끼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주거 공동체에 대한 바램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연결망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여성1인가구 세대별 특징

청년1인 가구의 경우,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고립 문제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청년 고용 불안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중장년 세대는 직장의 이동과 이혼/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비중이 높은데, 실제 고독사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는 노년층이나 청년실업, 빈곤 등의 문제로 주목받는 청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다는 가정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70.5%가 이혼/사별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의 경우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다수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 1인가구 지역별 특징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1인가구 삶의 모습은 지역적 차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세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청년세대나 중장년세대가 농촌 지역에서는 분포 자체가 적고, 그들이 거주는 농촌지역에서 할지라도 직장이나 활동반경이 도시지역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반면, 60대 이상의 농촌 1인가구는 그 수도 많고, 주거 및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노년 1인가구의 고민은 도시의 노인 여성 1인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도시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1인가구 안전권〉

도시지역은 농촌지역 대비 지역의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거주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낮아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심 시스템 도입과 보급과 마련에 더불어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여성 폭력 예방교육 등의 확대와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교육이 가능한 강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주거에 관한 정책〉

도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사글세의 비중이 높아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안전과 학교나 직장과의 근접성에 따라 주거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된 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은 오히려 미래의 나은 거주지로 옮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이에 청년 여성1인 가구에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과 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1인가구도 주거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인가구 대상 경제적 지원〉

1인가구 대부분이 본인 소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의 확보는 1인가구 삶의 유지에 있어 기반 마련의 필수적이다. 빈곤에 근접한 상황을 경험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대에 따라, 청년과 중장년세대에는 일자리 확대를 6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에게는 정부지원사업의 확대와 그에 따른 홍보를 통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필요가 있다.

〈1인가구 건강, 돌봄〉

1인가구가 느끼는 노후에 대한 고민은 청년세대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중장년층에 감소했다가 노년층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대가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인가구의 경우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된다.

많은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고, 1인가구임에도 가족 내의 여성 노동으로 간주되는 돌봄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었다. 비혼여성의 부모돌봄이나,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과 같이 돌봄노동을 가족

구성원 안으로 한정하여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서 사회가 일정정도 책임을 나누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건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방안과도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지원 조례 마련〉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1인가구, 특히 취약 1인가구를 돌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에는 아직 1인가구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한 조례는 특정 생애주기에 집중하고 있어, 1인가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설립하기 어려우니, 통합적 관점에서의 1인가구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6
   가. 연구 범위 ····· 6
   나. 주요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 10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10
   나. 조사방법 ····· 10
   다. 연구 추진체계 ····· 12

제2장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 13

1.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 15
   가. 주거지원정책 ····· 15
   나. 안전 지원 정책 ····· 16
   다. 건강 및 돌봄 ····· 17
2.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 18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 18
   나. 전라북도 내 1인가구 지원 조례 ····· 19
3.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 23
4.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 33

제3장. 전국 및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 39

1. 전국 1인가구 현황 ····· 41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 46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 59

제4장.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와 삶의 질 ····· 63

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 65
   가. 조사개요 ····· 65
   나. 분석결과 ····· 68
   다. 소결 ····· 129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1인가구 경험 ····· 131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 131
   나. 심층면접 응답에서 나타난 1인가구 경험 ····· 133
   다. 소결 ····· 169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 171

1.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지역별 특징 ····· 173
   가. 도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특징 ····· 173
   나. 여성 1인가구 지역별 특징 ····· 174
2. 도시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 175
   가. 1인가구 안전권 ····· 175
   나. 1인가구 주거에 관한 정책 ····· 176
   다. 1인가구 대상 경제적 지원 ····· 177
   라. 1인가구 건강, 돌봄 ····· 178
   마. 1인가구 지원 조례 마련 ····· 179

참고문헌 ····· 181

표 목 차 | Contents

〈표 1-1〉 2018년 주요 시군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 5
〈표 1-2〉 설문조사 내용 ····· 10

〈표 2-1〉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16
〈표 2-2〉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 17
〈표 2-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 17
〈표 2-4〉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 18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
〈표 2-6〉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학술연구) ····· 28
〈표 2-7〉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연구보고서) ····· 33

〈표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 41
〈표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 42
〈표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 44
〈표 3-4〉 전국 시·도별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18) ····· 45
〈표 3-5〉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 46
〈표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 47
〈표 3-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 49
〈표 3-8〉 2018년 주요 도시-농촌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 50
〈표 3-9〉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 ····· 54
〈표 3-10〉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8) ····· 57
〈표 3-11〉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성별 비중 추이(2015~2018) ····· 58
〈표 3-12〉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17-2047) ····· 60

〈표 4-1〉 여성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 68
〈표 4-2〉 여성 1인가구 형성이유 ····· 68
〈표 4-3〉 여성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70

〈표 4-4〉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2순위) ····· 71
〈표 4-5〉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위~3위) ····· 71
〈표 4-6〉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1-2순위) ····· 73
〈표 4-7〉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 73
〈표 4-8〉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1-2순위) ····· 75
〈표 4-9〉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 75
〈표 4-10〉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 77
〈표 4-11〉 병원방문 빈도 ····· 79
〈표 4-12〉 구급약품 접근성 ····· 80
〈표 4-13〉 도구적 지지 현황 ····· 81
〈표 4-14〉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 82
〈표 4-15〉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 84
〈표 4-16〉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도 ····· 86
〈표 4-17〉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에 대한 견해 ····· 88
〈표 4-18〉 고민상담 대상 ····· 89
〈표 4-19〉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 90
〈표 4-20〉 가족돌봄(양육/간병/가사 등) 수행 ····· 92
〈표 4-21〉 이웃의 중요도 ····· 93
〈표 4-22〉 주민참여활동 빈도 ····· 94
〈표 4-23〉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 95
〈표 4-24〉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1위~3위) ····· 95
〈표 4-25〉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 96
〈표 4-26〉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 98
〈표 4-27〉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 ····· 99
〈표 4-28〉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 101
〈표 4-29〉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 102
〈표 4-30〉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위~3위) ····· 102
〈표 4-3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 ····· 103
〈표 4-3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 104
〈표 4-33〉 월평균 소득분포 ····· 106

〈표 4-34〉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 107
〈표 4-35〉 생활비 지출항목(1-2순위) ····· 108
〈표 4-36〉 생활비 지출항목 종합 순위 ····· 109
〈표 4-37〉 생활비 마련 방법 ····· 110
〈표 4-38〉 주관적 계층의식 ····· 111
〈표 4-39〉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113
〈표 4-40〉 여가시간 충족도 ····· 114
〈표 4-41〉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2순위) ····· 115
〈표 4-42〉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위~3위) ····· 115
〈표 4-43〉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2순위) ····· 116
〈표 4-44〉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위~3위) ····· 116
〈표 4-45〉 주택의 점유형태 ····· 117
〈표 4-46〉 주택의 유형 ····· 118
〈표 4-47〉 거주지 선택이유(1-2순위) ····· 119
〈표 4-48〉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 119
〈표 4-49〉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 120
〈표 4-50〉 거주지역 만족도 ····· 121
〈표 4-51〉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23
〈표 4-52〉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 125
〈표 4-53〉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126
〈표 4-5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의견 및 사업제안(개방형 질문) ····· 127
〈표 4-55〉 심층면접 조사내용 ····· 131
〈표 4-56〉 심층면접 대상자 ····· 13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 42
〈그림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18) ····· 43
〈그림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 43
〈그림 3-4〉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 47
〈그림 3-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 48
〈그림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 49
〈그림 3-7〉 전북 여성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 50
〈그림 3-8〉 전북 1인가구의 거처종류별 구성비 추이(2000~2018) ····· 51
〈그림 3-9〉 전북 1인가구의 성별·거처종류별 구성비(2018) ····· 51
〈그림 3-10〉 전북 1인가구의 연령별·거처종류별 구성비(2018) ····· 52
〈그림 3-11〉 전국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2018) ····· 53
〈그림 3-12〉 지역별, 성별 고용률(2018) ····· 53
〈그림 3-13〉 전라북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분포 ····· 55
〈그림 3-14〉 전북 시군별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중(2018년) ····· 56
〈그림 3-15〉 전북 전체 1인가구 수의 시군별 구성비(2018년) ····· 56
〈그림 3-16〉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수 비교(2000년 vs 2018년) ····· 57
〈그림 3-17〉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 추이(2017-2047) ····· 60
〈그림 3-18〉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비율 변화 추이(2017~2047) ····· 61
〈그림 3-19〉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7 vs 2047) ····· 62
〈그림 3-20〉 전국 및 전북 1인가구주 연령 구성비 변화 추이(2017-2047) ····· 62

〈그림 4-1〉 1인가구 형성이유(도시vs농촌) ····· 69
〈그림 4-2〉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형성이유 ····· 69
〈그림 4-3〉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70
〈그림 4-4〉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도시vs농촌) ····· 72
〈그림 4-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_(연령대별) ····· 72
〈그림 4-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_(1인가구생활기간별) ····· 72

〈그림 4-7〉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도시vs농촌) ····· 74
〈그림 4-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연령대별) ····· 74
〈그림 4-9〉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1인가구생활기간별) ····· 74
〈그림 4-10〉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도시vs농촌) ····· 76
〈그림 4-1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연령대별) ····· 76
〈그림 4-12〉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_(1인가구생활기간별) ····· 76
〈그림 4-13〉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도시vs농촌) ····· 78
〈그림 4-14〉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_(연령대별) ····· 78
〈그림 4-15〉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_(1인가구생활기간별) ····· 78
〈그림 4-16〉 병원방문 빈도 ····· 79
〈그림 4-17〉 구급약품 접근성 ····· 80
〈그림 4-18〉 도구적 지지 현황 ····· 82
〈그림 4-19〉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 83
〈그림 4-20〉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_(도시vs농촌) ····· 84
〈그림 4-2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 85
〈그림 4-22〉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_(도시vs농촌) ····· 86
〈그림 4-2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_(연령별) ····· 86
〈그림 4-2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_(1인가구생활기간) ····· 87
〈그림 4-25〉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_(도시vs농촌) ····· 87
〈그림 4-2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_(연령/생활기간별) ····· 88
〈그림 4-27〉 고민상담 대상_(도시vs농촌) ····· 90
〈그림 4-28〉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도시vs농촌) ····· 91
〈그림 4-29〉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연령별) ····· 91
〈그림 4-30〉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1인가구생활기간) ····· 91
〈그림 4-31〉 가족돌봄 수행 ····· 92
〈그림 4-32〉 이웃의 중요도 ····· 93
〈그림 4-33〉 주민참여활동 빈도 ····· 94
〈그림 4-34〉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도시vs농촌) ····· 96
〈그림 4-3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연령별) ····· 97
〈그림 4-3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1인가구생활기간) ····· 97

〈그림 4-37〉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도시vs농촌) ····· 98
〈그림 4-3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가 희망하는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 99
〈그림 4-39〉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도시vs농촌) ····· 100
〈그림 4-40〉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연령별) ····· 100
〈그림 4-4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1인가구생활기간) · 100
〈그림 4-42〉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 101
〈그림 4-43〉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도시vs농촌) ····· 104
〈그림 4-4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 105
〈그림 4-45〉 월평균 소득분포_(도시vs농촌) ····· 106
〈그림 4-4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 ····· 106
〈그림 4-47〉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_(도시vs농촌) ····· 107
〈그림 4-4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 108
〈그림 4-49〉 생활비 지출항목 ····· 109
〈그림 4-50〉 생활비 마련 방법 ····· 110
〈그림 4-51〉 주관적 계층의식 ····· 112
〈그림 4-52〉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도시vs농촌) ····· 112
〈그림 4-5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 113
〈그림 4-54〉 여가시간 충족도 ····· 114
〈그림 4-55〉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00%기준) ····· 115
〈그림 4-56〉 주택의 점유형태 ····· 117
〈그림 4-57〉 주택의 유형 ····· 118
〈그림 4-58〉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 120
〈그림 4-59〉 거주지역 만족도(도시vs농촌) ····· 122
〈그림 4-60〉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지역 만족도_(연령별) ····· 122
〈그림 4-6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지역 만족도_(1인가구생활기간) ····· 122
〈그림 4-62〉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23
〈그림 4-6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24
〈그림 4-64〉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도시vs농촌) ····· 124
〈그림 4-6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 125
〈그림 4-66〉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126
〈그림 4-67〉 도시 여성1인가구 제언 워드 클라우드 ····· 128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최근 한국사회 변동 중 두드러진 현상으로 1인가구의 증가를 볼 수 있다. 2000년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15.5%였으나 2010년 23.9%, 2018년 29.3%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의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2000년 전체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18년 31.7%로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17%, 2018년 52.9%로 2000년 대비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국기준(2000년 57.51%, 2018년 50.3%)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선진국에서의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화의 과정과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최근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확대는 단순히 개인화의 논리를 넘어서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도시의 주거 여건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Ronald 2017: 25-6; Yeung & Cheung 2015; Dales 2014). 1인가구의 급증은, 일정부분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의 증가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에서의 비혼 선택의 증가,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결혼 지연, 이혼율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수인 외, 2020).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다층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저학력, 저소득, 불안정한 고용과 직업적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1인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경제적 빈곤은 물론 주거불안정이나 사회적 배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첩한 안전망이 가능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빈곤이나 안전, 등의 문제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1인 가구의 세대별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 대응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구성 원인의 다양성이 보여주듯이, 도내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 어떤 유형의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가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는 20~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남성 1인가구보다 30~40대가 적고 60대 이상이 많은 형태를 보이며, 소득과 학력이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전북지역 여성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40.6%로 가장 높고, 60~69세 17.3%, 50~59세 13.5%, 20~29세 12.1% 순으로 나타나, 1인 여성가구는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분포되는 형태이다. 다층적인 세대별 구성과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당면한 현실과 정책욕구가 더욱 상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정책 욕구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전북은 저출생과 고령화율이 높고, 20대의 청년 인구 유출률 또한 높은 지역(2019년 기준 전국 1위)으로서 특히 20~24세 청년여성 유출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커서,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대책 마련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내 여성 1인가구 분포는 시보다 군단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임실(37.3%), 진안(35.1%), 고창군(34.9%)의 순이고, 전주시는 29.3%로 가장 낮은 상황으로, 농촌의 경우 사별로 인한 독거고령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그 구성이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 임실군의 경우 20~30대는 10.4%에 불과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30.3%이며, 임실지역의 60~70대 이상은 75.9%인데 비해, 전주지역은 41.6%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세대별 여성 1인가구의 분포가 상이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실태와 삶의 질 차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 욕구를 이해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2019년에 이미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의 세대에 따른 상이한 정책 수요에 초점을 두고, 2019년 농촌 1인가구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제공한다.

〈표 1-1〉 2018년 주요 시군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구분		20세미만	20~30대	40~50대	60~70대(이상)	계
전라북도	계	3,082	61,442	67,346	100,716	232,587
		1.3	26.4	29.0	43.3	100.0
	남자	1,676	37,754	40,626	29,465	109,521
		1.5	34.5	37.1	26.9	100.0
	여자	1,406	23,688	26,720	71,251	123,066
		1.1	19.2	21.7	57.9	100.0
전주시	계	878	28,071	24,044	23,569	76,562
		1.1	36.7	31.4	30.8	100.0
	남자	426	16,271	13,549	7,376	37,622
		1.1	43.2	36.0135	19.60555	100.0
	여자	452	11,800	10,495	16,193	38,940
		1.2	30.3	27.0	41.6	100.0
임실군	계	130	607	951	2,763	4,451
		2.9	13.6	21.4	62.1	100.0
	남자	67	340	663	815	1,885
		3.6	18.0	35.2	43.2	100.0
	여자	63	267	288	1,948	2,566
		2.5	10.4	11.2	75.9	100.0

출처: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 범위

1)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국내 1인가구 지원은『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 3조 정의, 2-2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5조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계획 내용 중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명시되어있고, 제 20조 가족 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통적인 결혼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특히, 사회보장제도, 가족지원 제도, 주거지원 제도, 세제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1인가구 여성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 및 돌봄, 고용 등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에서의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다양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전라북도 도시 여성 1인가구 실태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여성 1인가구 실태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나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시계열적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1인가구의 주거 현황 및 세대별 차이, 고용률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인가구 관련 주거 여건, 고용 및 직업활동, 안전, 돌봄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성 1인가구 삶의 질 관련 심층면

접을 통해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계층별, 가족과의 관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과 삶의 질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요와 평가를 살펴보았다.

나. 주요 연구내용

1) 1인가구와 가족실천, 가족가치관

1인가구, 특히 비혼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가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를 부양하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의 패턴에 다시 구성되는 개인과 가족 모두를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작동하고 있다(강유진 2017). 또한 가족 구성원의 출생은 사회 재생산과 연결되어, 한국 사회의 큰 이슈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만혼과 비혼과 연결된다고 주장된다(강은영 외 2010). 다른 측면에서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인가구/비혼/고령인구의 증가는 규범적 가족이 더 이상 보살핌의 관계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만(최원진 2018), 그렇다고,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가 기존의 원가족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혼여성의 독박 부모 돌봄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나(석재은 2018; 지은숙 2019), 비혼 사유의 원인 분석에서 '결혼비용부담형', '기회상실형', '불이익부담형', 자발형'의 네가지로 분석하고 그 각 유형에 따르는 사회인구학적 분석은 동일하게 결혼을 유보한 집단 속에서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강유진 2017; Ho 2015),

이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혼인에 대한 태도, 생애주기, 거주지역, 경제적 조건 등의 구체적 구분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내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향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1인가구와 정책과의 거리

고령 독거노인과 비혼여성을 기반으로 하는 1인가구의 증가는 국가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 부분 가족 단위로 설계되는 과정 속에서의 제도적 소외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과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안전망의 소외라는 이중적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다(권문영 2018).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결혼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과 학업, 기타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 또는 기타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비혼인 여성 집단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반정호 2012; 권문영 2018). 1인가구 가운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낮고, 무직자 비율이 높은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동이나 박탈이 즉각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와 정책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 1인가구 경우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경험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권문영 2018).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1988년 시행이래 가입자와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성별차이를 보이고 있고[1], 2007년 2차 개혁에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 크레딧 제도나 이혼 시 분할연금 등의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권문영 2018).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안한 지위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지속의 어려움과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의 부재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의 제도로 비혼 여성들에게 국민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심층면접 결과 나타났다(권문영 2018). 물론, 심층면접을 통한 일반화는 불가능하지만, 가족 중심적인 국가 정책에서의 거리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청되는 바이다.

---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2월말 기준, 성별 가입자 현황은 남성이 54.92%, 여성이 45.08%를 나타내고 있다 (https://www.nps.or.kr/jsppage/etc/data/data01_02.jsp, 접속일자 2020.7.31)

3) 가족을 넘는 대안적 공동체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가구 구성의 형태가 공존하고 그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결혼 밖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이미정 2019; 김혜경 2019).

비혼 여성의 정체성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노인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면서, 비혼 이후의 삶의 고민하는 방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20. 3. 25; 이동욱 2020). 1인가구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족을 대신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의 실험은 스스로가 노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전제하지 않고, 노인 돌봄의 분배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이동욱 2020).

노인 여성의 독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사회적 시선 등의 각 나라의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Teerawichitchainan et.al. 2015), 또한 1인가구 중 노인 여성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폴란드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는 연구(Piekut 2020)에서도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파악해서 일괄 적용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나영정 2019).

3. 연구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 제안되는 관점에 맞게, 사회보장제도, 가족지원 제도, 주거지원 제도, 세제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의 1인가구 지원조례와 다양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여성 1인가구 실태에 대해서는 기존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전라북도 내 1인가구에 대한 조례 및 주거 지원제도, 노인복지제도 등의 도 자체의 사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조사방법

1) 설문조사

전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70대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성, 고용상황과 직업생활, 소득상황, 사회적 관계, 돌봄 노동, 노후의 삶에 대한 전망, 삶의 만족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 1-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1인가구 형성 및 유지	· 1인가구 형성사유 · 결혼 의향 혹은 가족구성에 대한 입장 · 1인가구 지속에 대한 입장
주거형태, 주거 안정성 및 주거환경과 안전	· 주거형태와 주거안정성 · 주거점유형태와 보증금 규모 · 교통상황과 교통만족 불만족 이유 · 범죄 위험도 · 주차장, 마트, 도로 등 다중시설의 여성친화성
직업적 특성과 안정성, 소득현황	· 근로형태와 직업 · 최초의 직장 및 직업의 이동 · 코로나 19 이후의 고용 및 직업적 상황, 소득의 변화 · 소득수준과 계층의식

구분	조사내용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유무와 돌봄종류(대상)	· 돌봄 노동 관여 계기 · 돌봄 관련 코로나 19 영향 유무와 방식
사회적 관계망, 여가, 건강	·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주민과의 소통 · 여가활동 · 질병 유무와 종류, 주관적 건강인식, 정신건강 상태(우울, 자살생각)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	· 가족친밀성 변화 · 결혼 관련 규범의 변화 · 노후의 삶에 대한 전망 · 삶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특성	· 성별 · 거주지 · 연령 · 결혼유형 · 결혼방식 · 혼인기간 · 자녀수 · 자녀 결혼여부 · 주거형태 · 최종학력 · 종교 · 근로여부 · 고용형태 · 월소득

2)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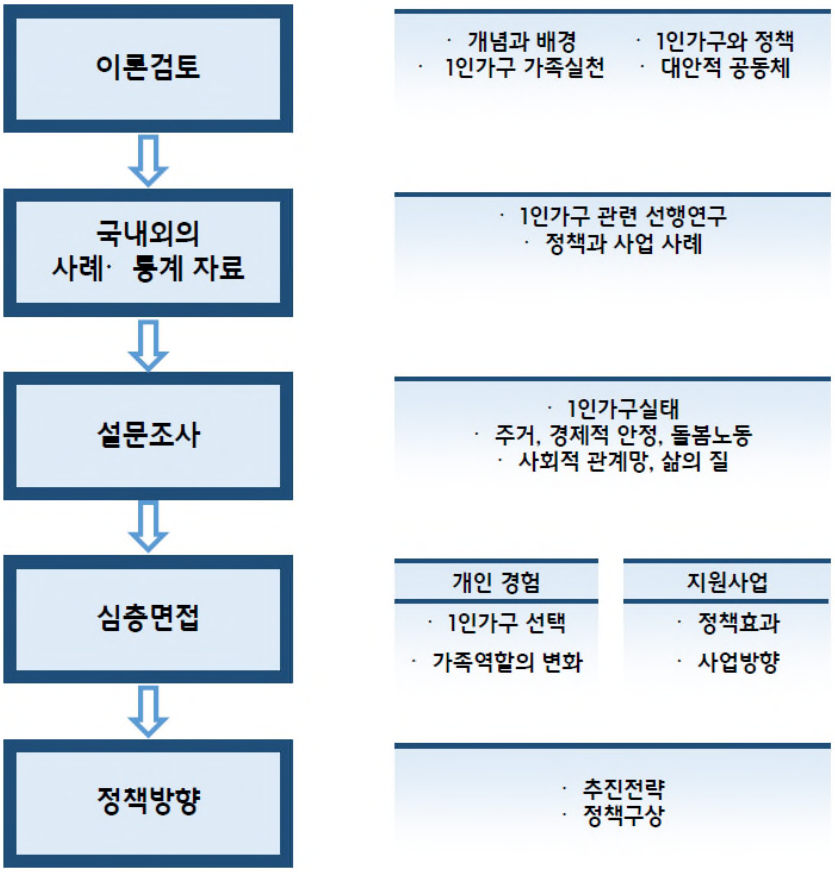
전북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생애주기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면접을 진행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불안정성이 규범이 되어버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의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1인가구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의 다층적인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인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혼공동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비혼과 1인가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많은 비혼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이들과 진행하였다.

또한, 여성 1인가구의 주거여건, 직업에 대한 접근과 유지, 돌봄 노동 관여 등에 대해 설문지로 포착하기 어려운 맥락적 사안들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파악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코로나19의 경험과 이후의 삶과 가족관계 변동 등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 연구 추진체계



2 장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Jeonbuk Institute

1.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2.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3.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4.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제2장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1.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국내 1인가구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 3조 정의, 2-2항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5조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계획 내용 중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명시되어있고, 제 20조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통적인 결혼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특히, 사회보장제도, 가족지원 제도, 주거지원 제도, 세제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1인가구 여성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가. 주거지원정책

현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주거지원정책이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고,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 청년 1인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 및 SH공사는 1인가구 유형 및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희망하우징, 두레 주택, 등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년 1인가구가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주택개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1〉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주택청약	-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지역을 갖춘 자에게 신청을 받아 당첨자 선정 - 1인가구는 청약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가점 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청약가점에 부양가족 수 포함)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가점에 있어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자녀 수 등이 포함되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청년)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최장 20년)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젊은층에, 20%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등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 지원. 단, 1인가구는 월 71만원 이하 소득이 해당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맞춤형 급여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맞춤형으로 급여 지원 - 생계 중위소득 30%(기본 생활비 지원), 의료 중위소득 40%(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중위소득 43%(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리모델링 임대사업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 가능 - 월세는 시세의 50% 수준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대학생과 노인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 - 1순위는 무주택 대학생과 독거노인, 2순위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 2020에서 재인용

나. 안전 지원 정책

안전지원 정책에 있어, 1인가구를 한정으로 하는 정책은 없으나,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지원 정책은 비상벨 설치, 성범죄가 알림 서비스,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안전 귀가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2〉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 시,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
SOS 국민안심 서비스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활동 지원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2020)에서 재인용

다. 건강 및 돌봄

1인가구를 위한 건강이나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년 1인가구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사랑 잇기 서비스(민간자원봉사자 연계 통해 안부확인 등),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 되어 최소한의 의례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인가구 노인들을 노인 건강검진 지원, 치매검진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 2-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
독거노인 보호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사랑 잇기 서비스(민간자원봉사자 연계 통해 안부확인 등),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 되어 최소한의 의례지원)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제공

자료: 양수진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2020)에서 재인용

2.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최근의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하듯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들이 2018~2020년 사이에 제·개정 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1인가구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는 크게 1인가구 전반과 관련한 조례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그리고 청년 관련한 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와 지역사회 연결망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강화, 사회친화 환경 조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공유주택'이나 '공유 주방'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표 2-4〉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 10.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9. 5. 16., 일부개정)

나. 전라북도 내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라북도의 경우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1인가구와 관련하여 장수군에서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7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 2020년 3월에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에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정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수군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와 군산시의 경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관리책임부서
서울	광진구	2019.3.12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서울	2019.5.16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족담당관
	광진구	2020.5.19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구가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다문화팀
	금천구	2017.5.15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기획예산과
	노원구	2019.3.27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보지국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2018.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도봉구	2020.5.7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성동구	2019.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년과
	양천구	2017.12.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용산구	2017.4.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어르신청소년과
	중구	2019.8.9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강남구	2018.1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동구	2017.8.9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초구	2018.1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밝은미래국 가족정책과
	강동구	2020.7.8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영등포구	2019.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부산	부산	2016.11.2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남구	2019.3.13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국 주민지원과
	부산진구	2017.1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북구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과
	해운대구	2017.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동래구	2019.2.11	부산광역시 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광주	광주	2019.10.15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2019.1.8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동구	2020.5.28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인천	남동구	2019.6.28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주민생활국 노인장애인과
	동구	2018.12.26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평구	2019.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	대구	2018.10.1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서구	2019.8.12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대전	대전	2019.8.9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공동체지원국 가족돌봄과
	대덕구	2020.3.27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정책과
	서구	2020.7.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세종	세종	2017.9.29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울산	울산	2019.3.7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인구정책과
	남구	2019.12.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지원과
	울주군	2019.3.21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관리책임부서
경기도	경가	2020.7.15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곤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2019.6.25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구리시	2019.6.25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복지정책과
	성남시	2018.12.2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복지국 사회복지과
	양평군	2019.12.26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하남시	2019.5.13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충북도	진천군	2019.9.20	진천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청주시	2019.9.20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충남도	충남	2019.5.30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부여군	2020.6.30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강원도	속초시	2020.4.17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원주시	2019.11.15	원주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태백시	2018.4.6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남도	전남	2020.5.2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담양군	2020.1.7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행복과
	광양시	2018.9.27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경남도	경남	2019.12.26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청소년국 가족지원과
	김해시	2019.2.12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김해시	2020.4.3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여성아동과
	밀양시	2019.10.3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창원시	2018.11.15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2020.2.7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산청군	2019.3.29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민원국 주민복지과
경북도	상주시	2019.7.16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북도	장수군	2017.12.5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주민복지실
	군산시	2020. 5.11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익산시	2020.3.30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제주도	제주도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20.7.31.

3.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1인가구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경제적 문제(취업, 소득, 경제활동, 자산), 주거문제, 안전문제, 사회적 관계(+공동체)와 건강 등을 주요 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 중 1인가구를 전국적 단위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인가구의 공간분포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신상영 2010; 이희연 외 2011)이다. 이 경우의 연구들은 1인가구의 거주지역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유사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둘째, 비혼 청년이나 사별 노인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 여가, 사회적 고립 등 연구대상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들(김기태·박봉길 2000; 심영 2002; 최경원 외 2012; 남기민·정은경 2011; 석재은 2007; 이지숙 2009)이 많다. 셋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비교적 1인가구의 다양한 양상들을 복합적으로 포착하거나 세대별 차이의 양상들을 다루는 연구들(이명진 외 2014; 이여봉 2017)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1인가구의 주거 및 안전, 일자리나 소득 등 경제상황, 사회관계망, 여가 및 건강, 노후준비를 포함해 미래불안이나 현재의 삶의 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1인가구 전체를 살펴보는 지역연구원의 연구보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거 및 안전, 소득 및 취업, 사회관계망, 여가 및 건강, 노후준비 등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특정한 지역적 범주내 거주하는 1인가구들을 다루는 지역의 1인가구들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에 특유한 특성이 배태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1인가구와 유사한 경향이지만 2017년 기준, 남성 1인가구는 장년층 구성비(37.5%)가 가장 많고 여성은 70세 이상의 고령인구층이 40.6%로서 가장 많아 전국단위

특성(청년층이 40.5%로 최다, 70세이상 여성노인이 27.9%로 최다)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라북도는 2000년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18년 31.7%로 전국수준(15.55, 23.9%, 29.3%)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17%, 2018년 52.9%로 2000년 대비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국기준(2000년 57.51%, 2018년 50.3%)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여성노인의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상황, 건강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김정은 외 2018),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서 범죄 취약성이 크고, 높은 경력단절 가능성과 낮은 임금 등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종선 2019; 장재원· 이지원, 2019; 박건·김연재 2016; 김선주·김행종 2019). 이런 이유로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좀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여성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 및 안전, 소득이나 취업 등 경제상태, 사회관계망, 여가나 건강,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김상훈·한혜련 2014). 이를 위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1인가구의 성별 특성을 다루고 있거나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일부 주제를 다루거나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의 주제별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거 및 안전을 다루는 연구들: 특정한 지역(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등)이나 특정한 집단(비혼집단, 서울시 20~30대 여성 등)의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검토하는 연구들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택 내에서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서(김진영 2013), 남성들보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며 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미선·조윤지 2020; 임미화 2020). 그러나 50대와 60대 여성 1인가구는 면적당 임대료에서 남성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고연령 여성 1인가구의 주거상황이 매우 열악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임미화 2020). 여성들이 특

히 주거의 안전성에 신경 쓰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 주거욕구나 주거환경을 다루고 있다(김상훈·한혜련 2014; 조규원·김태형 2019; 한민경 2019; 장진희 2018).

둘째, 소득 및 취업 등 경제상태를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1인가구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30대~40대 1인가구의 경제상태를 보는 2002년의 한 연구(심영 2002)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남성 32.1%에 비해 여성이 48.2%로서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 1인가구는 56.7%인데 비해, 남성 1인가구는 29.5%로 나타나 여성빈곤층이 남성의 약 2배 정도에 달하고(김정은 외 2018),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극대화되고 있다(이명진 외 2014).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유지영 2019)는 소득, 근로, 주거, 건강 가운데 주거결핍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근로결핍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혹은 임시,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여성청년 비율이 49.6%로 절반 가까운 1인가구 여성청년들이 근로결핍 상태에 있다. 근로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되므로 고용불안정은 장기적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성헌 2020)는 취업 여성 노인 1인 가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고했는데 이는 취업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성헌·허준수 2019).

셋째,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측면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 부분이다. 다수의 사회조사 결과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 경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은 외 2018; 송영신 2015; 이명진 외 201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10대~40대까지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가족·친척과의 교제나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나 남성에 비해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이윤석 2014). 그러나 30대~50대의 비혼 여성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사회관계망이 좁고 교류가 단절되어 있으며, 가족의 지지체계도 미약한 상태로서 불안정한 사회관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김혜정 2015).

여성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동거하는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지지가 심리적 안정감에 남성들보다 더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그만큼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보고한다(송영신, 2015). 특히 여성 노인들의 가족관계는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민경·고영미 2018; 염지혜·전미애 2020)이다.

넷째, 여가나 건강, 삶의 만족도에 주목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 2007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성림·김기옥 2009)는 전체 1인 가구 중 남성은 35.3%, 여성은 64.61%로 여성이 다수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2.77%를 차지한다. 전체 1인 가구 중 43.47%는 여가활동에의 지출이 0원이고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 지출이 유의하게 높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유형은 단체 여행 및 운동이고 남성들은 오락시설과 개인여행을 즐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60대~80대 여성노인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뚜렷이 낮고 1년에 한 번 이상 참여해본 여가스포츠 종목의 수가 적고, 각 종목별로 참여해본 인구의 비율도 적으며, 건강습관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김미혜 외 2018; 임민경·고영미 2018; 이연주 외 2015).

건강문제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의 여성들에 비해 여러 지표가 열악한 상태로서 주관적 건강이 나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절염 등 질환이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은경·박숙경, 2016).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우울 등의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9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의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요인은 모든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65~74세 전기고령인구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윤강인·강인선 2016). 건강행동이나 미충족 의료 등 건강관련 삶의 만족도에서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현주·김미종 2019). 따라서 여성 1인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한편,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 요인, 건강요인, 주거나 식생활 등이 포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노후준비나 죽음 불안 등 미래전망의 시각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미혼이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서명희 외 2017).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가족 간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최은영·주소현 2018). 이에 비해 노인들의 죽음 불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이선영 외, 2019). 여성독거노인들의 우울과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독거기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기민·정은경, 2011).

1인가구에 대한 학술연구 검토를 위해 학술지 전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3년(2018~2020년)간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검토내용은 〈표 2-6〉과 같다.

〈표 2-6〉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학술연구)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임유진·박미현,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 중년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박탈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한국복지패널 DB, 회귀분석	40~64세 중년 1인가구 344명	사회적 박탈, 식생활 박탈, 주거 박탈	- 1인가구 중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박탈, 식생활 박탈 및 주거 박탈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20	문채영 외,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과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기대」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설문조사, t/F 검정	19~39세 미혼 청년 전월세 1인가구 210명	주관적 본인/부모 경제수준, 주거실태, 주거기대, 정책 선호도 및 인식	- 청년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경제수준으로도 양질의 주거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2020	장임숙,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1인가구의 젠더특성을 분석하고 1인가구의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문헌고찰	1인가구 관련 정책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특성	-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1인가구 내에서도 정책수요가 매우 이질적임. 지역차원에서 1인가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고, 일자리, 주거, 소득보장, 사회관계망 구축 등에 대한 젠더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2019	박은정,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에 관한 연구」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일상생활세계를 살펴보고 생활시간배분, 일과 생활의 균형,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여 삶의 질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 방안 모색	생활시간조사, 로지스틱회귀분석	20세~59세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미혼자)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 여가시간	- 다인가구의 가사노동수행에서 성역할 차이가 크게 존재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여가활동시간 구성은 비근무일에서 차이가 있음 - 다인가구의 시간부족감에서 성차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부족감을 보였고, 특히 여성의 부족감이 심함
2019	허준수 외, 「노동시장 참여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도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분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제언	한국노동패널조사DB, 회귀분석	55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 308명	성별, 연령, 건강·심리, 노동·경제, 직무만족	-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한 노동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추진 - 고령자 취업직종개발에 있어서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9	김병석, 「1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의 주거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주거만족도 향상 및 정책 방향 모색	주거실태조사 DB, 로짓모형	1인가구 2,254가구	성별, 주택유형, 점유형태, 근린·환경 특성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필요 -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쉐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동체주택 도입 확대 필요 - 1인가구의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시설과 연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사회적 안정망 강화 정책 필요
2020	하희송·박한실,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성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성범죄 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CCTV 효과성 검증	전국범죄피해조사DB, 비선형 로짓모형	성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여성 7.056명	가구유형, 예방정책	- 성범죄 두려움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의 연령대(개인적 특성)나 지역사회 무질서와 공식적 통제 질서(지역적 특성) -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연령이 50대 미만일수록 성범죄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 - 특히, 1인가구 여성은 다인 가구 여성에 비해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느낌
2020	김원종, 「1인가구와 범죄」	1인가구와 범죄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여 1인가구 거주환경 안전 정책 모색	인구주택총조사, 관서별 5대범죄율DB	1인가구	5대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 -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 - 1인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2020	오영은·이정화, 「성인자녀와의 사회적 지원교환이 농촌과 도시 1인가구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교환이 노인의 삶의 미치는 영향을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여 노인 1인가구 정책수립에 기여	노인실태조사 DB, 회귀분석	노인 1인가구 (도시/농촌)	사회적 지원교환, 삶의 질	- 1인가구 노인이 자신이 사는 마을 안에서 마을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인프라 구축 필요 - 농촌과 도시 1인가구 노인 모두 정서적, 도구적, 수발지원에 대한 자원체계 연계 필요 - 도시지역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은 자살생각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1인가구 노인의 자살예방중심의 커뮤니티케어체계 강화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9	조규원·김태형, 「도시 1인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주거지 결정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심층 인터뷰	20~39세 1인 가구 (여성 8명, 남성 7명)	주거욕구, 안전성, 주거비용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에서 거주환경에 대한 불평등 발생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물리적 변수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 - 여성 1인가구의 주거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 필요
2019	정혜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1인가구 여부가 조절하는지 검증	한국복지패널 DB, 조절회귀분석	20세 이상 가구원 4,340명	우울감, 사회관계, 1인가구 여부	- 사회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 - 사회관계만족도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1인가구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1인가구 대상 쉐어하우스 확대와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조성 방안 마련 필요함
2018	장진희, 「1인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또는 서울시 범죄예방 정책 수립시 정책대상·사업지 선정 등에 1인가구가 적극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토대를 제공	(2014~2016년) 자치구별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	서울시 1인 가구	5대범죄	- 1인가구수가 증가하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 여성인구비와 유흥업소비도 5대 범죄발생을 늘리는 결과 - CCTV와 치안시설비는 5대범죄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안심택배도 5대범죄감소에 긍정적 영향 발생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 필요, CCTV와 CPTED 설치를위한 조례 또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함
2018	정윤혜·이유미, 「도시형생활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1인가구 특성이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의 물리적 현황 및 거주자 특성을 파악하고 두 가지 요인이 1인가구 주택 범죄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	설문조사 170명	서울시 원룸 거주 1인 가구	주택의 물리적 현황, 거주자 특성, 범죄 불안감	- 주택 선택시 다양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선택이라기보다 학교 · 회사와의 접근성 또는 교통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교통환경 이외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필요 - 1인 가구의 생활특성에 따라 범죄 불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 유지시간, CCTV 가동시간 및 위치 등의 기준을 마련 필요 - 다양한 주택방범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필요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이명선 외,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수준, 건강행태와 주관적 우울감의 관련성」	1인 가구의 신체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와 우울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지역사회 건강조사 DB, 회귀분석	19세 이상 1인 가구 29,146명	우울감, 건강수준, 건강행태	-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률이 다인가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신체적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행태를 수정하기 위한 중재전략이 필요함 - 1인가구의 거주 환경에서 올바른 식습관은 영양상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건강문제임 - 1인가구의 경우 결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
2018	정기성·김효정, 「서울시 2030 직장인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요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1인가구 중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주거만족도에 관한 영향요인을 규명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에 거주하는 2~30대 직장인 1인 가구 160명	건물특성, 입지특성, 실내환경특성, 실내공간특성, 경제성, 사회관계성	- 서울시 2030 직장인 1인가구 계층은 주거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시설, 디자인 등임 - 1인가구의 사회관계성 회복을 위해 공간 내부의 건축적, 환경적, 디자인적 질을 높이고, 건물의 보안과 편리성을 갖춘 맞춤형 주택을 공급 필요 - 2030 직장인 1인가구 계층의 주거선택 다양성 확대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주거 열망(aspirations)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환경 공급 필요
2020	김선주,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함. 이를 통해 연령대별 1인가구의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제시	재정패널 DB	1인 가구 771명	재무특성, 주택·주거특성	- 청년층은 월세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는 임대주택의 마련과 정책적 금융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 중장년층은 지출이 확대되는 시기와 더불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두 문제를 연결선상에서 해결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의 마련과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서적 보완제도 등을 고려 필요함 - 고령층은 현금흐름의 제약을 완화하는 부동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며,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안한 주거형태의 공급정책을 마련 필요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9	김정은, 「남녀 1인가구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때 남녀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원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 방법 모색	설문 조사	서울/ 경기 남녀 1인 가구 500	경제와 주거, 건강, 사회관계, 편견, 노후, 안전, 성욕, 외로움 등	- 여성 1인가구는 대체로 남성 1인가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임. 범죄에의 노출/안전 문제는 가장 큰 남녀 격차를 보였으며(여성이 높음), 성욕구 해결은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임(남성이 높음) - 1인가구 대상의 상담이나 치료 관련 서비스 확대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필요 -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상담에서는 상담사의 조력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2018	권연화·최열,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 상·하향 이동에 관한 연구」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결정요인과 주거이동방향 분석하여, 1인가구에게 적합한 주택수급 조정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	주거 실태 조사 DB	1인 가구 4,046 가구	주거이동 및 유형	- 청년 1인가구가 주거상향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필요 - 경제력이 낮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수준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막고, 원치않는 주거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복지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 - 개별주택의 개·보수지원을 통해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시설의 확충 등주거지 환경개선 정책 필요

4.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본 연구는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2020)」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 단위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과 주제를 다루는 연구(장진희 2016; 주혜진 2015; 황정임 2013),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관계망, 주거, 건강 등 생활의 전반 분야를 다루는 연구(문은영 2013; 주혜진 2017),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차이를 보여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연구(김종숙 2014; 반정호 2014),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차이와 세대별 차이 등에 주목하여 전반적인 삶의 실태를 다루는 연구(김민지 2018; 노경혜 2018; 박은미 2018)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2-7〉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연구보고서)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3	황정임 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실태와 수요에 근거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	질적 연구	비혼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 여성가구주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안정 지원의 확대 필요 - 주거지원의 안정성 제고 및 주거지원 이후의 주거자립 지원 강화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화 추진 필요
2018	최성은 외,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의 1인가구 현황을 검토하여 세종시 1인 가구의 특징적인 면을 도출하고,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과 같은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20~30대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질적 연구	1인 가구 (20~30대)	보건/복지, 문화/여가, 경제활동, 사회/안전	- 1인가구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하고,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경우 '자기개발'이 가능한 문화·여가 생활을 원함 - 중년층 1인 가구주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함 -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 1인 가구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높았음 -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유은경,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특성과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함	양적/질적 연구	청년 1인 가구 (20~39세)	소득, 주거/안전, 여가	- 30대를 정점으로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취업률은 낮아짐. 전체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0대의 경우는 여성 1인가구의 취업률이 더 높음 - 60대 이상 부터는 여성1인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 - 대부분 안전문제와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주거환경에 있음 - 여가시간에는 주로 운동과 SNS를 중심으로 개인활동을 하며, 주말은 친구나 원가족과의 여행도 자주 가는 편으로 나타남 -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됨
2016	장진희,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위치와 주거환경,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주거안정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양적/질적 연구	청년 여성 (20~39세)	경제, 주거, 안전	- 낮은 자가 비중,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부모 지원에 의존 -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은 높으나, 주거지의 안전보다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공동체주택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나 사생활 보장 등의 문제점
2016	박건,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노후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포함한 다양한 생애사적 경험과 이들의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중장년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양적/질적 연구	40~50세 여성 1인 가구	경제, 노후준비, 네트워크, 여가/사회활동, 주거/건강	-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당연히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가 높음 - 노후의 불안감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안감과 다른 분포도를 보임 - 여성 1인가구의 삶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자 장기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존중되는 속에서의 정책 필요함
2016	김영정,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 6080 1인가구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6080 1인가구 여성의 활기	양적/질적 연구	60~80세 여성 1인 가구	경제, 건강, 사회관계망, 차별, 여가, 학습	- 노후를 위한 일자리, 교육, 지역참여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노후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마련 -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응급상황 시 병원동행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찬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 마련				- 지역 고령여성 돌봄공동체 활성화 마련 필요
2013	문은영 외, 「서울시 고령1인가구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서울 거주 고령 1인가구 여성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 조성 방안을 제시	양적/ 질적 연구	고령 1인 가구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 이용	- 여성독거 노인의 경우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평균 1개 이상 질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접촉 및 연락 빈도의 경우 여성독거 노인 평균 빈도는 남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연락 및 접촉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1인가구여성은 '건강관련분야'와'일상생활 관련 분야'에서의 욕구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4	김종숙 외,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 경제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특성별로 효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양적/ 질적 연구	1인 가구	경제활동	- 장년기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 - 중년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음 - 청년기에는 1인가구와 비1인가구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았음 -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14	반정호,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증가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양적 연구	1인 가구	빈곤실태, 소득불평등, 소비실태, 사회경제적 지위	- 1인가구는 2인이상 가구와 달리 여성, 중고령층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과 함께 1인가구에서 20대 청년층 가구수가 줄고, 3-40대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 증가 -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1인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타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2015	주혜진 외, 「대전지역 여성 1인 가구	젠더관점을 도시공간 해석에 도입함으로써, 1인가구	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안전	-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나 취업' 때문임 - 거주지 선택 고려사항으로 여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안전 지원방안, 대전발전 연구원	여성뿐만 아니라 거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안전과 관련한 지역정책 발굴				성 1인 가구주들은 '교통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1인 가구주나 2인 이상 가구의 여성가구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임 - 골목, 건물 CCTV 설치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필요함
2018	박은미,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경북지역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제시	양적/질적 연구	1인 가구 (20세 이상)	건강, 네트워크, 주거/안전, 경제	- 남성, 20~40대, 도시지역, 대졸 이상, 비혼 등의 집단에서 1인 가구를 자발적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경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은 경제력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에서 높음 -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 경제지원 정책 등임
2019	권안나,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가족정책 방향 연구」 울산여성 가족개발원	- 보편적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1인가구의 특성 분석 - 향후 울산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및 가족정책의 방향성 설정	양적/질적 연구	1인가구 500명	생활, 주거 및 안전, 일·생활 균형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노후생활, 여가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	- 여자 1인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음 - 1인가구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안정된 일자리 및 거주환경 구축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필요 - 건강한 삶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필요
2019	김영정,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 1인가구 공동체 주거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1인가구 사회적 관계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제시 - 1인가구 공동체 주거가 갖는 대안적 생활공동체 논의에서의 함의 도출	양적/질적 연구	서울지역 공동체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가구 생활자 146명	삶, 공동체주거 생활, 입주자 공동체 활동, 공동체주거 인식	- 여성의 경우 현 거주지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으나, 공동체주거에서는 불안감이 낮게 나타남 - 공동체주거 홍보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입주자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공동체규약 제정 가이드라인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지원 - 사례발굴 및 확산 - 공동체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및 역량강화 - 유관기관 협의 정례화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노경혜 외,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1인가구의 성별, 생애주기, 지역특성이 반영된 삶의 질의 차이와 정책 욕구를 이해하고, 이것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양적/질적 연구	1인가구.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소득, 주거, 사회적 관계망, 여가, 일상생활 및 건강	- 여성보다 남성이 직장 1인가구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사별의 이유가 많음.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의향이 높음 - 여성은 자가 비율이 높고, 남성은 월세가 많으며, 여성의 거주지 만족이 더 높음 -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와 관련하여 치안방법에 대한 불만이 더 높고, 남성 1인가구는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한 불만 이유 중 하나임 -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여성 1인가구 및 청년기 1인가구의 만족이 높은 편임
2018	김민지, 「대구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지역의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주거·안전, 복지 등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파악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제시	양적/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경제, 주거/안전, 건강 및 돌봄	- 경제적 취약성 높음. 경제지원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주거안전 불안 높고, 주거안정성 낮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움
2014	하정화 외,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역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별, 연령별, 형성배경별, 소득별 등을 배경으로 한 지원방안을 제안	양적/질적 연구	1인 가구 (단, 여성 1인 가구 2/3)	형성배경 및 만족도, 주거/생활, 건강, 사회적 관계망, 노후준비	-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1인가구는 거주환경에 대해 안전하지못하다고 여기며 방범활동 및 보안장치 강화,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책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음 - 연령대별에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형성배경별에서 전체적으로 미혼 1인가구가 분거, 이혼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 구직활동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제공 등을 더 필요로 함
2017	홍승아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인가구의 생활실태, 가족관련 가치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가족정책 대응방안 모색	양적/질적 연구	25~44세 비혼/미혼 1인 가구	생활실태, 성 및 가족가치관, 정책수요	- 결혼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나,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 - 여성보다 남성이, 35~44세보다 25~34세가 장시간 근로 -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 여성 1인가구가 남성보다 범죄 노출 위험이 더 크다는 응답이 더 높아서, 성별에 따라 안전 문제가 다르게 나타남
2018	양수진,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1인가구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상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심리적 안정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	양적/질적 연구	1인 가구	경제, 주거, 건강, 관계, 문화	-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 연령에 따라 경제적 특성이 상이함 -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경향을 보이고,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짐 - 자가 소유비율이 낮고, 여성은 주거 영역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 - 중장년과 노년층의 우울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에 취약성 보임 - 20~40대 1인 가구의 경우 주변과 적절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고 관계의 단절을 더욱 경험함
2017	주혜진,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사회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해 유형화하여 대전시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	양적/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군집분석) 사무직 미혼여성, 노령의 주부여성, 돌아온 중년여성, 대학생 미혼여성	- 사무직 미혼여성: 대졸이며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적극적인 편.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고, 이웃과의 소통엔 소극적인 편 - 노령의 주부여성: 학력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며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 자기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염려되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활발함 - 돌아온 중년여성: 고졸의 판매업 종사자이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하는 편. 자기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 대학생 미혼여성: 직업이 없고, 월 소득이 적으나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즐김.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이웃과의 소통에는 가장 소극적임

자료: 이수인 외(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인용함.

3 장

전국 및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Jeonbuk Institute

1. 전국 1인가구 현황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제3장. 전국 및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1. 전국 1인가구 현황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4인 이상의 다인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인가구는 2000년 19.1%에서 2018년 27.3%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3인가구는 2000년 20.9%에서 2018년 21.0%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4인가구는 2000년 31.1%에서 2018년 17.0%로, 5인 이상 가구도 2000년 13.4%에서 2018년 5.4%로 2000년에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해 가구원수별 가구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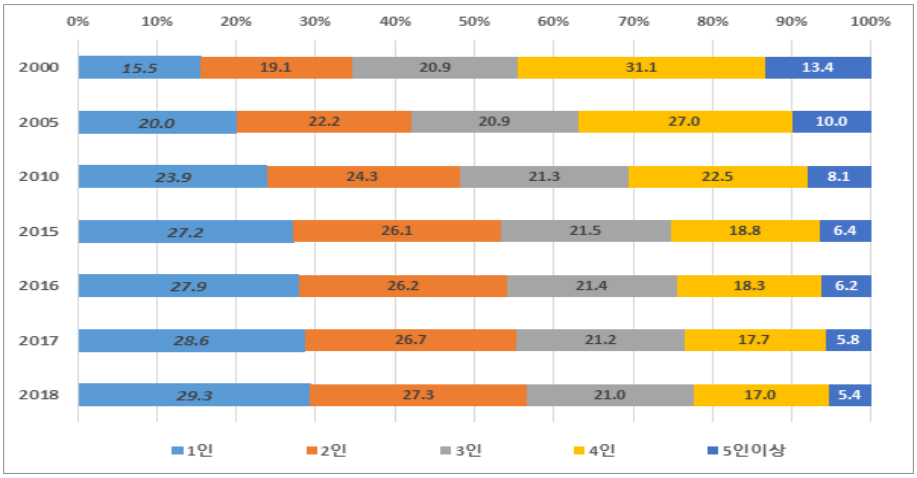
2000년과 2005년 일반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가구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1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구규모가 계속적으로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

〈표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가구		14,311,807 *100.0*	15,887,128 *100.0*	17,339,422 *100.0*	19,111,030 *100.0*	19,367,696 *100.0*	19,673,875 *100.0*	19,979,188 *100.0*
가구원수	1인	2,224,433 *15.5*	3,170,675 *20.0*	4,142,165 *23.9*	5,203,440 *27.2*	5,397,615 *27.9*	5,618,677 *28.6*	5,848,594 *29.3*
	2인	2,730,548 *19.1*	3,520,545 *22.2*	4,205,052 *24.3*	4,993,818 *26.1*	5,067,166 *26.2*	5,260,332 *26.7*	5,445,691 *27.3*
	3인	2,987,405 *20.9*	3,325,162 *20.9*	3,695,765 *21.3*	4,100,979 *21.5*	4,151,701 *21.4*	4,178,641 *21.2*	4,203,792 *21.0*
	4인	4,447,170 *31.1*	4,289,035 *27.0*	3,898,039 *22.5*	3,588,931 *18.8*	3,551,410 *18.3*	3,473,897 *17.7*	3,396,320 *17.0*
	5인 이상	1,922,251 *13.4*	1,581,711 *10.0*	1,398,401 *8.1*	1,223,862 *6.4*	1,199,804 *6.2*	1,142,328 *5.8*	1,084,791 *5.4*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1인가구의 성별 구성원 변화를 보면 여성의 구성비가 높지만, 2000년에 비해 2015년부터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남성 1인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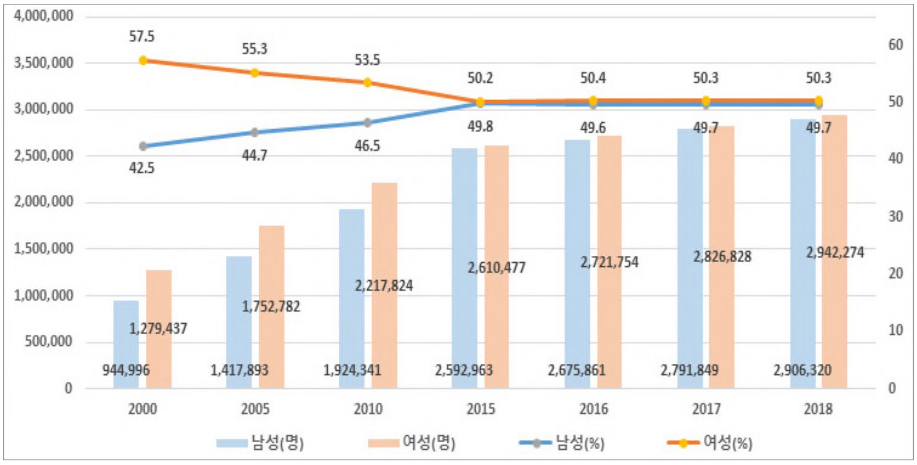
2000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여성이 전체의 57.5%, 남성이 전체의 42.5%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의 인구가 약 33만 명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2018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49.7%, 여성 1인가구가 50.3%로 나타나 성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00년 1,279,437가구에서 2018년 2,942,274가구로 1,662,837명(130.0%)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2000년 944,996가구에서 2018년 2,906,320가구(207.5%)가 증가했다.

〈표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1인가구	2,224,433 *100.0*	3,170,675 *100.0*	4,142,165 *100.0*	5,203,440 *100.0*	5,397,615 *100.0*	5,618,677 *100.0*	5,848,594 *100.0*
남자	944,996 *42.5*	1,417,893 *44.7*	1,924,341 *46.5*	2,592,963 *49.8*	2,675,861 *49.6*	2,791,849 *49.7*	2,906,320 *49.7*
여자	1,279,437 *57.5*	1,752,782 *55.3*	2,217,824 *53.5*	2,610,477 *50.2*	2,721,754 *50.4*	2,826,828 *50.3*	2,942,274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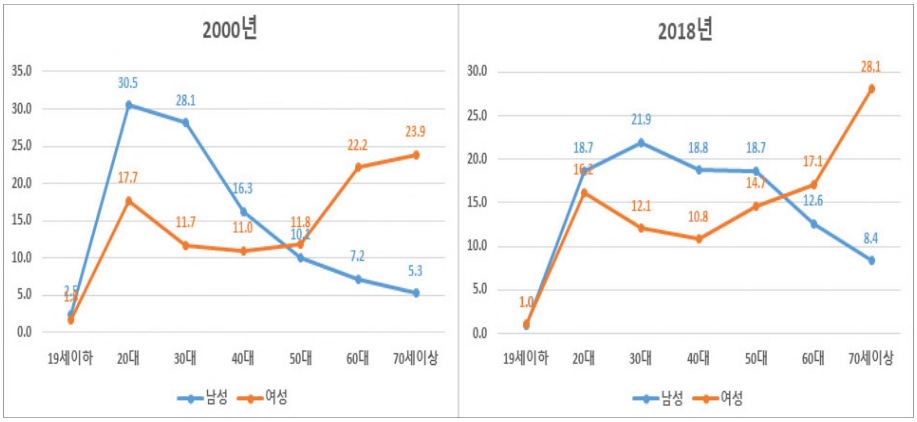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18)

2000년과 2018년의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의 비교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 여성은 60대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 2000년에 20대 1인가구 구성비가 30.5%, 30대 1인가구 구성비가 28.1%로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과반이 넘는 58.6%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청년층 구성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60대이상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0년에는 60대 22.2%, 70세이상 23.9%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구성비가 더욱 높아져 70세이상의 1인가구가 전체의 28.1%를 차지해 남성보다 매우 높았다.



〈그림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표 3-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18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1인가구	2,224,433 *100.0*	944,996 *100.0*	1,279,437 *100.0*	5,848,594 *100.0*	2,906,320 *100.0*	2,942,274 *100.0*
20세 미만	46,576 *2.1*	23,857 *2.5*	22,719 *1.8*	58,154 *1.0*	27,623 *1.0*	30,531 *1.0*
20~ 29세	514,200 *23.1*	287,980 *30.5*	226,220 *17.7*	1,019,944 *17.4*	542,781 *18.7*	477,163 *16.2*
30~ 39세	415,264 *18.7*	265,986 *28.1*	149,278 *11.7*	992,737 *17.0*	637,042 *21.9*	355,695 *12.1*
40~ 49세	295,010 *13.3*	154,305 *16.3*	140,705 *11.0*	864,221 *14.8*	545,819 *18.8*	318,402 *10.8*
50~ 59세	246,105 *11.1*	95,243 *10.1*	150,862 *11.8*	974,444 *16.7*	543,074 *18.7*	431,370 *14.7*
60~ 69세	351,574 *15.8*	67,846 *7.2*	283,728 *22.2*	869,904 *14.9*	366,564 *12.6*	503,340 *17.1*
70세 이상	355,704 *16.0*	49,779 *5.3*	305,925 *23.9*	1,069,190 *18.3*	243,417 *8.4*	825,773 *28.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시·도별 1인가구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전체 가구의 32.8%가 1인가구였고, 대전 32.5%, 경북 32.3%, 서울 32.0% 순이었다. 17개 시·도 모두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대비 2018년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17.3%p, 그 뒤를 이어 부산 15.9%p, 서울 15.7%p 가 증가했다. 반면,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1.7%p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 경북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국 시·도별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가구, 전체가구 중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2,224,433 *15.5*	3,170,675 *20.0*	4,142,165 *23.9*	5,203,440 *27.2*	5,397,615 *27.9*	5,618,677 *28.6*	5,848,594 *29.3*
서울	502,245 *16.3*	675,739 *20.4*	854,606 *24.4*	1,115,744 *29.5*	1,138,860 *30.1*	1,180,540 *31.0*	1,229,421 *32.0*
부산	154,237 *13.8*	222,515 *18.8*	290,902 *23.4*	361,749 *27.1*	372,412 *27.7*	388,899 *28.7*	404,408 *29.7*
대구	107,913 *14.2*	148,331 *18.2*	192,472 *22.2*	239,517 *25.8*	247,444 *26.4*	259,525 *27.4*	269,903 *28.2*
인천	97,127 *13.0*	141,511 *17.2*	190,882 *20.8*	243,678 *23.3*	254,076 *23.9*	266,434 *24.7*	275,898 *25.2*
광주	60,207 *14.7*	87,447 *19.0*	122,506 *23.7*	163,577 *28.8*	165,169 *29.0*	171,424 *29.8*	174,614 *30.2*
대전	62,742 *15.2*	98,678 *20.6*	134,938 *25.3*	169,391 *29.1*	179,605 *30.4*	188,136 *31.5*	195,544 *32.5*
울산	42,532 *13.9*	57,923 *17.1*	77,421 *20.7*	103,551 *24.5*	104,856 *24.6*	107,497 *25.1*	110,236 *25.6*
세종	- -	- -	- -	21,889 *29.1*	27,683 *30.6*	31,472 *30.2*	35,763 *30.0*
경기	337,555 *12.6*	562,995 *16.9*	777,360 *20.3*	1,026,471 *23.4*	1,067,916 *23.8*	1,124,541 *24.4*	1,197,586 *25.2*
강원	91,545 *18.8*	122,139 *23.5*	155,453 *27.9*	189,379 *31.2*	197,917 *32.1*	199,645 *32.2*	206,295 *32.8*
충북	78,780 *17.1*	114,584 *22.7*	150,455 *26.9*	173,598 *28.8*	187,377 *30.3*	195,186 *31.0*	204,109 *31.8*
충남	101,097 *17.2*	149,102 *22.6*	201,875 *27.0*	234,513 *29.5*	247,056 *30.4*	259,727 *31.1*	270,497 *31.8*
전북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22,201 *30.7*	227,600 *31.2*	232,587 *31.7*
전남	130,679 *19.7*	163,718 *24.6*	197,084 *28.9*	218,864 *30.4*	227,225 *31.2*	232,022 *31.6*	235,062 *31.9*
경북	163,919 *18.5*	224,611 *23.9*	289,704 *28.8*	322,569 *30.4*	336,547 *31.3*	346,998 *31.9*	353,702 *32.3*
경남	162,923 *17.1*	226,117 *21.4*	286,485 *24.9*	346,754 *27.6*	358,430 *28.1*	370,293 *28.6*	379,719 *29.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2.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과 비슷하게 다인가구는 감소하고, 2인이하 가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17.4%였던 1인가구는 14.3%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고, 2인가구 역시 2000년 23.5%에서 2018년 30.0%로 증가하였다.

전북의 1인가구와 2인가구 구성비율은 전국의 수준보다 높은 편이었다. 3인가구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인가구 이상은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4인가구는 2000년 25.3%에서 2018년 13.9%로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5인이상 가구도 2000년 15.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여 가구원수별 가구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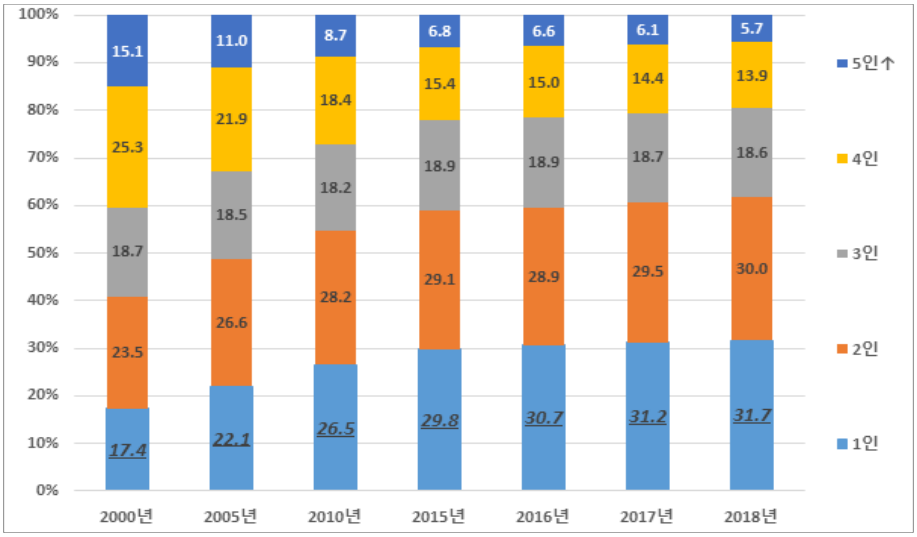
전북에서 2000년에 일반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주된 가구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2005년~2010년까지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1인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아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일반가구가 2000년 601,965가구에서 2018년 732,980가구로 21.8% 증가하는 동안 1인가구는 2000년 104,780가구에서 2018년 232,587가구로 122.0%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24,678 *100.0*	728,871 *100.0*	732,980 *100.0*
가구원수	1인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22,201 *30.7*	227,600 *31.2*	232,587 *31.7*
	2인	141,284 *23.5*	164,954 *26.6*	186,191 *28.2*	209,008 *29.1*	209,595 *28.9*	214,939 *29.5*	220,032 *30.0*
	3인	112,786 *18.7*	114,667 *18.5*	120,168 *18.2*	135,856 *18.9*	137,015 *18.9*	136,325 *18.7*	136,476 *18.6*
	4인	152,441 *25.3*	135,529 *21.9*	121,345 *18.4*	110,132 *15.4*	108,374 *15.0*	105,267 *14.4*	101,909 *13.9*
	5인 이상	90,674 *15.1*	68,054 *11.0*	57,216 *8.7*	48,565 *6.8*	47,493 *6.6*	44,740 *6.1*	41,976 *5.7*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4〉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18)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성별 구성원 변화를 보면, 전라북도의 1인가구를 구성하는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2000년에 비해 2018년의 성별 차이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5% 이상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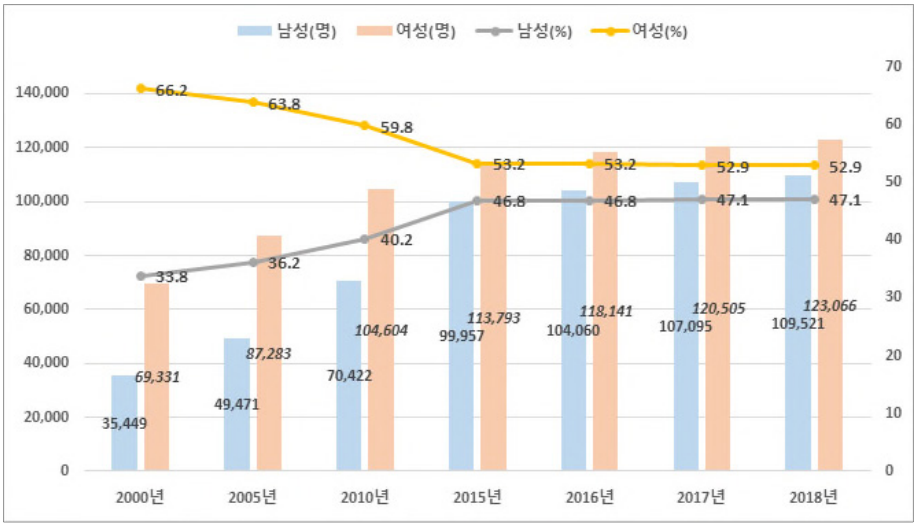
2000년을 기준으로 전북 1인가구의 66.2%는 여성이었고, 남성 1인가구는 33.8%에 불과하였으나, 그 차이는 매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47.1%, 여성 1인가구가 52.9%로 2017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1인가구	104,780 *100.0*	136,754 *100.0*	175,026 *100.0*	213,750 *100.0*	222,201 *100.0*	227,600 *100.0*	232,587 *100.0*
남자	35,449 *33.8*	49,471 *36.2*	70,422 *40.2*	99,957 *46.8*	104,060 *46.8*	107,095 *47.1*	109,521 *47.1*
여자	69,331 *66.2*	87,283 *63.8*	104,604 *59.8*	113,793 *53.2*	118,141 *53.2*	120,505 *52.9*	123,066 *52.9*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18)

전라북도의 2000년과 2018년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 남성은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여성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00년 20대(28.3%), 2018년 50대(19.8%), 여자는 2000년 60대(29.5%), 2018년 70대(22.5%)로 점차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는 청년층보다 장년층에 더 많은 1인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업과 일자리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20~30대 미혼 청년층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연령화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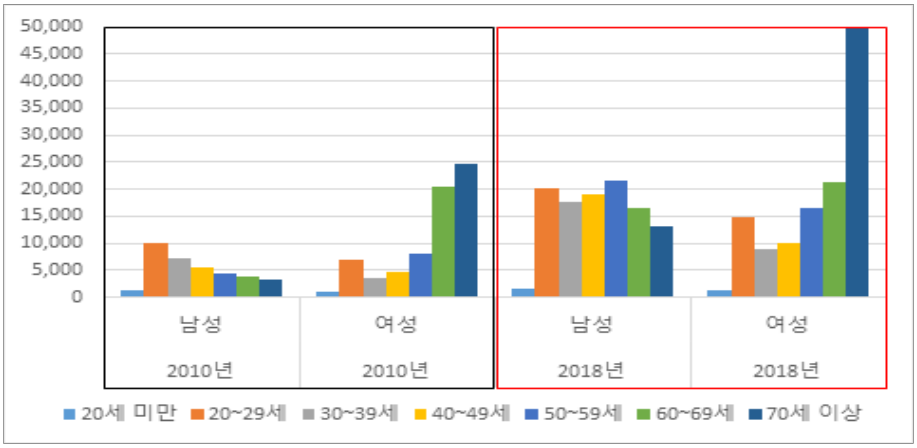
반면, 여성의 경우 노년층(60대이상) 구성비가 가장 높았는데, 2000년에는 60대이상 비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대 이상 1인가구의 구성비는 더욱 증가하여 전체 1인가구의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18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1인가구	104,780 *100.0*	35,449 *100.0*	69,331 *100.0*	232,587 *100.0*	109,521 *100.0*	123,066 *100.0*
20세 미만	2,395 *2.3*	1,292 *3.6*	1,103 *1.6*	3,082 *1.3*	1,676 *1.5*	1,406 *1.1*
20~29세	16,873 *16.1*	10,028 *28.3*	6,845 *9.9*	34,940 *15.0*	20,042 *18.3*	14,898 *12.1*
30~39세	10,735 *10.2*	7,076 *20.0*	3,659 *5.3*	26,502 *11.4*	17,712 *16.2*	8,790 *7.1*
40~49세	10,123 *9.7*	5,485 *15.5*	4,638 *6.7*	29,053 *12.5*	18,973 *17.3*	10,080 *8.2*
50~59세	12,367 *11.8*	4,357 *12.3*	8,010 *11.6*	38,293 *16.5*	21,653 *19.8*	16,640 *13.5*
60~69세	24,230 *23.1*	3,801 *10.7*	20,429 *29.5*	37,698 *16.2*	16,454 *15.0*	21,244 *17.3*
70세 이상	28,057 *26.8*	3,410 *9.6*	24,647 *35.5*	63,018 *27.1*	13,011 *11.9*	50,007 *40.6*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3-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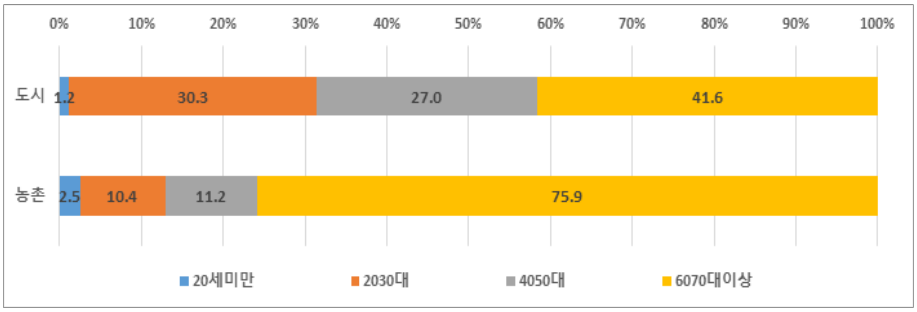
전라북도 주요 도시와 농촌 여성 1인가구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주시의 경우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30.3%인데 비해 임실군의 경우 20~30대는 10.4%에 불과하고 60~70대 이상이 전주는 41.6%, 임실 75.9%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대별, 지역별로 여성 1인가구의 분포가 상이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실태와 삶의 질 차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 욕구를 이해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표 3-8〉 2018년 주요 도시-농촌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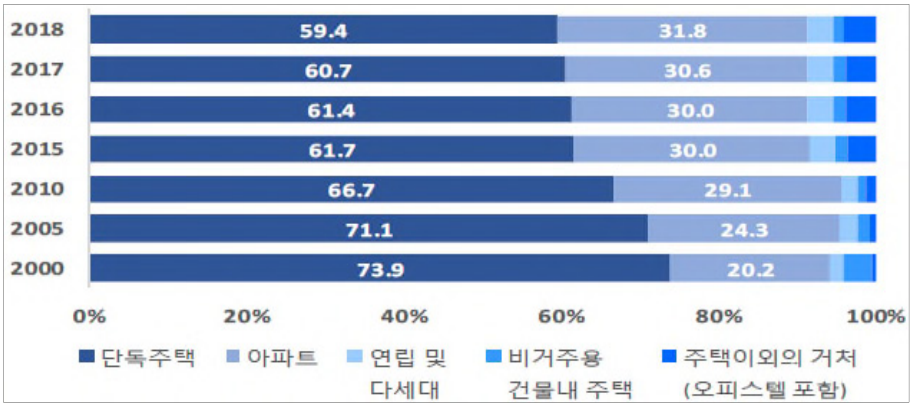
구분		20세미만	2030대	4050대	6070대이상	계
전라북도	계	3,082 *1.3*	61,442 *26.4*	67,346 *29.0*	100,716 *43.3*	232,587 *100.0*
	남자	1,676 *1.5*	37,754 *34.5*	40,626 *37.1*	29,465 *26.9*	109,521 *100.0*
	여자	1,406 *1.1*	23,688 *19.2*	26,720 *21.7*	71,251 *57.9*	123,066 *100.0*
도시 (전주시)	계	878 *1.1*	28,071 *36.7*	24,044 *31.4*	23,569 *30.8*	76,562 *100.0*
	남자	426 *1.1*	16,271 *43.2*	13,549 *36.0135*	7,376 *19.60555*	37,622 *100.0*
	여자	452 *1.2*	11,800 *30.3*	10,495 *27.0*	16,193 *41.6*	38,940 *100.0*
농촌 (임실군)	계	130 *2.9*	607 *13.6*	951 *21.4*	2,763 *62.1*	4,451 *100.0*
	남자	67 *3.6*	340 *18.0*	663 *35.2*	815 *43.2*	1,885 *100.0*
	여자	63 *2.5*	267 *10.4*	288 *11.2*	1,948 *75.9*	2,566 *10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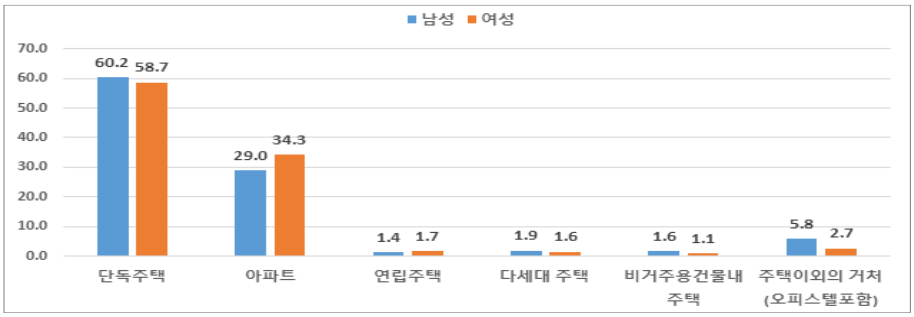
〈그림 3-7〉 전북 여성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전라북도 1인가구의 거처종류를 살펴보면, 2018년 1인가구의 주된 거처는 '단독주택'으로 2000년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00년(73.9%) → '05년(71.1%) → '10년(66.7%) → '18년(59.4%) 등으로 2000년 대비 -14.5%p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00년(20.2%) → '05년(24.3%) → '10년(29.1%) → '18년(31.8%) 등으로 2000년 대비 +11.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살아가기에 편리한 주변 생활권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형의 아파트가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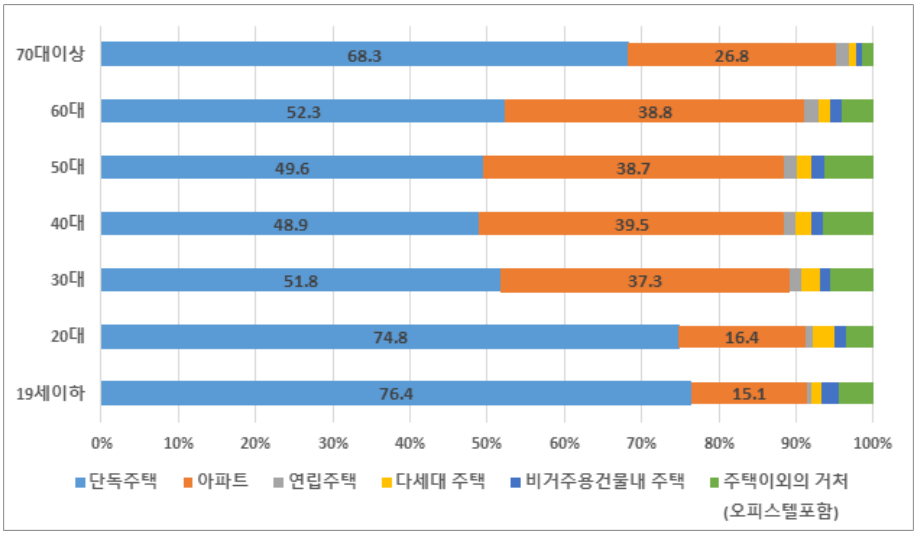
〈그림 3-8〉 전북 1인가구의 거처종류별 구성비 추이(2000~2018)

전라북도 1인가구의 거처종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그 외 거처종류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3-9〉 전북 1인가구의 성별·거처종류별 구성비(2018)

전라북도 1인가구의 거처종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60대 1인가구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 이하 및 70대 이상 1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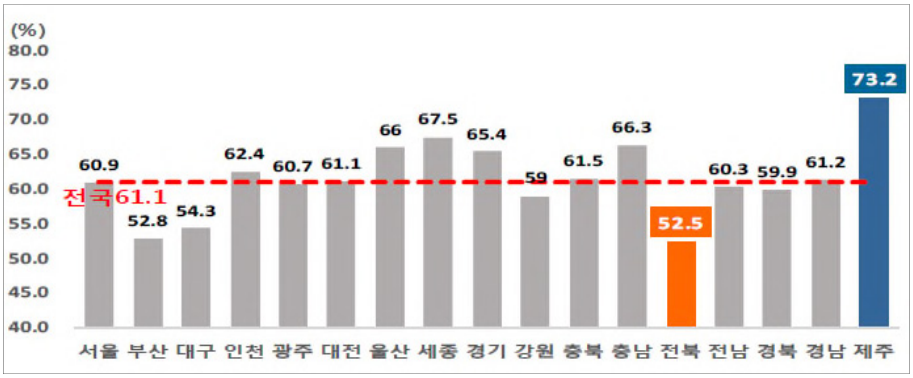


〈그림 3-10〉 전북 1인가구의 연령별·거처종류별 구성비(2018)

전라북도 1인가구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52.5%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은 제주(73.2%), 세종(67.5%), 충남(66.3%) 순으로 높은 반면, 전북(52.5%), 부산(52.8%), 대구(54.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제주와 전북의 고용률 차이는 20.7%p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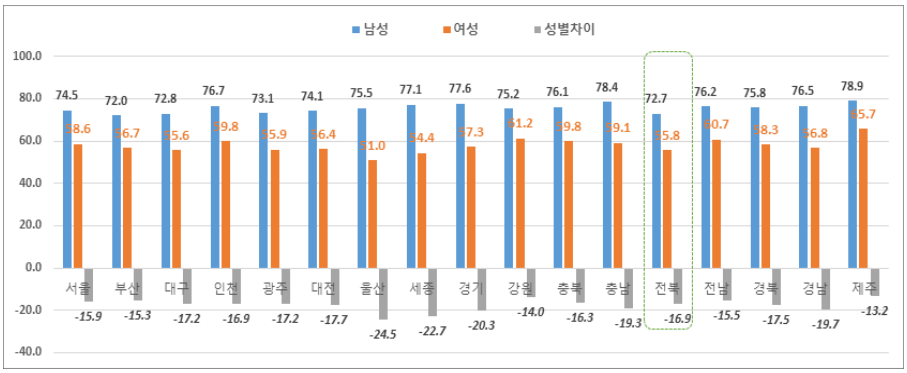
2015년과 대비하여 울산(-4.2%p), 전북(-3.3%p), 전남(-1.8%p), 충북(-1.8%p), 대전(-0.9%p), 대구(-0.5%p) 등은 고용률이 감소한 반면, 충남(5.4%p), 제주(3.4%p), 광주(2.2%p), 부산(1.7%p) 등은 증가하였다.

전북의 경우 2015년 55.8%, 2016년 57.1%, 2017년 52.7%, 2018년 52.5%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 전국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2018)

여성 고용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65.7%), 강원(61.2%), 전남(60.7%) 등의 순으로 높았고, 울산(51.0%), 세종(54.4), 대구(55.6%), 전북(55.8%)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북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57.8%에 비해 약 2%p 낮은 수준이었다. 시도별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울산 24.5%p, 세종 22.7%p 차이로 가장 컸고, 전북은 16.9%p 차이를 보였다. 정리하면, 전북의 경우 1인가구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전북 여성 1인가구의 고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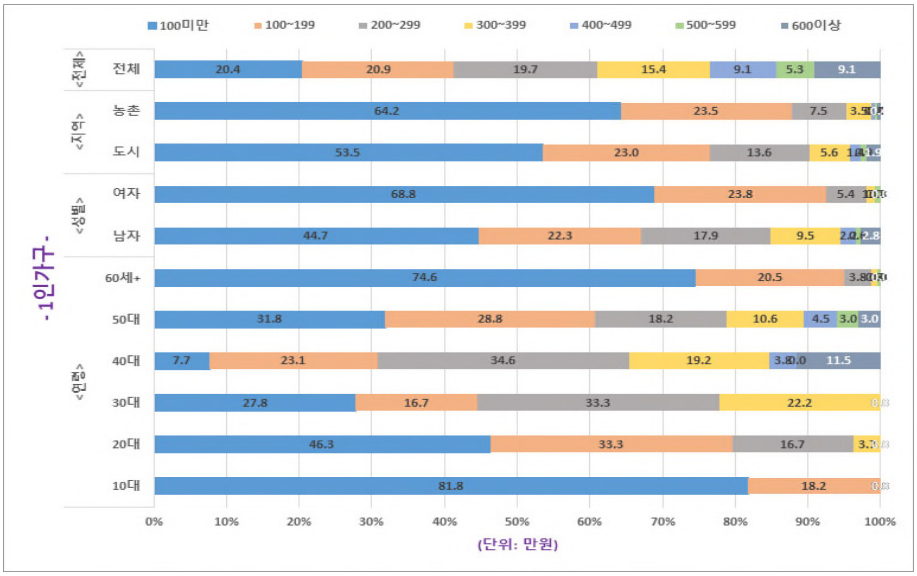
〈그림 3-12〉 지역별, 성별 고용률(2018)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저소득 구간에 매우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50대, 60대이상 그룹에서 저소득 분포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60대이상 그룹에서 100만원 미만 소득 비율이 74.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의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1인가구의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미만	600만원 이상
전체가구		1인	59.0	23.2	10.5	4.6	0.9	0.7	1.1
		2인	21.1	27.4	22.0	14.0	6.7	4.3	4.5
		3인	6.0	24.0	17.2	18.0	12.5	6.8	15.6
		4인이상	0.7	8.3	24.7	23.5	16.4	9.3	17.2
1인 가구	연령	10대	81.8	18.2	0.0	0.0	0.0	0.0	0.0
		20대	46.3	33.3	16.7	3.7	0.0	0.0	0.0
		30대	27.8	16.7	33.3	22.2	0.0	0.0	0.0
		40대	7.7	23.1	34.6	19.2	3.8	0.0	11.5
		50대	31.8	28.8	18.2	10.6	4.5	3.0	3.0
		60대+	74.6	20.5	3.8	0.8	0.0	0.4	0.0
	성별	남자	44.7	22.3	17.9	9.5	2.2	0.6	2.8
		여자	68.8	23.8	5.4	1.2	0.0	0.8	0.0
	지역	도시	53.5	23.0	13.6	5.6	1.4	0.9	1.9
		농촌	64.2	23.5	7.5	3.5	0.4	0.4	0.4
	전체	n	462	473	445	348	207	121	207
		%	20.4	20.9	19.7	15.4	9.1	5.3	9.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9)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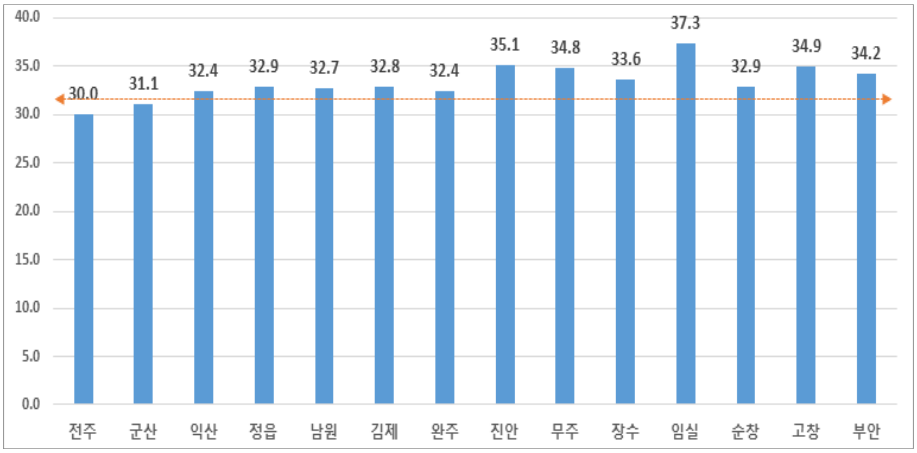
〈그림 3-13〉 전라북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분포

전라북도 시군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은 2005년부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14개 시군 모든 지역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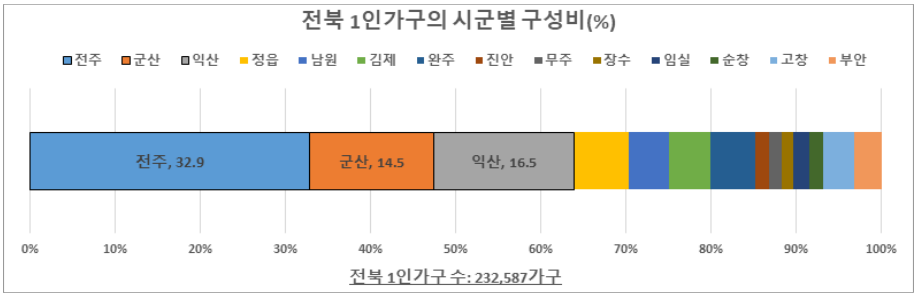
2018년 기준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로 전체 가구의 37.3%가 1인 가구였다. 이어 진안 35.1%, 고창 34.9% 순이었다. 해당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으로 1인가구의 상당 부분을 독거 노인인 노년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2000년 대비 2018년 1인가구 증가율은 전주(218.2%↑), 군산(191.3%↑)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순창이 27.7%로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시·군 모두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주는 2000년 24,059가구에서 2018년 76,562가구로 218.2% 대폭 증가한 반면, 순창은 2000년 2,985가구에서 2018년 3,813가구로 27.7%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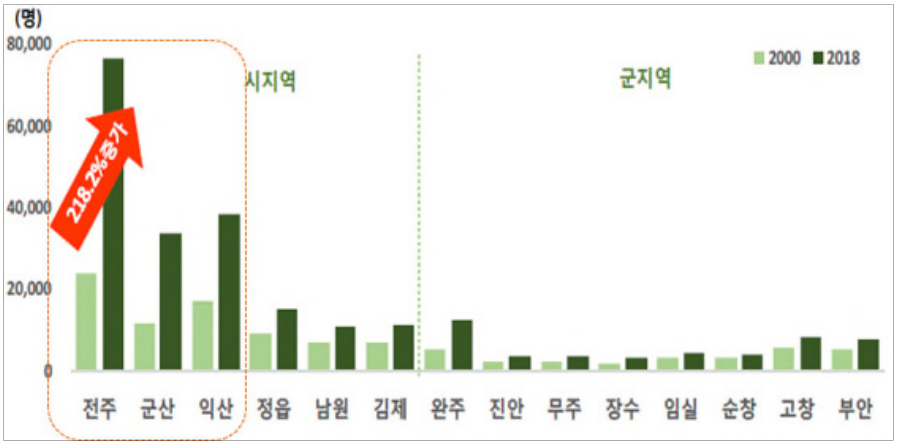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단위 중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임실, 진안, 고창의 순인데 반해, 2000년 대비 2018년의 1인가구 비율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시단위 지역이며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전주, 군산, 전주, 익산이라는 점이다. 전북 전체 1인가구 232,587가구 중 63.9%가 전주/군산/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전북 시군별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중(2018년)



〈그림 3-15〉 전북 전체 1인가구 수의 시군별 구성비(2018년)



〈그림 3-16〉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수 비교(2000년 vs 2018년)

〈표 3-10〉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전라북도	601,965	104,780	619,958	136,754	659,946	175,026	717,311	213,750	732,980	232,587
	(100.0)	(17.4)	(100.0)	(22.1)	(100.0)	(26.5)	(100.0)	(29.8)	(100.0)	(31.7)
전주	182,420	24,059	199,905	35,623	224,883	51,166	247,223	68,972	255,604	76,562
	(100.0)	(13.2)	(100.0)	(17.8)	(100.0)	(22.8)	(100.0)	(27.9)	(100.0)	(30.0)
군산	82,092	11,603	84,736	17,021	94,944	23,591	106,127	31,080	108,539	33,802
	(100.0)	(14.1)	(100.0)	(20.1)	(100.0)	(24.8)	(100.0)	(29.3)	(100.0)	(31.1)
익산	100,901	17,351	104,695	23,283	109,391	30,138	117,517	35,959	118,435	38,371
	(100.0)	(17.2)	(100.0)	(22.2)	(100.0)	(27.6)	(100.0)	(30.6)	(100.0)	(32.4)
정읍	44,174	9,198	43,430	10,820	43,716	12,551	45,119	13,962	45,514	14,964
	(100.0)	(20.8)	(100.0)	(24.9)	(100.0)	(28.7)	(100.0)	(30.9)	(100.0)	(32.9)
남원	32,627	7,098	32,668	8,674	31,329	9,156	33,145	10,378	33,135	10,825
	(100.0)	(21.8)	(100.0)	(26.6)	(100.0)	(29.2)	(100.0)	(31.3)	(100.0)	(32.7)
김제	34,867	7,101	34,045	8,732	33,295	10,059	34,671	10,795	34,621	11,360
	(100.0)	(20.4)	(100.0)	(25.6)	(100.0)	(30.2)	(100.0)	(31.1)	(100.0)	(32.8)
완주	25,354	5,395	26,692	6,141	29,493	8,012	35,902	10,671	37,860	12,263
	(100.0)	(21.3)	(100.0)	(23.0)	(100.0)	(27.2)	(100.0)	(29.7)	(100.0)	(32.4)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진안	10,225	2,127	9,176	2,373	9,153	3,119	9,932	3,175	10,374	3,639
	(100.0)	(20.8)	(100.0)	(25.9)	(100.0)	(34.1)	(100.0)	(32.0)	(100.0)	(35.1)
무주	9,686	2,099	9,259	2,486	9,476	3,132	9,948	3,197	10,251	3,570
	(100.0)	(21.7)	(100.0)	(26.8)	(100.0)	(33.1)	(100.0)	(32.1)	(100.0)	(34.8)
장수	8,582	1,941	8,226	2,231	8,300	2,601	8,975	2,866	9,213	3,091
	(100.0)	(22.6)	(100.0)	(27.1)	(100.0)	(31.3)	(100.0)	(31.9)	(100.0)	(33.6)
임실	11,951	2,971	11,053	3,325	10,693	3,609	11,347	3,708	11,940	4,451
	(100.0)	(24.9)	(100.0)	(30.1)	(100.0)	(33.8)	(100.0)	(32.7)	(100.0)	(37.3)
순창	11,758	2,985	11,026	3,349	10,891	3,687	11,440	3,826	11,577	3,813
	(100.0)	(25.4)	(100.0)	(30.4)	(100.0)	(33.9)	(100.0)	(33.4)	(100.0)	(32.9)
고창	24,120	5,702	22,893	6,596	22,782	7,458	23,468	7,773	23,647	8,249
	(100.0)	(23.6)	(100.0)	(28.8)	(100.0)	(32.7)	(100.0)	(33.1)	(100.0)	(34.9)
부안	23,208	5,150	22,154	6,100	21,600	6,747	22,497	7,388	22,270	7,627
	(100.0)	(22.2)	(100.0)	(27.5)	(100.0)	(31.2)	(100.0)	(32.8)	(100.0)	(34.2)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표 3-11〉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성별 비중 추이(2015~2018)

(단위 : 가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주	68,972	34,363	34,609	71,515	35,321	36,194	73,738	36,485	37,253	76,562	37,622	38,940
		49.8	*50.2*		*49.4*	*50.6*		*49.5*	*50.5*		*49.1*	*50.9*
군산	31,080	16,612	14,468	33,020	17,519	15,501	33,341	17,443	15,898	33,802	17,566	16,236
		53.4	*46.6*		*53.1*	*46.9*		*52.3*	*47.7*		*52.0*	*48.0*
익산	35,959	17,894	18,065	36,474	18,017	18,457	37,674	18,692	18,982	38,371	19,122	19,249
		49.8	*50.2*		*49.4*	*50.6*		*49.6*	*50.4*		*49.8*	*50.2*
정읍	13,962	5,634	8,328	14,279	5,809	8,470	14,614	6,058	8,556	14,964	6,348	8,616
		40.4	*59.6*		*40.7*	*59.3*		*41.5*	*58.5*		*42.4*	*57.6*
남원	10,378	4,156	6,222	10,591	4,270	6,321	10,855	4,441	6,414	10,825	4,394	6,431
		40.0	*60.0*		*40.3*	*59.7*		*40.9*	*59.1*		*40.6*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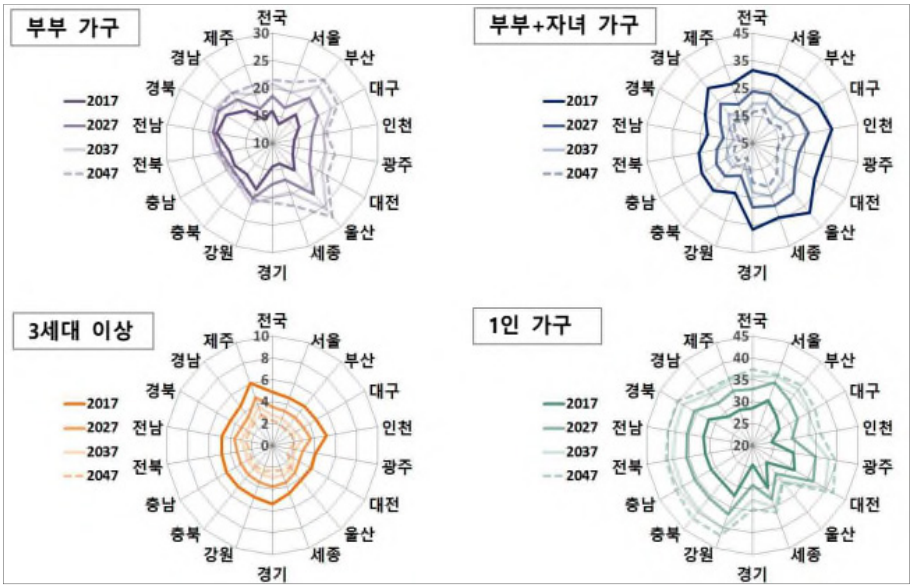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김제	10,795	4,016	6,779	11,008	4,181	6,827	11,138	4,263	6,875	11,360	4,405	6,955
		37.2	*62.8*		*38.0*	*62.0*		*38.3*	*61.7*		*38.8*	*61.2*
완주	10,671	5,412	5,259	12,182	6,243	5,939	12,230	6,302	5,928	12,263	6,325	5,938
		50.7	*49.3*		*51.2*	*48.8*		*51.5*	*48.5*		*51.6*	*48.4*
진안	3,175	1,225	1,950	3,398	1,418	1,980	3,594	1,544	2,050	3,639	1,573	2,066
		38.6	*61.4*		*41.7*	*58.3*		*43.0*	*57.0*		*43.2*	*56.8*
무주	3,197	1,236	1,961	3,320	1,332	1,988	3,460	1,418	2,042	3,570	1,453	2,117
		38.7	*61.3*		*40.1*	*59.9*		*41.0*	*59.0*		*40.7*	*59.3*
장수	2,866	1,076	1,790	2,941	1,099	1,842	2,953	1,138	1,815	3,091	1,233	1,858
		37.5	*62.5*		*37.4*	*62.6*		*38.5*	*61.5*		*39.9*	*60.1*
임실	3,708	1,394	2,314	4,187	1,713	2,474	4,364	1,812	2,552	4,451	1,885	2,566
		37.6	*62.4*		*40.9*	*59.1*		*41.5*	*58.5*		*42.4*	*57.6*
순창	3,826	1,291	2,535	3,807	1,315	2,492	3,811	1,364	2,447	3,813	1,399	2,414
		33.7	*66.3*		*34.5*	*65.5*		*35.8*	*64.2*		*36.7*	*63.3*
고창	7,773	2,797	4,976	7,931	2,888	5,043	8,181	3,062	5,119	8,249	3,103	5,146
		36.0	*64.0*		*36.4*	*63.6*		*37.4*	*62.6*		*37.6*	*62.4*
부안	7,388	2,851	4,537	7,548	2,935	4,613	7,647	3,073	4,574	7,627	3,093	4,534
		38.6	*61.4*		*38.9*	*61.1*		*40.2*	*59.8*		*40.6*	*59.4*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3.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47년에는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된 가구 유형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7년에는 울산, 경기 등 10개 시도는 '부부+자녀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반면에 전북을 포함한 7개 시도는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7〉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 추이(2017-2047)

전국과 전라북도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17~2047)를 보면 전북은 1인가구 비율이 2017년 31.2%, 2019년 32.5%, 2027년 35.7%, 2037년 38.9%, 2047년 4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4인가구는 2017년 17.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7년에는 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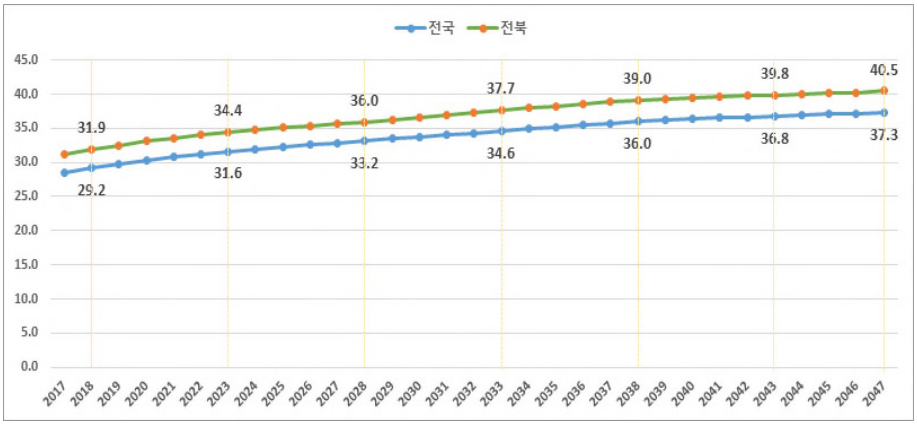
한편, 전북의 1인가구 구성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12〉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17-2047)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17		2019		2027		2037		2047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1인	5,583	227	5,987	238	7,114	268	8,076	293	8,320	295
	28.5	31.2	29.8	32.5	32.9	35.7	35.7	38.9	37.3	40.5
2인	5,218	214	5,537	221	6,695	245	7,550	259	7,801	256
	26.7	29.4	27.5	30.1	30.9	32.7	33.4	34.3	35.0	35.1
3인	4,161	136	4,249	137	4,471	138	4,462	132	4,313	126
	21.3	18.7	21.1	18.6	20.7	18.4	19.7	17.5	19.3	17.3
4인	3,469	105	3,302	98	2,660	75	2,040	54	1,566	42
	17.7	14.5	16.4	13.4	12.3	10.0	9.0	7.2	7.0	5.7
5인 이상	1,140	45	1,041	40	709	25	471	15	303	10
	5.8	6.2	5.2	5.4	3.3	3.3	2.1	2.0	1.4	1.4

출처: 통계청(2019).「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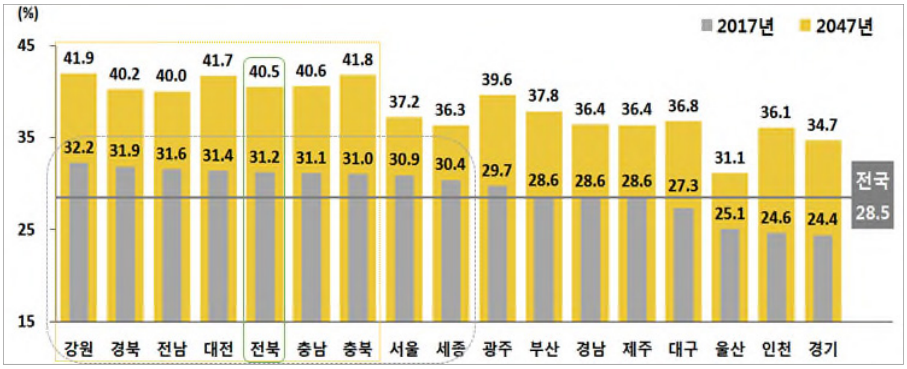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9).「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보도자료.

〈그림 3-18〉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비율 변화 추이(2017~2047)

한편,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강원(32.2%), 경북(31.9%), 전남(31.6%), 대전(31.4%), 전북(31.2%) 순으로 높았고, 경기(24.4%), 인천(24.6%), 울산(25.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045년의 1인가구 비중은 강원(41.9%), 충북(41.8%), 대전(41.7%), 충남(40.6%), 전북(40.5%) 순으로 높고, 울산(31.1%), 경기(34.7%), 인천(36.1%) 순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라북도는 2017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1.2%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고, 향후 2047년에는 40.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30년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은 증가하며, 강원,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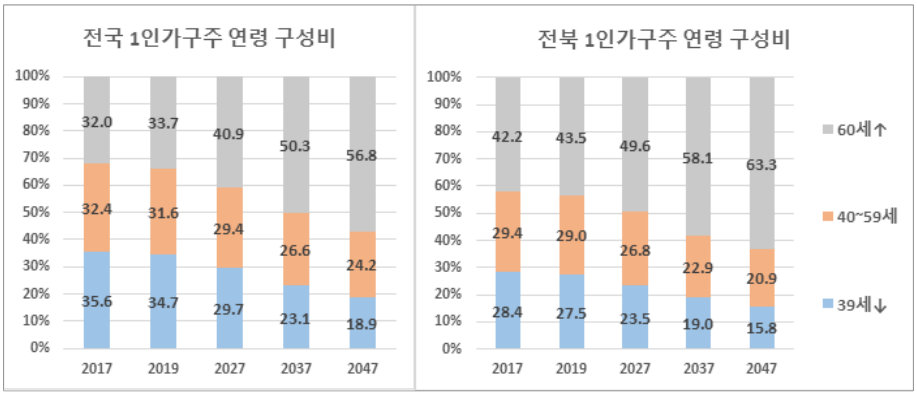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3-19〉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7 vs 2047)

2017년 전국 1인가구주 중 39세 이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40~59세 32.4%, 60세 이상 32.0% 순으로 높았으나,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6.8%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1인가구주의 경우 2017년부터 60세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47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인가구주 중 60세 이상 비중은 전남(50.2%)·전북(42.2%)·경북(41.9%) 순으로 높고, 2047년에는 전남·강원·경북·경북·전북 등 7개 시·도는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3-20〉 전국 및 전북 1인가구주 연령 구성비 변화 추이(2017-2047)

4장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와 삶의 질

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1인가구 경험

제4장.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와 삶의 질

본 연구는 전북지역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분석을 통해 도시 1인가구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질문항목을 설문조사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에 농촌 여성 1인가구 응답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객관적인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방법

(조사대상) 전라북도 도시 여성 1인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진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당지역의 1인가구 분포의 특성상 지역별*연령별로 1인가구가 과소 또는 과대 편중 표집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연령별로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하였다.

구분			연령범주			전체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조사지역	전주	빈도	33	38	28	99
		조사지역 중 %	33.3%	38.4%	28.3%	100.0%
	익산	빈도	17	17	17	51
		조사지역 중 %	33.3%	33.3%	33.3%	100.0%
	군산	빈도	17	17	17	51
		조사지역 중 %	33.3%	33.3%	33.3%	100.0%
전체		빈도	67	72	62	201
		조사지역 중 %	33.3%	35.8%	30.8%	100.0%

(조사기간) 조사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방식)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응답이 원활한 20~40대 응답자는 직접 기록하게 하여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50~60대 응답자는 조사원이 1:1로 직접 문항을 읽어준 후 기록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의 내용은 이수인 외(2020)의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기 위해 해당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크게 실태조사와 삶의 질 조사로 구분된다. 1인가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노경혜 외, 2018; 박은미, 2018; 이중섭, 2012; 홍승아 외 2017)을 토대로 실태조사 영역과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주요 내용
일반적 특성과 1인가구 형성원인	지역, 성별, 연령, 빈곤여부, 자녀수, 1인가구 형성원인(사별, 이혼, 비혼, 자녀독립 등), 독거이유, 결혼유무, 결혼의향, 1인가구 지속에 대한 입장, 1달 적정 생활비, 1달 적정 용돈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병원이나 치료, 1달 평균 병원비, 병원방문 횟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병원 접근성, 한의원 접근성, 일상생활 도우미 여부, 가족인지 아닌지, 도움받는 시간, 우울, 불안, 자살생각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자녀수, 자녀와 만남 빈도, 도움 청할수 있는 사람 수, 하루 접촉 인원, 동네친구 수, 가까이 지내는 친척 수, 자녀로부터의 지원(금전, 병간호, 가사지원, 고민 상담 등), 가족과의 일체감 및 거리감, 가족과의 분리감, 지역사회 소속감, 참여하는 마을 활동 여부,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빈곤, 외로움, 식사, 주위시선, 필요시 도움 요청 가능 여부)
경제활동	소득, 소득원, 자산정도, 경제활동 유무와 종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하고 싶은 최대 연령, 원하는 급여, 가계관련 고민
여가 및 사회활동	TV시청, 신문구독, 인터넷 이용, 영화, 스포츠, 여행, 경로당 이용여부, 안한다면 그 이유, 사회복지관 이용 여부, 안한다면 그 이유 등, 참여하는 종교생활 종류와 빈도, 친목단체 참여 정도,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시간
생활 및 주거환경	현재 주거 유형, 거주기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함, 거주 지속 여부, 그 이유, 지역내 통근 가능 여부, 거주지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편리성 정도, 목욕장소와 횟수, 혼자서 목욕가능한지 여부와 못할시 도우미 있는지, 건강이 나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거주형태

한편, 주관적인 삶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시각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Efklides, Kalaitzidou, & Chankin, 2003)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기초적인 생활조건을 포함하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Havighurst, 1968),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한다(Siahpush, Spittal, & Singh, 2008).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지표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고, 이에 따르면 건강, 가족의 소득, 거주지,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만족정도를 측정하였다(5점 리커트 척도).

항목	주요 내용(각각에 대한 주관적 평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통증이나 불편감, 힘이나 기운, 수면, 기억력 및 집중력, 행복감, 외모 느낌, 개인적 신앙이나 종교생활, 전반적인 건강상태 인식, 전반적인 생활만족
사회적 관계	일할 수 있는 능력,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 및 도움, 신체적 안전
환경적 영역	주거환경, 재정상태,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질,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나 소식, 여가나 취미활동, 교통수단

나. 분석결과

1) 여성 1인가구의 형성

[1인가구 생활기간]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평균 8.16년(중위값: 5.56년, 최빈값 4년)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의 평균 생활기간(5.75년)보다 1인가구 생활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4-1〉 여성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단위: 명, 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값
농촌	241	1	37	5.75	3.75
도시	201	1	50	8.16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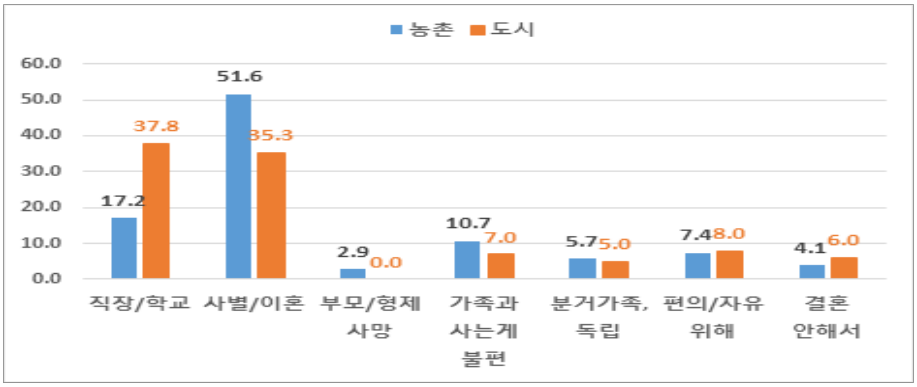
[1인가구 형성이유]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혼자 생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학교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별/이혼(35.3%), 편의/자유(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사별/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 형성이 51.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 여성 1인가구 형성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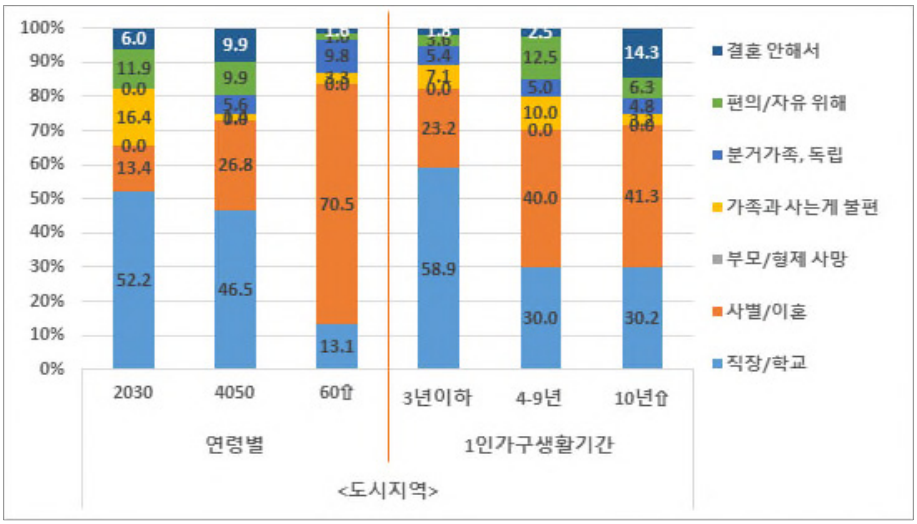
			직장/학교	이혼/사별	부모/형제 사망	가족과 사는게 불편	분거 가족, 독립	편의/자유 위해	결혼 안해서	x^2
농촌			17.2	51.6	2.9	10.7	5.7	7.4	4.1	*32.66***
도시			37.8	35.3	0.0	7.0	5.0	8.0	6.0	
	연령	2030	52.2	13.4	0.0	16.4	0.0	11.9	6.0	*n.s*
		4050	46.5	26.8	0.0	1.4	5.6	9.9	9.9	
		60⇧	13.1	70.5	0.0	3.3	9.8	1.6	1.6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58.9	23.2	0.0	7.1	5.4	3.6	1.8	*n.s*
		4-9년	30.0	40.0	0.0	10.0	5.0	12.5	2.5	
		10년⇧	30.2	41.3	0.0	3.2	4.8	6.3	14.3	

*p〈.05, **p〈.01, ***p〈.001



〈그림 4-1〉 1인가구 형성이유(도시vs농촌)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직장/학교(52.2%), 가족과 사는게 불편(16.4%), 편의/자유(11.9%) 사유가 두드러졌고, 4050대는 직장/학교(46.5%), 이혼/사별(26.8%) 등의 사유가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이혼/사별 사유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3년이하 그룹에서는 직장/학교(58.9%), 4-9년 그룹에서는 가족과 사는게 불편(10.0%), 편의/자유를 위해(12.5%), 10년이상 그룹에서는 이혼/사별(41.3%), 결혼을 안해서(14.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형성이유

[1인가구 생활 만족도]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49점으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의 경우 평균 3.17점인 것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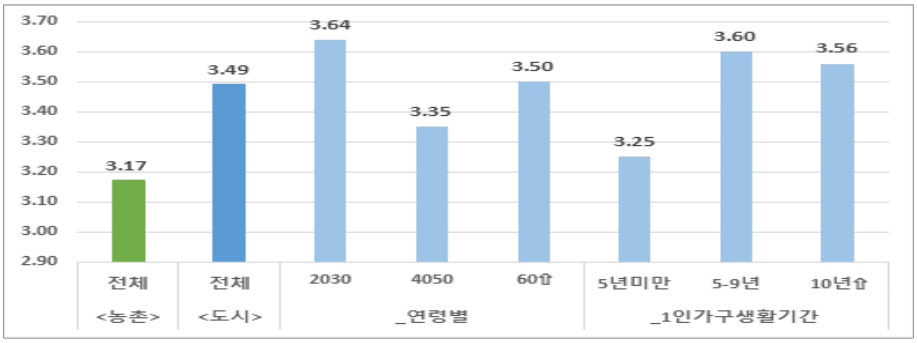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2030대(3.64점), 60대이상(3.50점), 4050대(3.3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4-9년차 그룹에서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 3.56점, 3년이하 3.25점 순이었다. 1인가구 생활기간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활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여성 1인가구 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t/F*
농촌			4.9	24.9	27.8	33.1	9.4	3.17	*-3.23****
도시			3.0	13.4	32.3	33.8	17.4	3.49	
	연령	2030	1.5	7.5	34.3	38.8	17.9	3.64	*1.44*
		4050	1.4	19.4	37.5	26.4	15.3	3.35	
		60⇧	6.5	12.9	24.2	37.1	19.4	3.5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7.1	8.9	44.6	30.4	8.9	3.25	*2.23*
		4-9년	0.0	16.0	25.9	39.5	18.5	3.60	
		10년⇧	3.1	14.1	29.7	29.7	23.4	3.56	

*p〈.05, **p〈.01, ***p〈.001



〈그림 4-3〉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 주요 관심사]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건강'이 7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생활(47.0점), 취·창업(46.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취·창업, 건강, 직장생활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심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취·창업 및 직장생활, 4050대는 건강 및 직장생활, 60대이상은 건강 및 인간관계가 주된 관심사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 여가생활의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젊은세대일수록 직장생활과 취·창업의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이하에서는 취·창업,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4-4〉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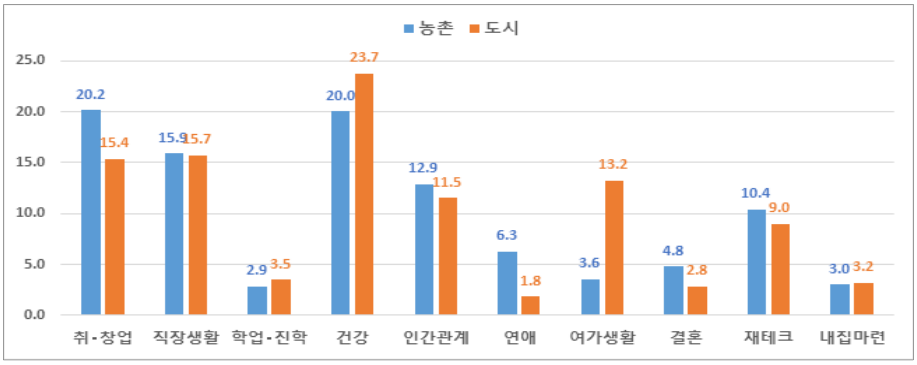
(단위: 점)

			취·창업	직장생활	학업·진학	건강	인간관계	연애	여가생활	결혼	재테크	내집마련
농촌			73.5	58.0	10.5	73.0	47.0	23.0	13.0	17.5	38.0	11.0
도시			46.0	47.0	10.5	71.0	34.5	5.5	39.5	8.5	27.0	9.5
	연령	2030	21.0	19.5	4.5	10.5	10.5	4.0	9.5	6.0	8.0	5.5
		4050	16.0	19.0	5.0	25.0	7.0	1.5	14.5	2.0	14.5	3.5
		60⇧	9.0	8.5	1.0	35.5	17.0	0.0	15.5	0.5	4.5	0.5
	1인가구 생활기간	3년⇩	19.5	14.0	6.0	15.0	12.0	3.5	7.5	1.0	3.5	2.0
		4-9년	17.0	20.0	2.0	25.5	14.5	1.5	18.0	4.5	13.0	4.5
		10년⇧	9.5	13.0	2.5	30.5	8.0	0.5	14.0	3.0	10.5	3.0

※ 종합=[(1순위)*2+(2순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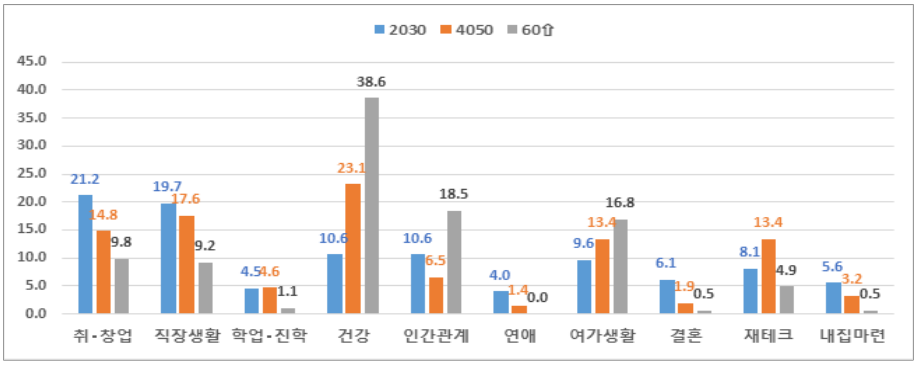
〈표 4-5〉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	4-9년	10년⇧
1위	취·창업	건강	취·창업	건강	건강	취·창업	건강	건강
2위	건강	직장생활	직장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건강	직장생활	여가생활
3위	직장생활	취·창업	건강	취·창업	여가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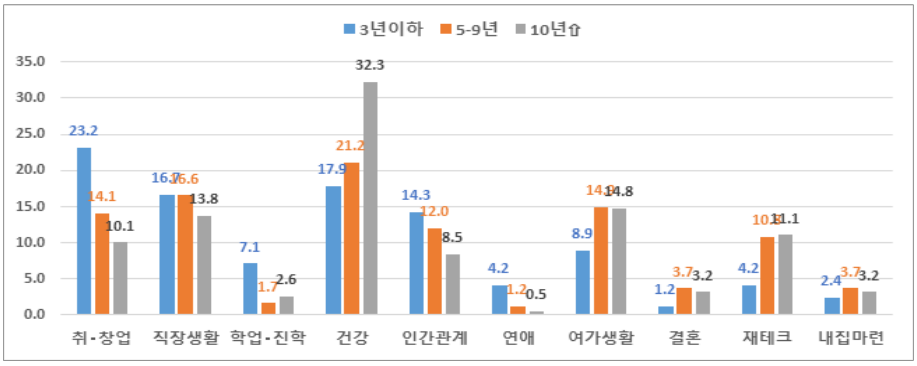
※ 100% 기준 비율

〈그림 4-4〉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도시vs농촌)



※ 100% 기준 비율

〈그림 4-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_(연령대별)



※ 100% 기준 비율

〈그림 4-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현재 관심사_(1인가구생활기간별)

[1인가구 생활의 장점]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활용, 직장(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1위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으로는 2030은 직장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지만, 40대이상부터는 여가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가시간 활용, 직장에 몰입 순으로 동일하였다.

〈표 4-6〉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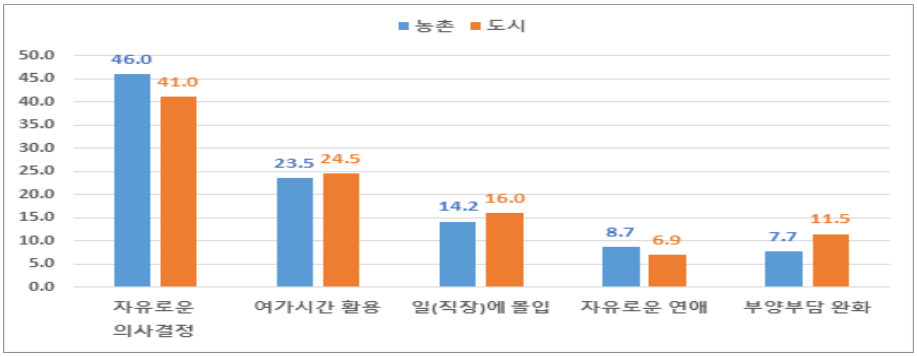
(단위: 점)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가시간 활용	일(직장)에 몰입	자유로운 연애	부양부담 완화
농촌			162.0	83.0	50.0	30.5	27.0
도시			121.5	72.5	47.5	20.5	34.0
	연령	2030	41.0	18.0	19.5	8.0	11.5
		4050	36.5	29.0	19.0	9.0	14.5
		60⇧	44.0	25.5	9.0	3.5	8.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37.5	19.5	14.5	5.5	7.0
		4-9년	50.5	26.5	17.0	8.5	16.5
		10년⇧	33.5	26.5	16.0	6.5	10.5

※ 종합=[(1순위)*2+(2순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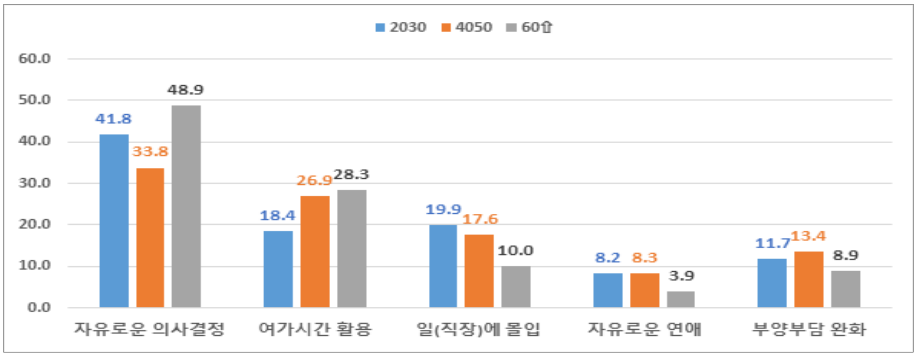
〈표 4-7〉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	4-9년	10년⇧
1위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2위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직장에 몰입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3위	직장에 몰입	직장에 몰입	여가시간 활용	직장에 몰입	직장에 몰입	직장에 몰입	직장에 몰입	직장에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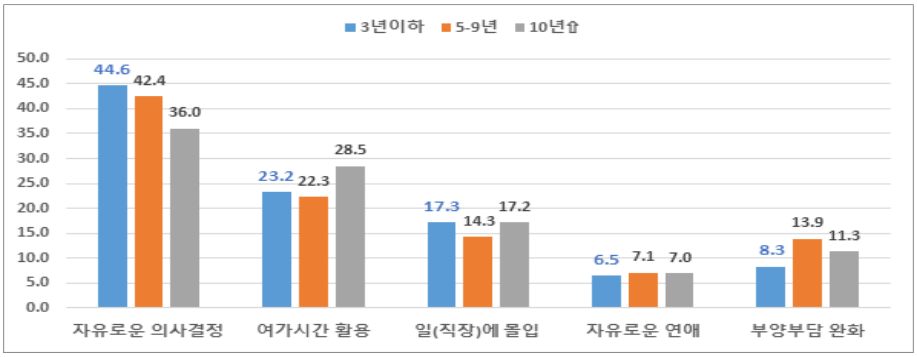
※ 100% 기준 비율

〈그림 4-7〉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도시vs농촌)



※ 100% 기준 비율

〈그림 4-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연령대별)



※ 100% 기준 비율

〈그림 4-9〉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1인가구생활기간별)

[1인가구 생활의 단점]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경제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위로는 농촌지역은 외로움, 도시지역은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꼽았다.

- 연령별로는 2030과 60대이상 그룹에서는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4050대는 경제불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대는 3위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층과는 차이를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이하 그룹과 10년이상 그룹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4-9년차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생활 초기에는 경제불안이 가장 높다가 4-9년차에는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10년이상이 되면 다시 경제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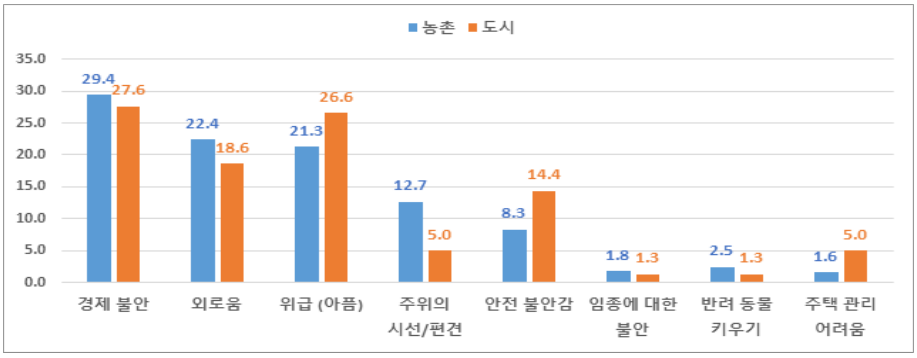
(단위: 점)

			경제 불안	외로움	위급 (아픔)	주위의 시선/ 편견	안전 불안감	임종에 대한 불안	반려 동물 키우기	주택 관리 어려움
농촌			107.5	82.0	78.0	46.5	30.5	6.5	9.0	6.0
도시			82.5	55.5	79.5	15.0	43.0	4.0	4.0	15.0
	연령	2030	24.0	14.0	26.0	3.5	23.5	0.5	2.0	4.5
		4050	33.5	21.0	24.5	9.0	14.0	0.5	1.5	3.5
		60⇧	25.0	20.5	29.0	2.5	5.5	3.0	0.5	7.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25.0	16.5	18.5	4.5	15.5	1.0	0.5	2.5
		4-9년	28.0	23.0	33.5	6.0	17.5	2.0	3.0	6.0
		10년⇧	29.5	16.0	27.5	4.5	10.0	1.0	0.5	6.5

※ 종합=[(1순위)*2+(2순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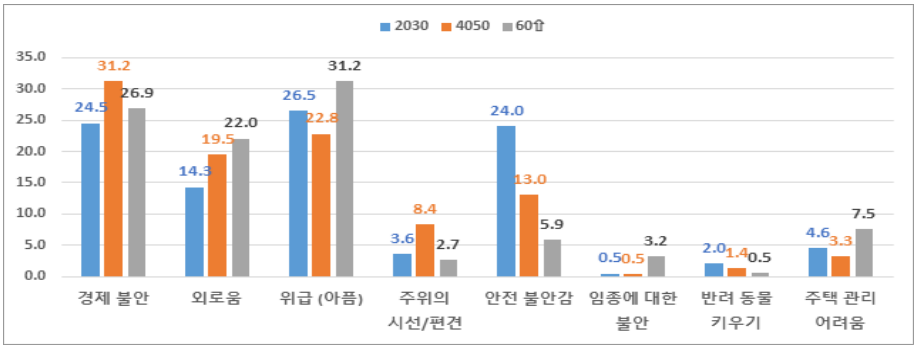
〈표 4-9〉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	4-9년	10년⇧
1위	경제불안	경제불안	위급 (아픔)	경제불안	위급 (아픔)	경제불안	위급 (아픔)	경제불안
2위	외로움	위급(아픔)	경제불안	위급 (아픔)	경제불안	위급 (아픔)	경제불안	위급 (아픔)
3위	위급(아픔)	외로움	안전불안감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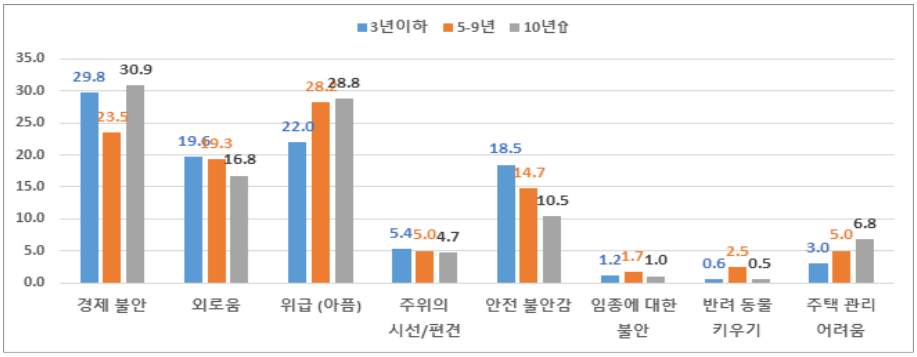
※ 100% 기준 비율

〈그림 4-10〉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도시vs농촌)



※ 100% 기준 비율

〈그림 4-1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_(연령대별)



※ 100% 기준 비율

〈그림 4-12〉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의 단점_(1인가구생활기간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향후 조건이 된다면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지금처럼 계속 혼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시지역의 경우 원가족과 함께, 친한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주거공동체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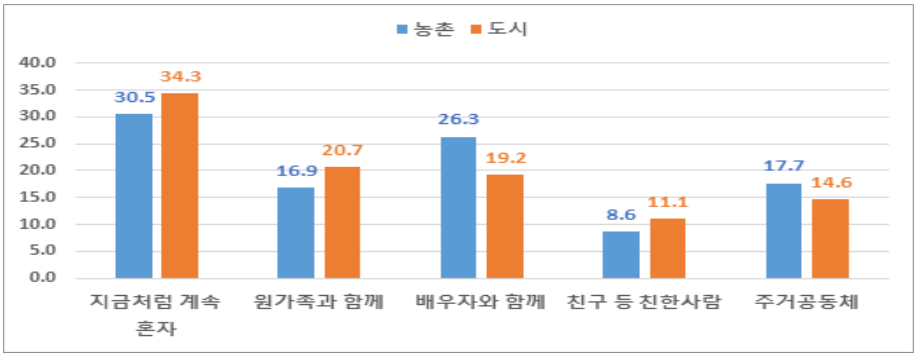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지금처럼 계속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원가족과 함께, 친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응답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하길 희망하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이하 그룹에서는 원가족과 함께 하길 가장 희망하였고, 5년차 이상부터는 지금처럼 계속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를 희망하는 응답은 초기부터 9년차 까지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10년차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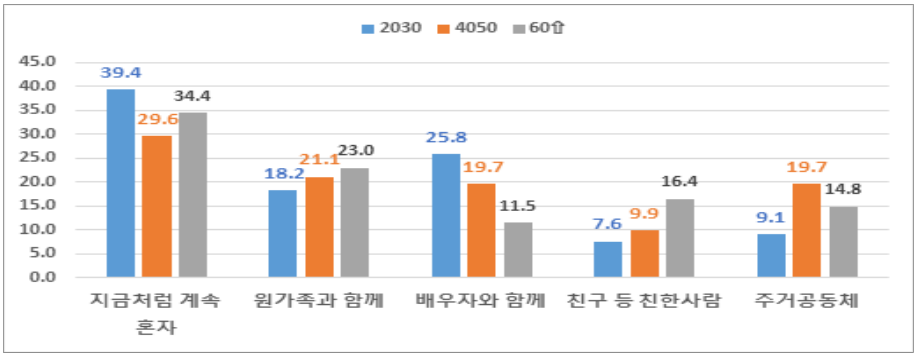
(단위: %)

			지금처럼 계속 혼자	원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친구 등 친한사람	주거공동체	χ^2
농촌			30.5	16.9	26.3	8.6	17.7	*5.09*
도시			34.3	20.7	19.2	11.1	14.6	
	연령	2030	39.4	18.2	25.8	7.6	9.1	*9.72*
		4050	29.6	21.1	19.7	9.9	19.7	
		60⇧	34.4	23.0	11.5	16.4	14.8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26.8	32.1	19.6	7.1	14.3	*8.32*
		4-9년	36.7	16.5	20.3	13.9	12.7	
		10년⇧	38.1	15.9	17.5	11.1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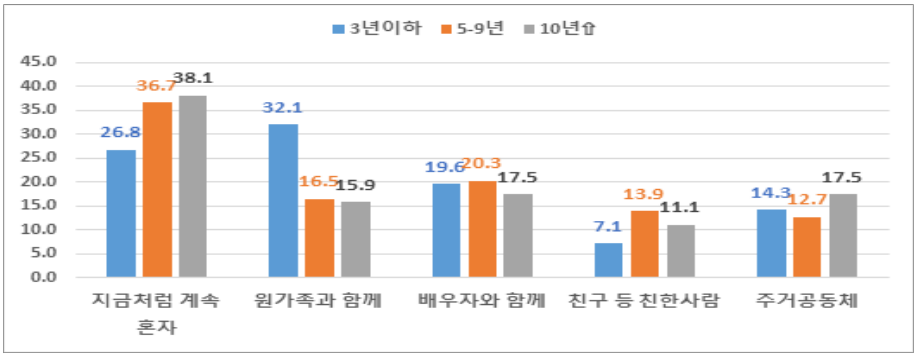
*p〈.05, **p〈.01, ***p〈.001



〈그림 4-13〉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도시vs농촌)



〈그림 4-14〉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_(연령대별)



〈그림 4-15〉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_(1인가구생활기간별)

2) 여성 1인가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

[병원방문 빈도] 질병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얼마나 병원에 방문했는지 살펴본 결과, 농촌 1인가구에 비해 도시 1인가구의 병원방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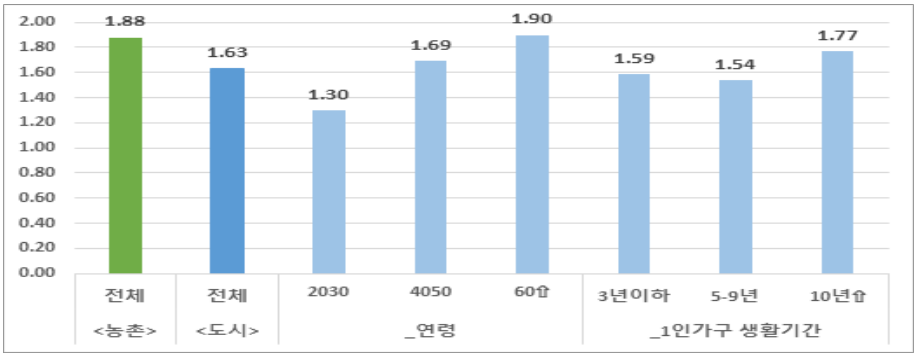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원방문 빈도가 증가하였고, 2030대의 경우 평균 이하로 낮아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10년차 이상 가구에서 병원방문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1〉 병원방문 빈도

(단위: %, 점)

			안간다	월 1-2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평균	*t/F*
농촌			42.4	33.5	18.8	4.1	1.2	1.88	*3.34****
도시			47.3	43.8	8.0	1.0	0.0	1.63	
	연령	2030	73.1	23.9	3.0	0.0	0.0	1.30a	*15.45****
		4050	45.8	40.3	12.5	1.4	0.0	1.69b	
		60⇧	21.0	69.4	8.1	1.6	0.0	1.90b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50.0	42.9	5.4	1.8	0.0	1.59	*2.09*
		4-9년	53.1	39.5	7.4	0.0	0.0	1.54	
		10년⇧	37.5	50.0	10.9	1.6	0.0	1.77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방문 빈도가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16〉 병원방문 빈도

[구급약품 접근성] 야간 응급상황 시, 구급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지역 1인가구의 23.5%가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어려움 정도가 낮았다. 구하기 어렵다면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족(20.5%)을 통해 구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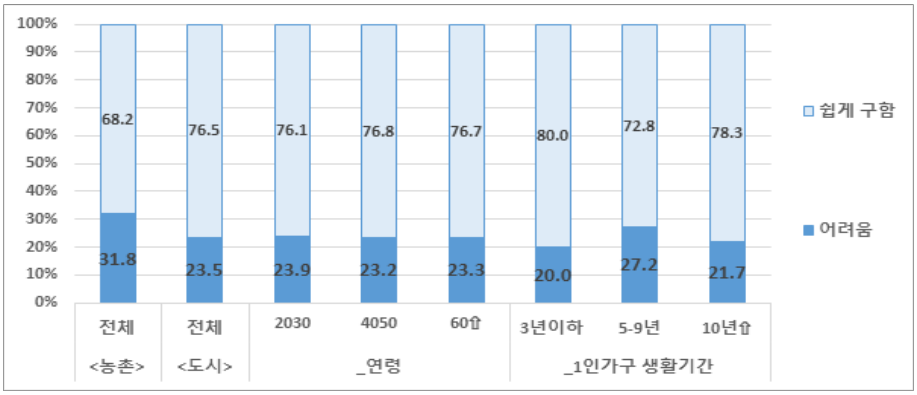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구급약품 접근성이 차이가 없었으며,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30은 친구(33.3%), 4050은 가족(18.8%)과 종교기관(18.8%), 60대이상은 가족(30.8%)을 통해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에 따라서도 구급약품 접근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9년차 그룹에서 어려움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12〉 구급약품 접근성

(단위: %)

		쉽게 구함	어려움	⇒ 어렵다면, 그럼 어디서 구하는지					χ^2
				가족	친구	이웃	종교기관	기타	
농촌		68.2	31.8	19.2	28.8	21.9	11.0	19.2	*3.77**
도시		76.5	23.5	20.5	15.9	15.9	6.8	40.9	
연령	2030	76.1	23.9	13.3	33.3	20.0	0.0	33.3	*.01*
	4050	76.8	23.2	18.8	6.3	12.5	18.8	43.8	
	60⇧	76.7	23.3	30.8	7.7	15.4	0.0	46.2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80.0	20.0	10.0	20.0	0.0	0.0	70.0	*1.09*
	4-9년	72.8	27.2	31.8	18.2	22.7	4.5	22.7	
	10년⇧	78.3	21.7	8.3	8.3	16.7	16.7	50.0	

*p〈.05, **p〈.01, ***p〈.001



〈그림 4-17〉 구급약품 접근성

[도구적 지지] 혼자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도시 1인가구의 81.5%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평균 2.1명). 그 대상은 가족(50.3%), 친구(36.2%), 이웃(6.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18.5%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에 비해서는 도구적지지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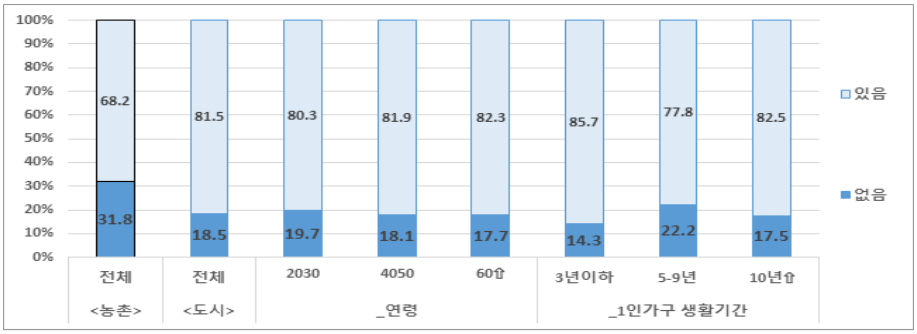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과 친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이상은 이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이하 그룹에서 도구적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4-9년차 그룹에서 가장 낮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3년이하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가 4-9년차 부터는 친구로 분산되며 다시 10년차부터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0년차 이상부터는 종교/동호회 기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도구적 지지 현황

(단위: %, (명))

			없음	있음	(명)	⇒ 있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χ^2
						가족	친구	이웃	정부 도우미	종교/ 동호회	
농촌			31.8	68.2	(2.1)	44.5	32.3	11.6	3.7	6.1	*10.22***
도시			18.5	81.5	(2.1)	50.3	36.2	6.7	0.6	4.9	
	연령	2030	19.7	80.3	(2.3)	56.6	41.5	1.9	0.0	0.0	*.10*
		4050	18.1	81.9	(1.9)	50.8	35.6	1.7	0.0	8.5	
		60⇧	17.7	82.3	(2.1)	43.1	31.4	17.6	2.0	5.9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	14.3	85.7	(2.2)	62.5	31.3	4.2	2.1	0.0	*1.45*
		4-9년	22.2	77.8	(1.8)	44.4	44.4	7.9	0.0	3.2	
		10년⇧	17.5	82.5	(2.4)	46.2	30.8	7.7	0.0	11.5	

*p〈.05, **p〈.01, ***p〈.001



〈그림 4-18〉 도구적 지지 현황

[자살생각·경험]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지난 6개월간 자살 관련한 생각과 경험을 살펴본 결과, 4개 항목 중 5점을 기준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음'이 평균 1.74점,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한 적 있음' 1.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1.67점으로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1.83점)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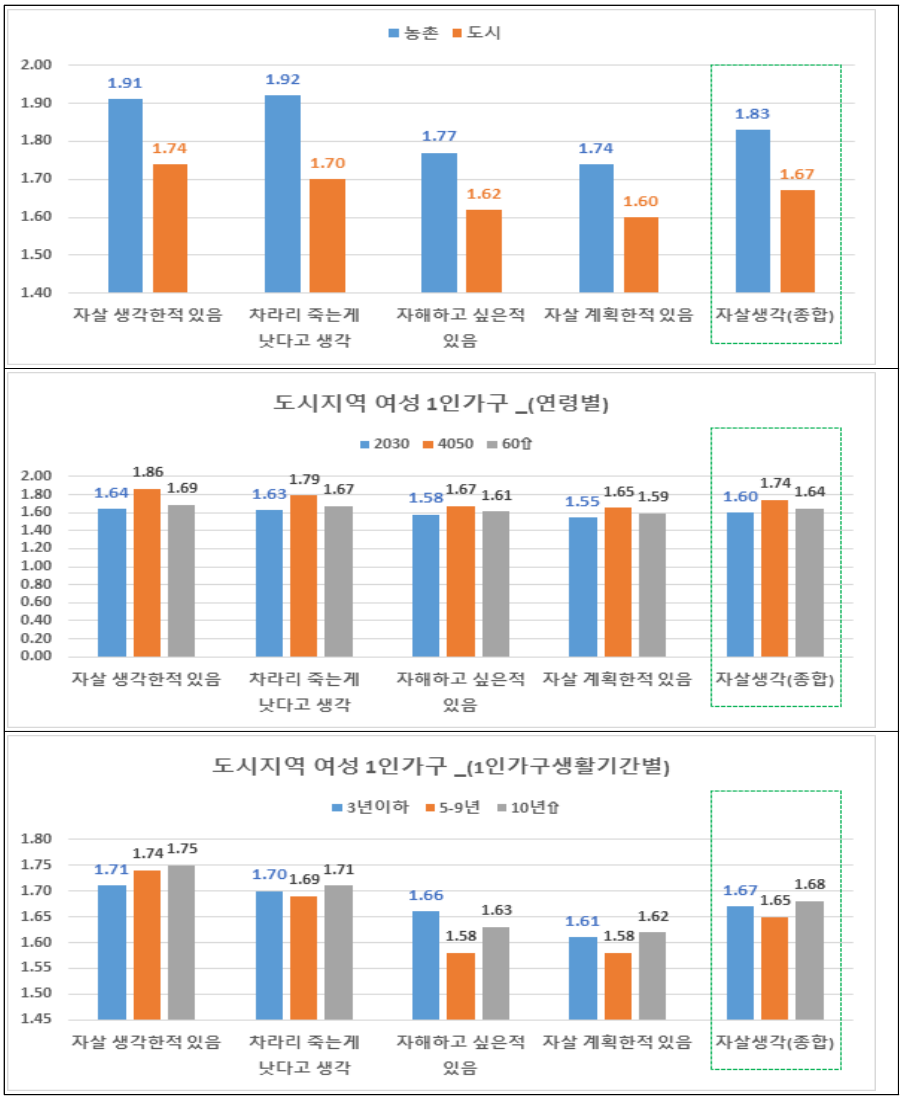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4050대의 자살생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0년차 이상에서 자살생각이 저연차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4〉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단위: 점/5점기준)

		자살 생각한 적이 있음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	자해하고 싶은적 있었음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음	자살생각 (종합)
전체	농촌	1.91	1.92	1.77	1.74	1.83
	도시	1.74	1.70	1.62	1.60	1.67
	t	*2.47***	*3.14***	*2.44***	*2.33**	*2.90***
도시	2030	1.64	1.63	1.58	1.55	1.60
	4050	1.86	1.79	1.67	1.65	1.74
	60⇧	1.69	1.67	1.61	1.59	1.64
	F	*2.41*	*1.29*	*.37*	*.61*	*1.26*
	3년⇩	1.71	1.70	1.66	1.61	1.67
	4-9년	1.74	1.69	1.58	1.58	1.65
	10년⇧	1.75	1.71	1.63	1.62	1.68
	F	*.05*	*.02*	*.33*	*.10*	*.07*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19〉 지난 6개월간 자살생각·경험

[심리상태]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지난 1개월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곤감(기력저하)'을 느꼈다는 응답이 2.72점으로 가장 높고, 식욕저하(2.57점), 수면조절실패(2.56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종합적인 심리상태는 2.47점으로 농촌지역 1인가구의 심리상태(2.57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5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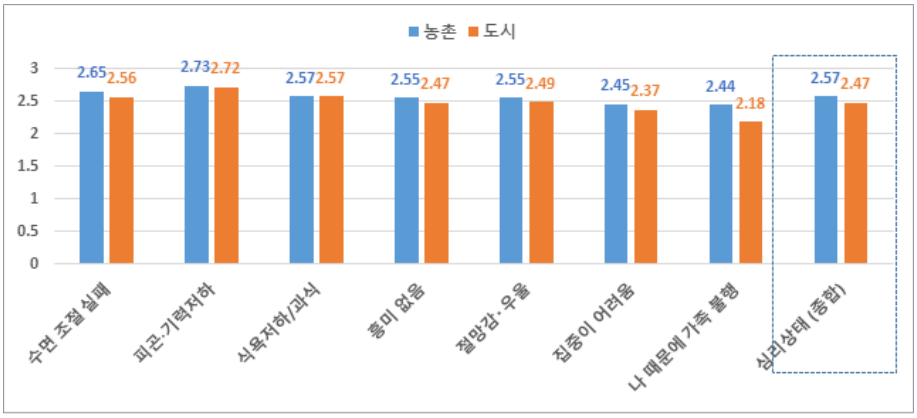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40대이상 그룹에서 수면조절실패, 일에 흥미 없음, 절망감/우울 항목이 2030보다 유의하게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4050대와 60대이상 그룹의 심리상태 종합점수는 평균을 상회하는 2.53점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수면조절실패 항목에서 3년차 이하 그룹이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10년차 이상 그룹의 심리상태가 가장 높았다.

〈표 4-15〉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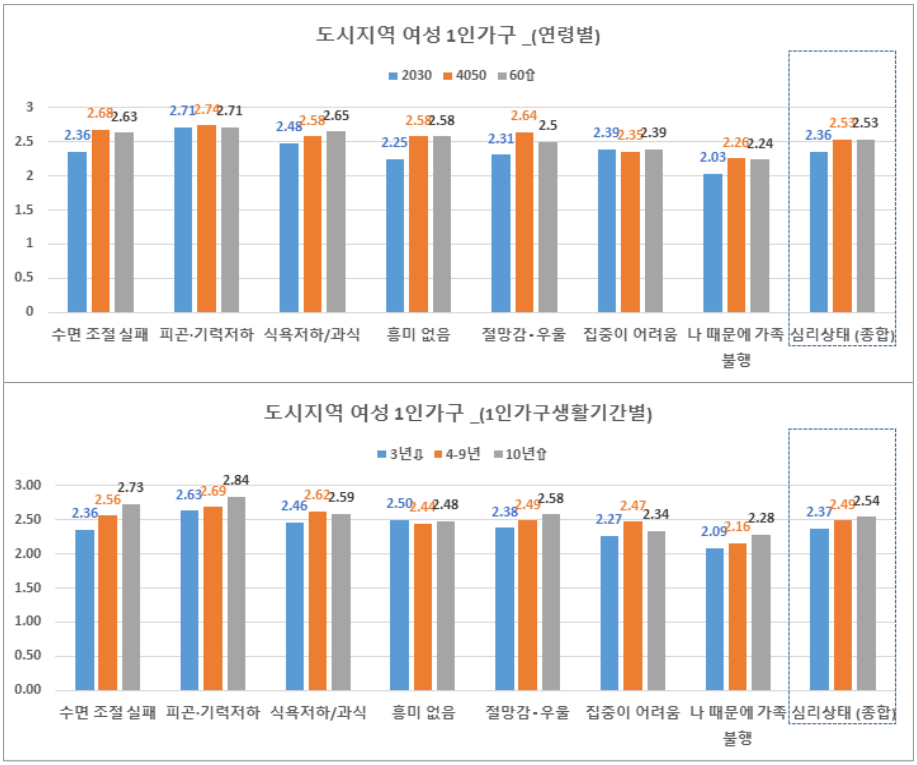
(단위: 점/5점기준)

		수면 조절 실패	피곤·기력저하	식욕 저하/과식	흥미 없음	절망감·우울	집중이 어려움	나 때문에 가족 불행	심리 상태 (종합)
전체	농촌	2.65	2.73	2.57	2.55	2.55	2.45	2.44	2.57
	도시	2.56	2.72	2.57	2.47	2.49	2.37	2.18	2.47
	t	*1.13*	*.12*	*.07*	*1.05*	*.80*	*1.00*	*3.29****	*1.47*
도시	2030	2.36a	2.71	2.48	2.25a	2.31a	2.39	2.03	2.36
	4050	2.68b	2.74	2.58	2.58b	2.64b	2.35	2.26	2.53
	60⇧	2.63b	2.71	2.65	2.58b	2.50ab	2.39	2.24	2.53
	F	*3.49**	*.03*	*.73*	*3.83**	*2.98**	*.06*	*1.84*	*1.89*
	3년⇩	2.36a	2.63	2.46	2.50	2.38	2.27	2.09	2.37
	4-9년	2.56ab	2.69	2.62	2.44	2.49	2.47	2.16	2.49
	10년⇧	2.73b	2.84	2.59	2.48	2.58	2.34	2.28	2.54
	F	*3.65**	*1.40*	*.62*	*.08*	*.98*	*1.14*	*.93*	*1.36*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20〉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_(도시vs농촌)



〈그림 4-2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

[삶의 질]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 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고, ‘가계수입’ 만족도가 3.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종합한 삶의 질 수준은 3.47점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한편, 모든 영역에서 농촌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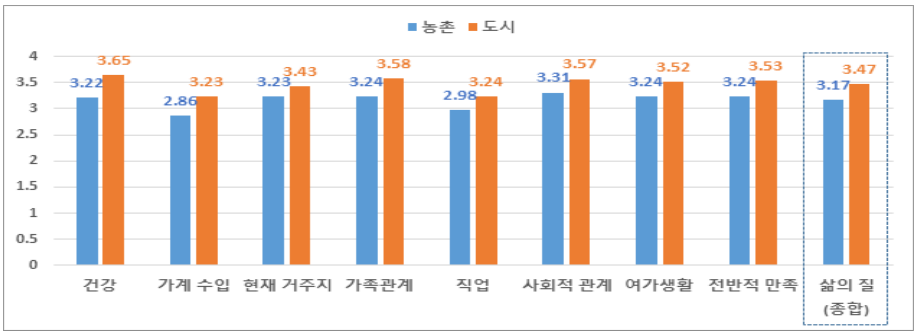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건강, 가계수입, 거주지,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 삶의 질(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건강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1인가구 생활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계수입과 거주지 만족도는 4050대에서 가장 낮았고, 여가생활 및 전반적 만족도는 60대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종합적으로 삶의 질 종합점수는 40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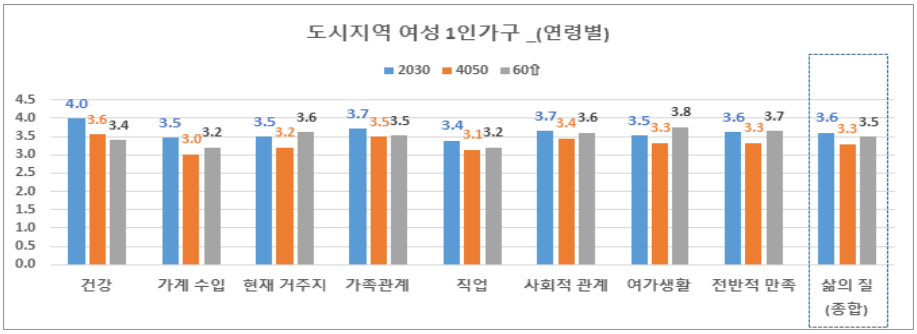
(단위: 점/5점기준)

		건강	가계 수입	현재 거주지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 생활	전반적 만족	삶의 질 (종합)
전체	농촌	3.22	2.86	3.23	3.24	2.98	3.31	3.24	3.24	3.17
	도시	3.65	3.23	3.43	3.58	3.24	3.57	3.52	3.53	3.47
	t	***	***	**	***	***	***	***	***	***
도시	2030	3.99b	3.48b	3.51b	3.72	3.39	3.66	3.52ab	3.63b	3.61b
	4050	3.56a	3.01a	3.20a	3.49	3.14	3.44	3.32a	3.33a	3.30a
	60⇧	3.40a	3.21ab	3.62b	3.53	3.21	3.61	3.76b	3.65b	3.50b
	F	*8.84****	*5.64***	*6.37***	*1.81*	*1.54*	*1.79*	*5.21***	*3.89**	*5.31***
	3년⇩	3.77b	3.30	3.36	3.66	3.23	3.54	3.43	3.55	3.48
	4-9년	3.77b	3.27	3.54	3.54	3.28	3.53	3.59	3.57	3.51
	10년⇧	3.41a	3.11	3.37	3.56	3.20	3.63	3.52	3.45	3.40
	F	*4.00**	*.97*	*1.38*	*.49*	*.16*	*.42*	*.70*	*.47*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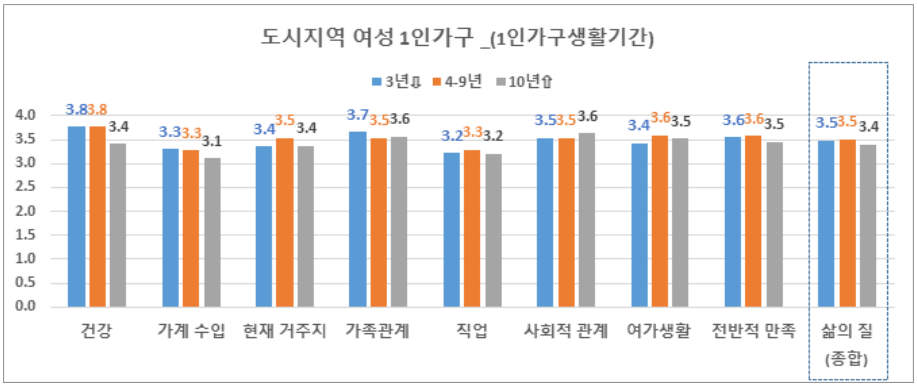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22〉 지난 1개월간 심리상태_(도시vs농촌)



〈그림 4-2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_(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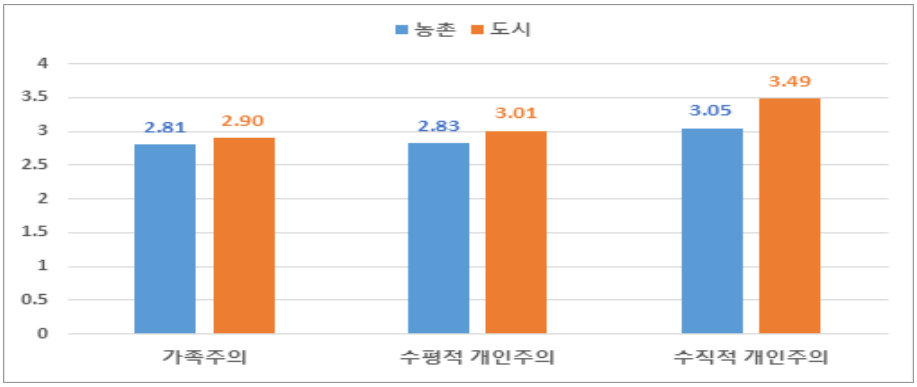


〈그림 4-2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_(1인가구생활기간)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 5점을 기준으로 가족주의,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모두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의 경우 도시지역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평적,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주의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1인가구 생활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견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5〉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_(도시vs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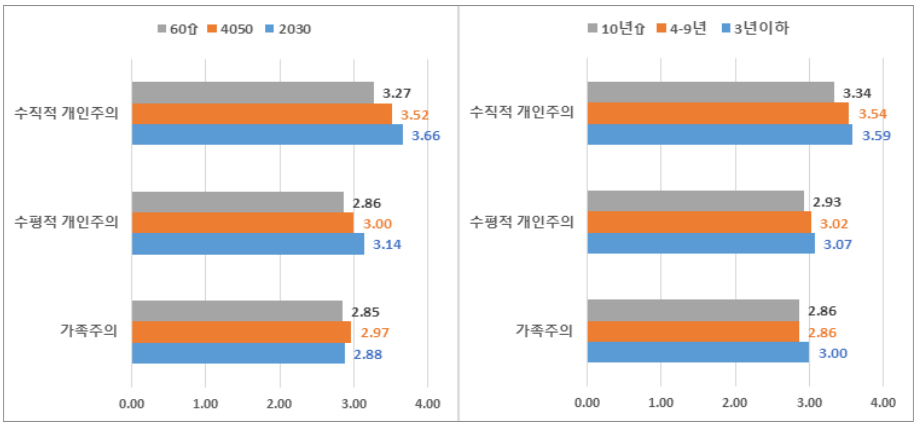
〈표 4-17〉 가족주의 및 개인가치에 대한 견해

(단위: 점/5점기준)

1) 가족은 희생이 요구되어도 단결해야 한다.
2)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3)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4) 의사결정 시, 가족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5)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도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6) 나는 타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7) 나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8)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 한다.
9)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다.
10) 타인이 더 좋은 성과를 얻으면, 나는 분발한다.

			가족주의(①~④)		수평적 개인주의(⑤~⑦)		수직적 개인주의(⑧~⑩)	
			M	*t/F*	M	*t/F*	M	*t/F*
농촌			2.81	*-1.37*	2.83	*-2.86***	3.05	*-6.24****
도시			2.90		3.01		3.49	
	연령	2030	2.88	*.57*	3.14b	*3.73**	3.66b	*5.42***
		4050	2.97		3.00ab		3.52b	
		60⇧	2.85		2.86a		3.27a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3.00	*.81*	3.07	*.88*	3.59	*2.19*
		4-9년	2.86		3.02		3.54	
		10년⇧	2.86		2.93		3.34	

*p〈.05, **p〈.01, ***p〈.001



〈그림 4-2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_(연령/생활기간별)

[고민상담]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 등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 도시지역의 경우 94.5%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된 고민상담 대상 역시 도농 간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선·후배나 친구라는 응답이 특히 높고, 농촌지역의 경우 부모나 이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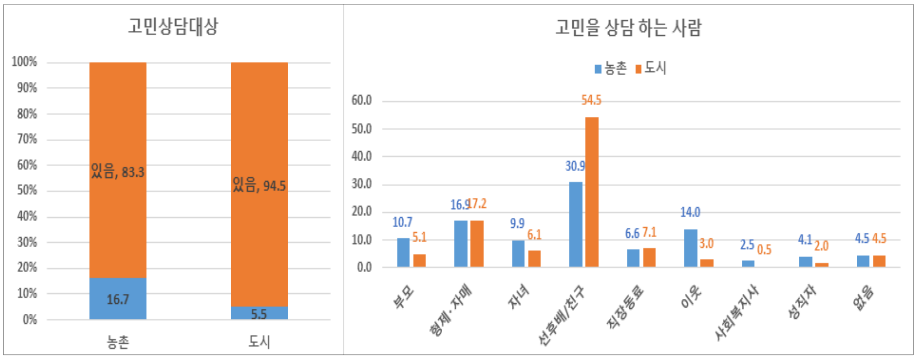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고민상담 대상에 있어서 2030은 부모와 친구에 집중되고, 4050은 형제·자매, 60대 이상은 자녀와 종교기관 등의 성직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짧을수록 형제·자매에 집중되고, 생활기간이 길수록 자녀 혹은 이웃에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18〉 고민상담 대상

(단위: %)

			없음	있음	χ^2	⇒ 있다면, 주된 고민상담 대상									
						부모	형제·자매	자녀	선후배/친구	직장동료	이웃	사회복지사	성직자	없음	χ^2
농촌			16.7	83.3	*13.60****	10.7	16.9	9.9	30.9	6.6	14.0	2.5	4.1	4.5	*39.61****
도시			5.5	94.5		5.1	17.2	6.1	54.5	7.1	3.0	0.5	2.0	4.5	
연령	2030		4.5	95.5	*.48*	12.5	12.5	0.0	65.6	7.8	0.0	0.0	0.0	1.6	*n.s*
	4050		6.9	93.1		1.4	25.0	6.9	44.4	11.1	1.4	1.4	1.4	6.9	
	60⇧		4.8	95.2		1.6	12.9	11.3	54.8	1.6	8.1	0.0	4.8	4.8	
1인가구 생활기간	3년이하		3.6	96.4	*.54*	7.3	27.3	1.8	50.9	7.3	0.0	0.0	1.8	3.6	*n.s*
	4-9년		6.2	93.8		5.1	13.9	5.1	60.8	6.3	1.3	1.3	1.3	5.1	
	10년⇧		6.3	93.8		3.1	12.5	10.9	50.0	7.8	7.8	0.0	3.1	4.7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27〉 고민상담 대상_(도시vs농촌)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직접만남」의 경우 대체적으로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직접만남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친구의 직접만남은 도농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화연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전화연락 정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부모와 친구 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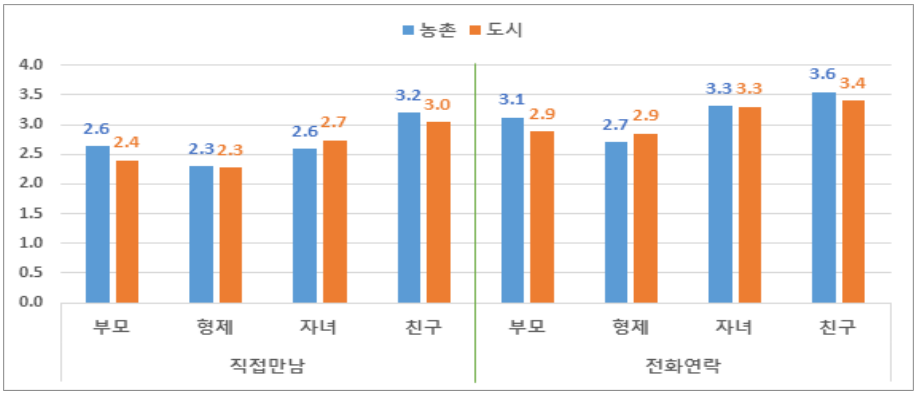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소통 수준이 높았고,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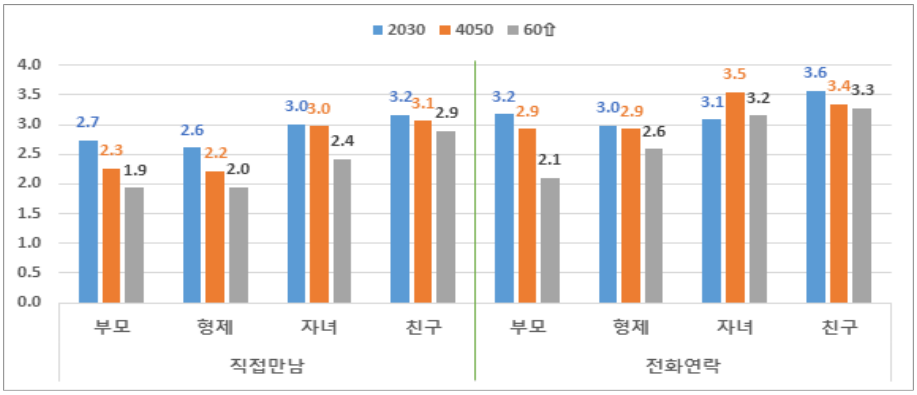
(단위: 점/4점기준)

		직접만남				전화연락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전체	농촌	2.64	2.30	2.60	3.20	3.12	2.70	3.31	3.55
	도시	2.40	2.27	2.74	3.04	2.88	2.85	3.30	3.40
	t	*2.55***	*.30*	*-1.32*	*1.96**	*2.28**	*-1.72*	*.12*	*1.93**
도시	2030	2.73b	2.61c	3.00c	3.16	3.17b	2.98b	3.08a	3.57
	4050	2.26a	2.21b	2.97b	3.06	2.93b	2.93b	3.54b	3.35
	60⇧	1.93a	1.95a	2.42a	2.89	2.10a	2.59a	3.15ab	3.28
	F	*10.46****	*11.90****	*6.79***	*1.61*	*12.40****	*3.81**	*3.69**	*2.02*
	3년이하	2.59	2.35	2.89	2.87	2.85	2.83	3.33	3.29
	4-9년	2.35	2.33	2.64	3.06	2.98	2.99	3.30	3.53
	10년⇧	2.27	2.13	2.75	3.16	2.77	2.69	3.28	3.34
	F	*1.63*	*1.43*	*.77*	*1.56*	*.59*	*2.06*	*.04*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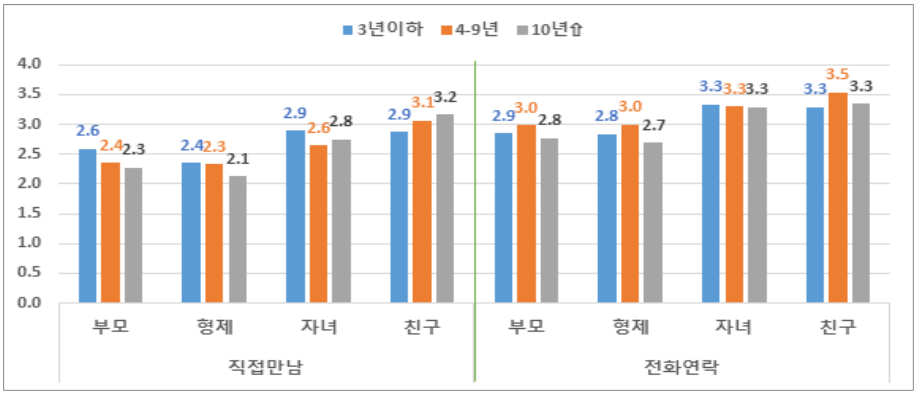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소통 정도가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28〉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도시vs농촌)



〈그림 4-29〉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연령별)



〈그림 4-30〉 가족/친구와의 소통 빈도_(1인가구생활기간)

[가족돌봄]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돌봄 수행여부를 살펴보면 가족돌봄을 한다는 응답은 도시지역 1인가구가 56.3%로 농촌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 돌보는 대상은 농촌지역의 경우 부모, 도시지역의 경우 손자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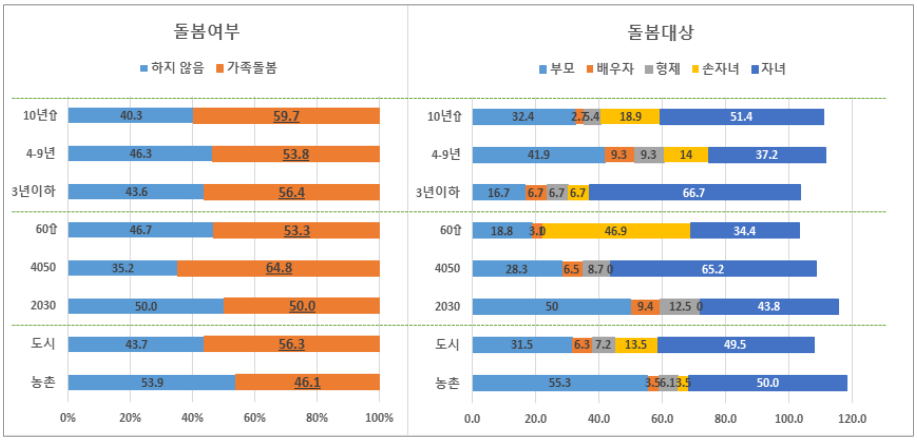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4050대의 가족돌봄이 가장 높았고, 돌봄대상은 자녀(65.2%) 및 부모(28.3%)가 많았다. 60대는 손자녀 돌봄이 상대적으로 많아 도시지역 60대이상 여성 1인가구의 황혼육아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4-20〉 가족돌봄(양육/간병/가사 등) 수행

(단위: %)

			하지 않음	가족돌봄	x^2	⇒ 가족돌봄을 한다면, 돌보는 대상 (다중응답)				
						부모	배우자	형제	손자녀	자녀
농촌			53.9	46.1	4.57*	55.3	3.5	6.1	3.5	50.0
도시			43.7	56.3		31.5	6.3	7.2	13.5	49.5
	연령	2030	50.0	50.0	3.36	50.0	9.4	12.5	0.0	43.8
		4050	35.2	64.8		28.3	6.5	8.7	0.0	65.2
		60⇧	46.7	53.3		18.8	3.1	0.0	46.9	34.4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43.6	56.4	.50	16.7	6.7	6.7	6.7	66.7
		4-9년	46.3	53.8		41.9	9.3	9.3	14.0	37.2
		10년⇧	40.3	59.7		32.4	2.7	5.4	18.9	51.4

*p〈.05, **p〈.01, ***p〈.001



〈그림 4-31〉 가족돌봄 수행

[이웃의 중요도] 이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도시지역 1인가구는 3.52점으로 이웃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농촌지역 3.2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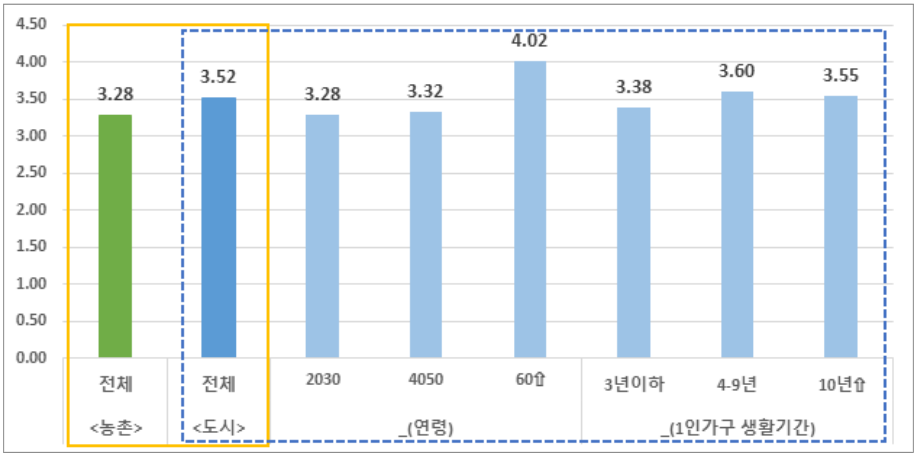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이 4.02점으로 가장 높고, 2030대가 3.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웃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웃의 중요도는 증가하다가 10년차부터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4-21〉 이웃의 중요도

(단위: %, 점/5점기준)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t/F
농촌			10.2	11.4	30.2	36.3	11.8	3.28	-2.49**
도시			2.0	8.5	38.8	36.8	13.9	3.52	
	연령	2030	3.0	13.4	43.3	32.8	7.5	3.28a	15.24***
		4050	2.8	8.3	50.0	31.9	6.9	3.32a	
		60⇧	0.0	3.2	21.0	46.8	29.0	4.02b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8	10.7	42.9	37.5	7.1	3.38	1.10
		4-9년	1.2	7.4	37.0	38.3	16.0	3.60	
		10년⇧	3.1	7.8	37.5	34.4	17.2	3.55	

*p〈.05, **p〈.01, ***p〈.001



〈그림 4-32〉 이웃의 중요도

[주민참여활동 빈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참여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평균 1.51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농촌지역 1인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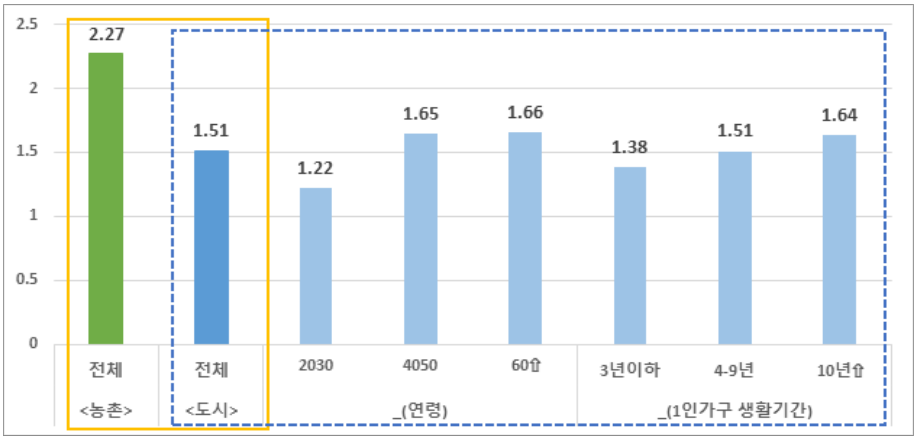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주민참여활동이 가장 낮았고, 4050대와 60대이상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활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생활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증가할수록 주민참여활동 참여 정도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주민참여활동 빈도

(단위: %, 점(5점기준))

			참여 안함	연 1~2회	연 3~6회	월 1회	주 1~2회↑	평균	t/F
농촌			50.2	13.1	7.3	18.0	11.4	2.27	6.33***
도시			74.1	12.9	2.5	8.5	2.0	1.51	
	연령	2030	88.1	6.0	3.0	1.5	1.5	1.22a	4.11**
		4050	72.2	9.7	0.0	16.7	1.4	1.65b	
		60⇧	61.3	24.2	4.8	6.5	3.2	1.66b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82.1	8.9	0.0	7.1	1.8	1.38	1.01
		4-9년	75.3	12.3	2.5	6.2	3.7	1.51	
		10년⇧	65.6	17.2	4.7	12.5	0.0	1.64	

*p〈.05, **p〈.01, ***p〈.001



〈그림 4-33〉 주민참여활동 빈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 거주하는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은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 농촌지역은 '친목도모'가 가장 많았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네트워크 구축, 4050대는 지역소속감과 경제적 이익, 60대 이상에서는 친목도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운동 일환으로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중복응답)

(단위: %)

			친목도모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 소속감	봉사활동	경제적 이익	지역사회 운동 일환	기타
농촌			41.9	29.9	21.8	15.4	19.2	10.3	3.0
도시			31.8	34.3	13.4	17.4	19.9	15.9	3.5
	연령	2030	25.4	46.3	4.5	7.5	17.9	13.4	9.0
		4050	33.3	26.4	22.2	15.3	25.0	15.3	1.4
		60⇧	37.1	30.6	12.9	30.6	16.1	19.4	0.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32.1	37.5	8.9	8.9	21.4	8.9	7.1
		4-9년	32.1	33.3	16.0	19.8	17.3	17.3	2.5
		10년⇧	31.3	32.8	14.1	21.9	21.9	20.3	1.6

〈표 4-24〉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	4-9년	10년⇧
1위	친목도모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친목도모	친목도모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2위	네트워크 구축	친목도모	친목도모	네트워크 구축	봉사활동	친목도모	친목도모	친목도모
3위	지역연대감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이익	봉사활동	경제적 이익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미참여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참여할 시간이 없음' 사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촌은 '귀찮은 일에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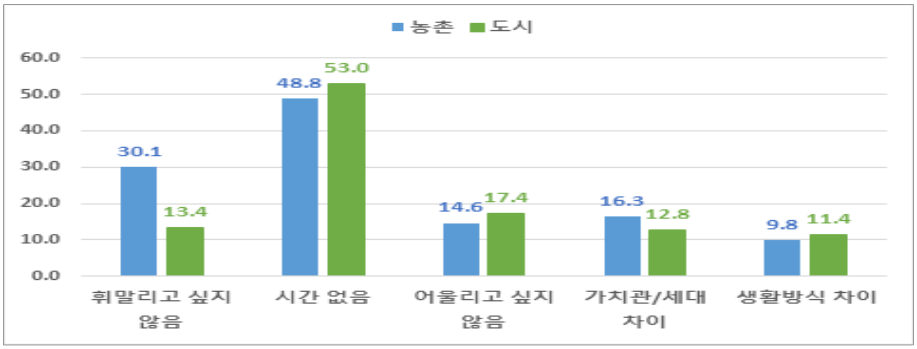
말리고 싶지 않음', 도시지역은 '어울리고 싶지 않음' 등의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시간 없음'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시간 없음', 반대로 높아질수록 '가치관/세대차이'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마찬가지로 '시간 없음'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고, 10년차 이상 1인가구에서는 '생활방식 차이'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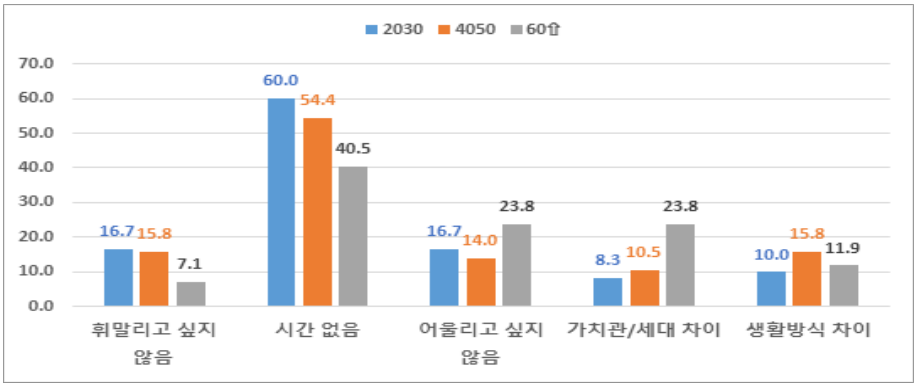
〈표 4-25〉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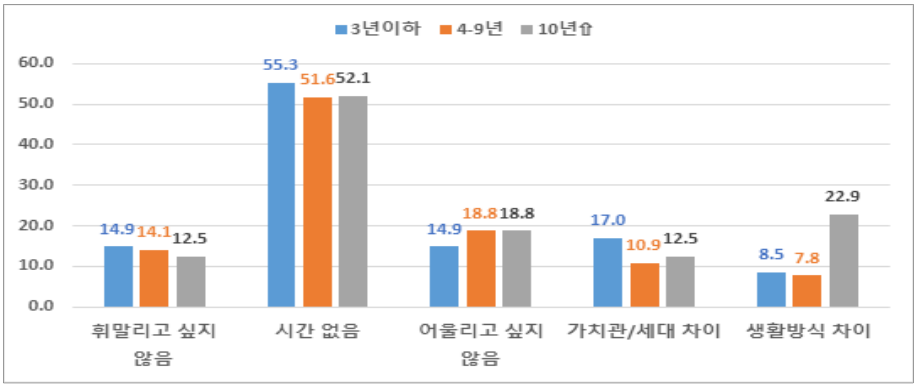
			휘말리고 싶지 않음	시간 없음	어울리고 싶지 않음	가치관/ 세대 차이	생활방식 차이
농촌			30.1	48.8	14.6	16.3	9.8
도시			13.4	53.0	17.4	12.8	11.4
	연령	2030	16.7	60.0	16.7	8.3	10.0
		4050	15.8	54.4	14.0	10.5	15.8
		60⇧	7.1	40.5	23.8	23.8	11.9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4.9	55.3	14.9	17.0	8.5
		4-9년	14.1	51.6	18.8	10.9	7.8
		10년⇧	12.5	52.1	18.8	12.5	22.9



〈그림 4-34〉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도시vs농촌)



〈그림 4-3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연령별)



〈그림 4-3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_(1인가구생활기간)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이웃과 맺고 싶은 관계 정도를 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된 사생활 유지’, ‘최소한의 도움만 나누는 이웃’, ‘이웃을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원함’ 항목에서 농촌지역 보다 욕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는 독립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1인가구에 비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웃을 원하는 욕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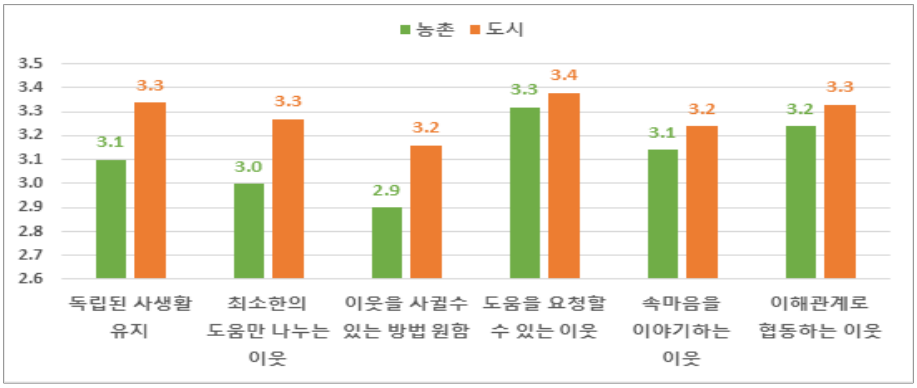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30는 독립된 사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60대이상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0년차 1인가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3년이하 및 4-9년차 1인가구는 독립된 사생활을 유지하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26〉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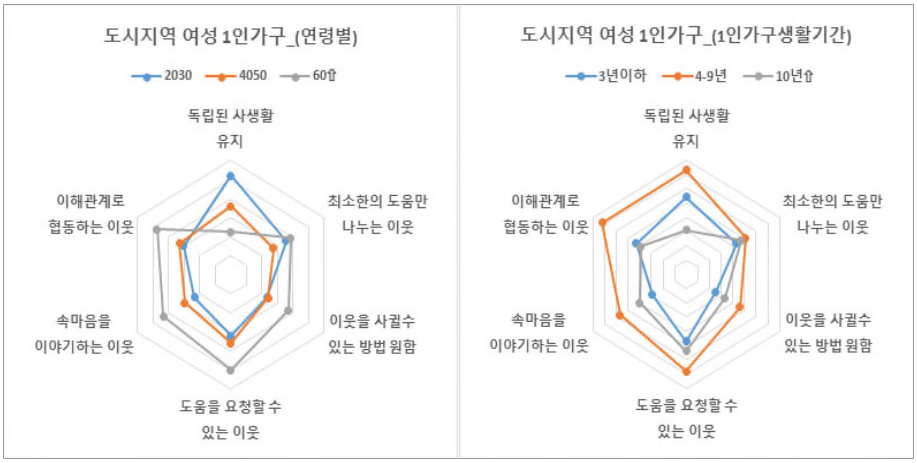
(단위: 점/5점기준)

		독립된 사생활 유지	최소한의 도움만 나누는 이웃	이웃을 사귈수 있는 방법 원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웃	이해관계로 협동하는 이웃
전체	농촌	3.10	3.00	2.90	3.32	3.14	3.24
	도시	3.34	3.27	3.16	3.38	3.24	3.33
	t	*-2.52***	*-3.14***	*-3.12***	*-.71*	*-1.11*	*-1.07*
도시	2030	3.64b	3.31	3.07	3.24a	3.07a	3.21a
	4050	3.32ab	3.15	3.08	3.32a	3.19ab	3.26ab
	60⇧	3.05a	3.37	3.34	3.60b	3.47b	3.55b
	F	*6.35***	*1.05*	*2.31*	*3.89**	*3.15**	*2.87**
	3년이하	3.34ab	3.23	3.05	3.27	3.09	3.23ab
	4-9년	3.53b	3.31	3.26	3.48	3.37	3.52b
	10년⇧	3.11a	3.27	3.13	3.34	3.20	3.19a
	F	*3.44**	*.12*	*1.19*	*1.36*	*1.63*	*3.20**

*p〈.05, **p〈.01, ***p〈.001



〈그림 4-37〉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도시vs농촌)



〈그림 4-3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가 희망하는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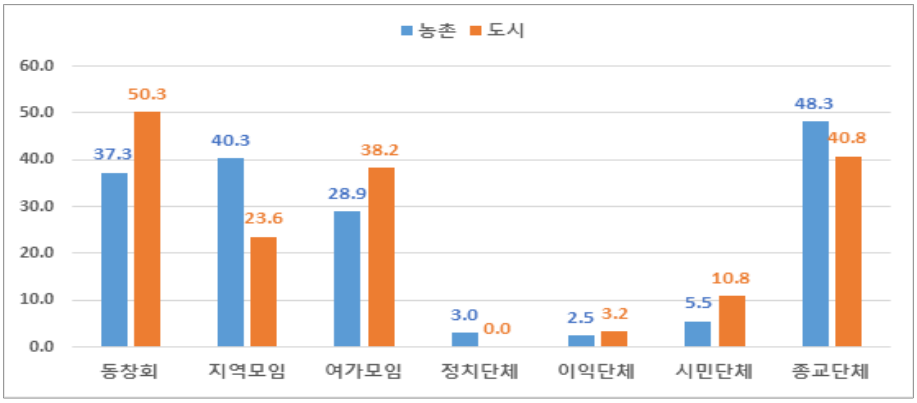
[사회활동 참여] 지난 1년간 활동했던 사회단체나 모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 동창회 및 여가모임 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지역모임 및 종교단체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모임, 여가모임, 종교단체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30의 경우 동창회 참여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단체, 여가모임 등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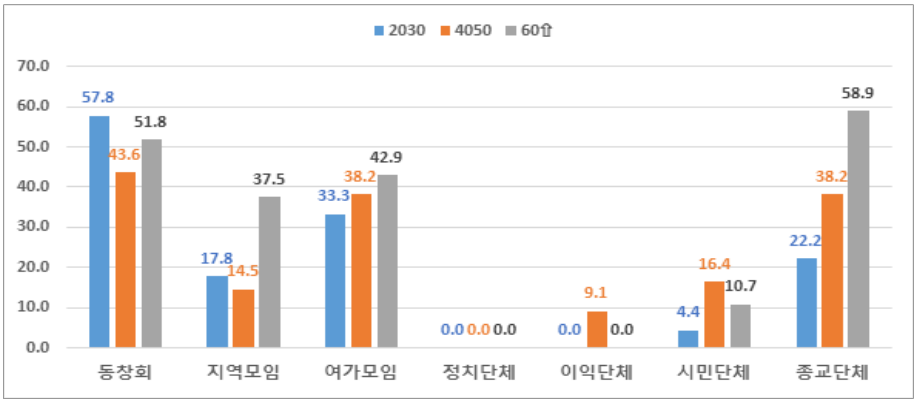
〈표 4-27〉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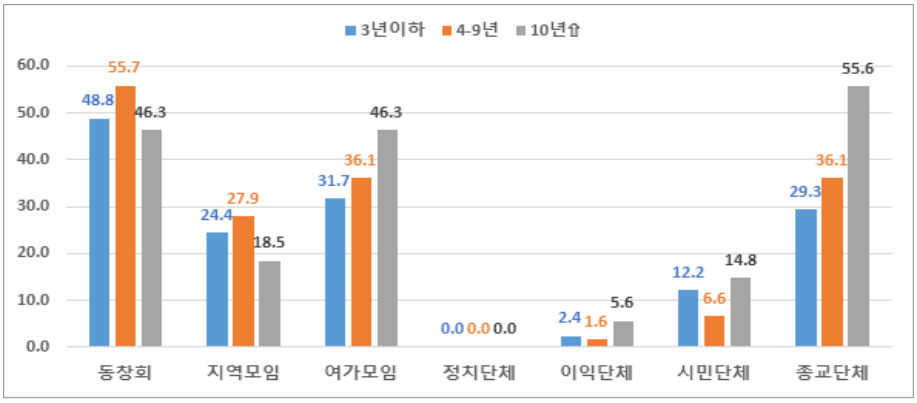
			동창회	지역모임	여가모임	정치단체	이익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농촌			37.3	40.3	28.9	3.0	2.5	5.5	48.3
도시			50.3	23.6	38.2	0.0	3.2	10.8	40.8
	연령	2030	57.8	17.8	33.3	0.0	0.0	4.4	22.2
		4050	43.6	14.5	38.2	0.0	9.1	16.4	38.2
		60⇧	51.8	37.5	42.9	0.0	0.0	10.7	58.9
	1인가구 생활기간	3년이하	48.8	24.4	31.7	0.0	2.4	12.2	29.3
		4-9년	55.7	27.9	36.1	0.0	1.6	6.6	36.1
		10년⇧	46.3	18.5	46.3	0.0	5.6	14.8	55.6



〈그림 4-39〉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도시vs농촌)



〈그림 4-40〉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연령별)



〈그림 4-4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중복응답)_(1인가구생활기간)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3.38점으로 농촌지역(3.51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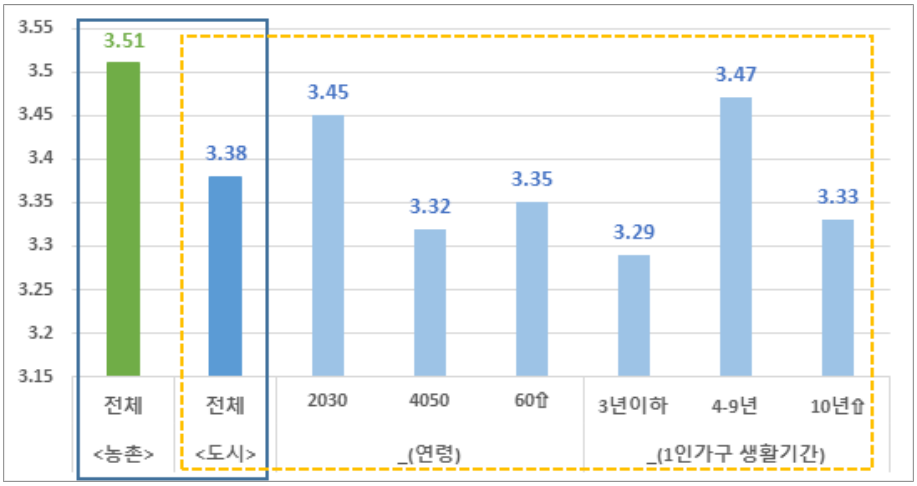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30가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4050에 가장 낮았으며, 다시 60대이상에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차에 가장 낮았다가 4-9년차에 가장 높았으며, 10년차 이상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표 4-28〉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단위: %, 점(5점기준))

			전혀 염려안됨	염려안됨	보통	염려됨	매우 염려됨	평균	*t/F*
농촌			5.7	9.4	24.9	47.8	12.2	3.51	*1.40*
도시			6.5	14.5	26.5	40.0	12.5	3.38	
	연령	2030	3.0	13.4	28.4	46.3	9.0	3.45	*.24*
		4050	8.5	15.5	28.2	31.0	16.9	3.32	
		60⇧	8.1	14.5	22.6	43.5	11.3	3.35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3.6	21.4	26.8	39.3	8.9	3.29	*.54*
		4-9년	2.5	14.8	28.4	42.0	12.3	3.47	
		10년⇧	14.3	7.9	23.8	38.1	15.9	3.33	

주: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걱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
*p〈.05, **p〈.01, ***p〈.001



〈그림 4-42〉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 향후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건강', 도시지역은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지역 간의 경제적 상황만 다르게 작용하고, 그 외 노후 관심사는 유사하였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저축과 보험/연금 등의 경제성 측면을 우선시하였고, 4050대부터 '건강'이 우선순위로 진입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2순위)

(단위: 점)

			저축	보험/연금	가족관계	친구관계	건강	안정된 거주	기타
농촌			78.0	73.5	35.0	24.0	107.0	44.0	3.0
도시			84.0	65.0	20.5	19.0	81.5	27.0	0.0
	연령	2030	41.5	20.5	4.0	5.0	18.0	11.5	0.0
		4050	23.0	29.0	9.0	5.5	29.0	8.0	0.0
		60⇧	19.5	15.5	7.5	8.5	34.5	7.5	0.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23.5	15.5	7.0	6.5	23.0	8.5	0.0
		4-9년	36.5	27.0	6.5	8.0	32.0	11.5	0.0
		10년⇧	24.0	22.5	7.0	4.5	26.5	7.0	0.0

※ 종합=[(1순위)*2+(2순위)]/2

〈표 4-30〉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이하	4-9년	10년⇧
1위	건강	저축	저축	보험/연금	건강	저축	저축	건강
2위	저축	건강	보험/연금	건강	저축	건강	건강	저축
3위	보험/연금	보험/연금	건강	저축	보험/연금	보험/연금	보험/연금	보험/연금

4) 경제활동

[직업]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1인가구의 경우 농림·어업(30.6%), 단순·노무(17.6%), 서비스(11.6%) 종사자 등의 순이었고,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서비스(21.4%), 자영업(18.9%), 판매직(13.4%), 사무(1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도농 간에 직업유형 분포가 서로 달랐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무직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또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서비스나 판매직 등은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무직 비율은 감소하고, 판매직, 단순·노무, 자영업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3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직	농람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	자영업	학생	기타	*비경제 활동*
농촌		2.1	7.0	9.9	14.8	11.1	18.5	0.8	0.8	8.2	8.2	1.6	2.5	*14.4*
도시		2.0	8.0	13.4	21.4	13.4	0.0	0.0	0.5	6.0	18.9	4.0	0.5	*11.9*
연령	2030	0.0	10.4	25.4	17.9	14.9	0.0	0.0	1.5	0.0	13.4	11.9	1.5	*3.0*
	4050	2.8	12.5	13.9	25.0	19.4	0.0	0.0	0.0	8.3	18.1	0.0	0.0	*0.0*
	60⇧	3.2	0.0	0.0	21.0	4.8	0.0	0.0	0.0	9.7	25.8	0.0	0.0	*35.5*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0.0	5.4	21.4	25.0	7.1	0.0	0.0	0.0	5.4	12.5	10.7	0.0	*12.5*
	4-9년	2.5	11.1	12.3	23.5	14.8	0.0	0.0	1.2	1.2	18.5	1.2	1.2	*12.3*
	10년⇧	3.1	6.3	7.8	15.6	17.2	0.0	0.0	0.0	12.5	25.0	1.6	0.0	*10.9*

[고용형태] 응답자의 현재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상용직(42.3%), 임시직(24.6%), 자영업(24.6%) 등의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농촌지역 1인가구와는 고용형태 비중의 분포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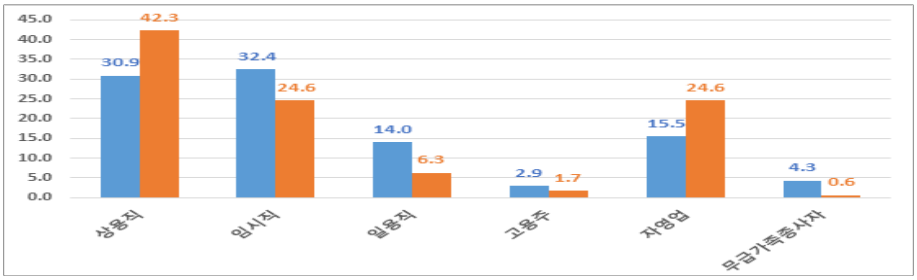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직과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2030대에 31.7%로 가장 높았다가 4050대에 27.8%로 감소, 그리고 60대이상에서 30.5%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상용직 비율은 3년이하에 35.4%, 4-9년차 52.9%로 증가하였다가 10년차 부터 다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3년이하에서 가장 높았다가 4-9년차에 감소하다 다시 10년차에 증가하였다. 자영업 비중은 1인가구 생활기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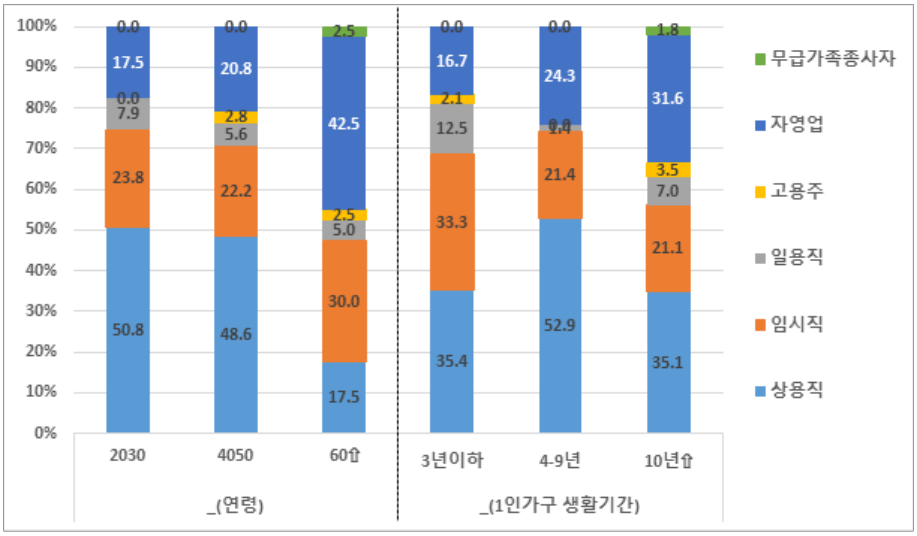
(단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χ^2
농촌			30.9	32.4	14.0	2.9	15.5	4.3	*20.54***
도시			42.3	24.6	6.3	1.7	24.6	0.6	
	연령	2030	50.8	23.8	7.9	0.0	17.5	0.0	*n.s*
		4050	48.6	22.2	5.6	2.8	20.8	0.0	
		60⇧	17.5	30.0	5.0	2.5	42.5	2.5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35.4	33.3	12.5	2.1	16.7	0.0	*n.s*
		4-9년	52.9	21.4	1.4	0.0	24.3	0.0	
		10년⇧	35.1	21.1	7.0	3.5	31.6	1.8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43〉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도시vs농촌)



〈그림 4-4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월평균 소득] 최근 6개월간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200~299만원(27.4%) 구간이 가장 많았고, 농촌지역의 경우 100~199만원(31.3%)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소득의 분포는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상향(upward-sloping), 농촌지역의 경우 우하향(downward-sloping) 곡선을 나타내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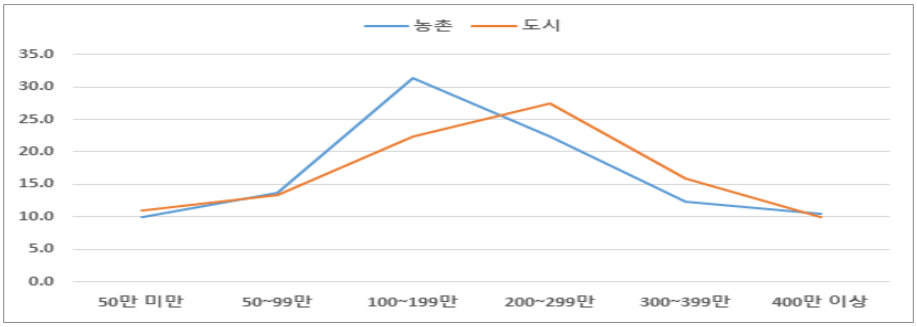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30대의 소득이 낮고 4050대부터는 저소득 분포가 감소되었다가, 60대 이상부터 다시 저소득 구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60대이상의 경우 월 평균 100만원도 되지 않는 비율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초기 3년이하 시기에는 100만원 미만 비율이 35.8%에 달하다가 4-9년차에 접어들면 18.5%로 감소하였으나 10년차가 넘어가면서 다시 저소득 구간이 21.9%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표 4-33〉 월평균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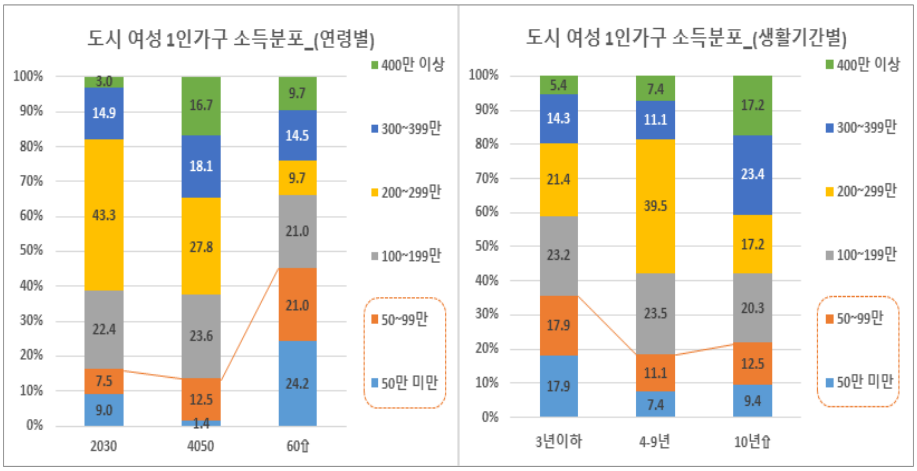
(단위: %)

			50만 미만	50~99만	100~199만	200~299만	300~399만	400만 이상	χ^2
농촌			10.0	13.7	31.3	22.3	12.3	10.4	5.17
도시			10.9	13.4	22.4	27.4	15.9	10.0	
	연령	2030	9.0	7.5	22.4	43.3	14.9	3.0	40.90***
		4050	1.4	12.5	23.6	27.8	18.1	16.7	
		60⇧	24.2	21.0	21.0	9.7	14.5	9.7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7.9	17.9	23.2	21.4	14.3	5.4	21.01*
		4-9년	7.4	11.1	23.5	39.5	11.1	7.4	
		10년⇧	9.4	12.5	20.3	17.2	23.4	17.2	

*p〈.05, **p〈.01, ***p〈.001



〈그림 4-45〉 월평균 소득분포_(도시vs농촌)



〈그림 4-46〉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

[월평균 지출] 최근 6개월간 평균 생활비(주거비 포함) 지출을 살펴보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월평균 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지출액이 99만원 이하인 경우는 농촌지역이 높고, 1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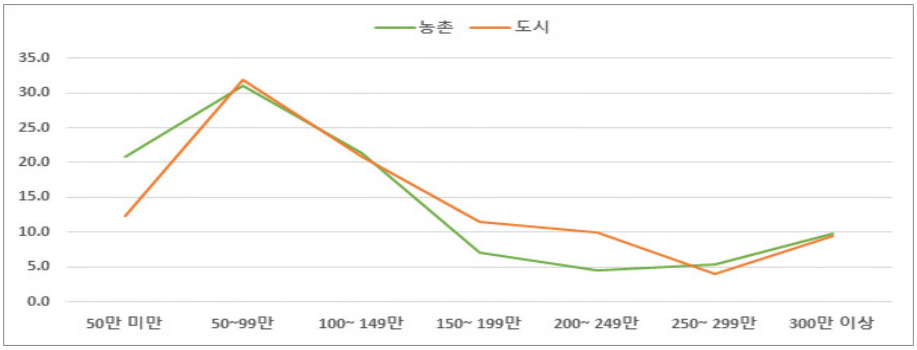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 2030대, 60대이상 순으로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0대가 가장 높았던 것과 같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로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지출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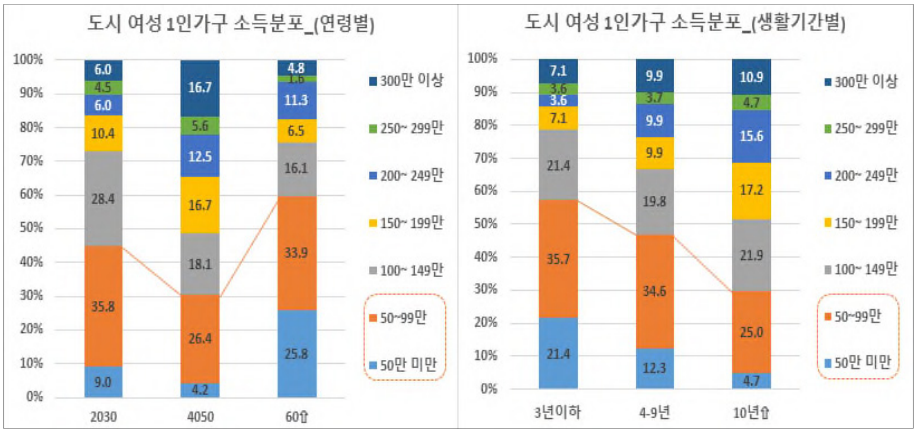
(단위: %)

			50만 미만	50~99만	100~149만	150~199만	200~249만	250~299만	300만 이상	x^2
농촌			20.9	31.1	21.3	7.0	4.5	5.3	9.8	12.23*
도시			12.4	31.8	20.9	11.4	10.0	4.0	9.5	
	연령	2030	9.0	35.8	28.4	10.4	6.0	4.5	6.0	29.70**
		4050	4.2	26.4	18.1	16.7	12.5	5.6	16.7	
		60⇧	25.8	33.9	16.1	6.5	11.3	1.6	4.8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21.4	35.7	21.4	7.1	3.6	3.6	7.1	16.10
		4-9년	12.3	34.6	19.8	9.9	9.9	3.7	9.9	
		10년⇧	4.7	25.0	21.9	17.2	15.6	4.7	10.9	

*p〈.05, **p〈.01, ***p〈.001



〈그림 4-47〉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_(도시vs농촌)



〈그림 4-48〉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분포

[지출항목] 최근 6개월간 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저축 및 식비, 농촌지역의 경우 식비 및 저축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생활비 지출액이 50~9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여가와 자기계발 등의 활동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연령별로는 전 연령에서 저축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30은 식비와 여가비, 4050은 가족부양, 식비, 60대이상은 사교활동, 식비 순으로 높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 역시 저축이 가장 높은 가운데, 3년이하는 식비와 주거비, 4-9년차는 사교활동, 식비, 10년차 이상은 가족부양, 여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나 1인가구 생활기간에 따라 소비패턴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35〉 생활비 지출항목(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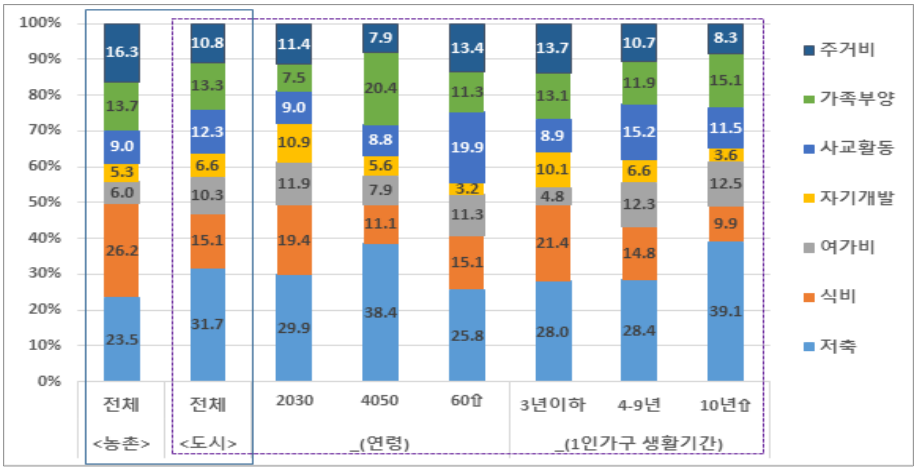
(단위: 점)

			저축	식비	여가비	자기개발	사교활동	가족부양	주거비
농촌			86.0	96.0	22.0	19.5	33.0	50.0	59.5
도시			95.5	45.5	31.0	20.0	37.0	40.0	32.5
	연령	2030	30.0	19.5	12.0	11.0	9.0	7.5	11.5
		4050	41.5	12.0	8.5	6.0	9.5	22.0	8.5
		60⇧	24.0	14.0	10.5	3.0	18.5	10.5	12.5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23.5	18.0	4.0	8.5	7.5	11.0	11.5
		4-9년	34.5	18.0	15.0	8.0	18.5	14.5	13.0
		10년⇧	37.5	9.5	12.0	3.5	11.0	14.5	8.0

※ 종합=[(1순위)*2+(2순위)]/2

〈표 4-36〉 생활비 지출항목 종합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농촌			식비	저축	주거비	가족부양	사교활동	여가비	자기계발
도시			저축	식비	가족부양	사교활동	주거비	여가비	자기계발
	연령	2030	저축	식비	여가비	주거비	자기계발	사교활동	가족부양
		4050	저축	가족부양	식비	사교활동	주거비	여가비	자기계발
		60⇧	저축	사교활동	식비	주거비	가족부양	여가비	자기계발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저축	식비	주거비	가족부양	자기계발	사교활동	여가비
		4-9년	저축	사교활동	식비	여가비	가족부양	주거비	자기개발
		10년⇧	저축	가족부양	여가비	사교활동	식비	주거비	자기개발



※ 100% 기준 비율임

〈그림 4-49〉 생활비 지출항목

[생활비 마련 방법]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은 가족에게 지원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50대가 근로소득 비중이 93.1%로 가장 높고, 60대이상은 54.8%로 낮아 경제적 독립성 및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2030대, 저축과 사회급여를 통한 불안정 소득은 60대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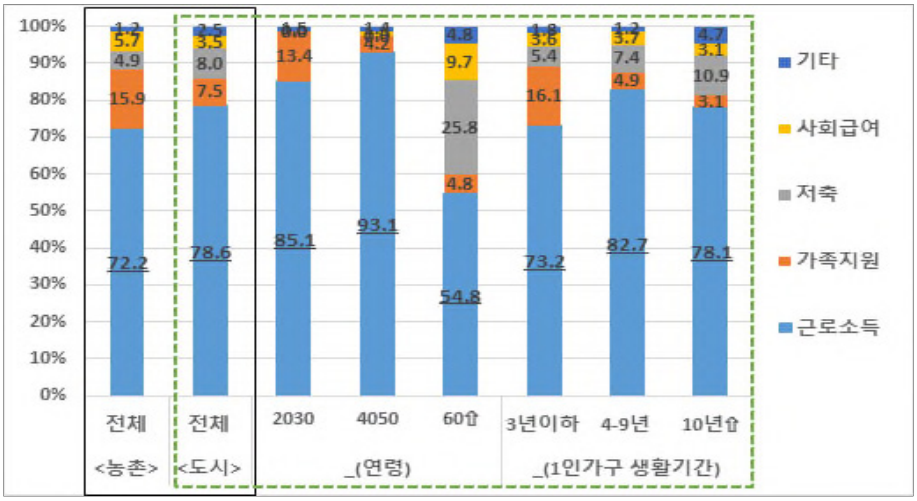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차 이하 때는 근로소득이 73.2%에서 4-9년차에 82.7%로 증가하였다가 10년차 이상에서 78.1%로 다시 감소하였다. 1인가구 초기 시기에는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7〉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근로소득	가족에게 지원받음	저축	사회급여	기타	x^2
농촌			*72.2*	15.9	4.9	5.7	1.2	*10.91**
도시			*78.6*	7.5	8.0	3.5	2.5	
	연령	2030	*85.1*	13.4	0.0	0.0	1.5	*n.s*
		4050	*93.1*	4.2	0.0	1.4	1.4	
		60⇧	*54.8*	4.8	25.8	9.7	4.8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73.2*	16.1	5.4	3.6	1.8	*n.s*
		4-9년	*82.7*	4.9	7.4	3.7	1.2	
		10년⇧	*78.1*	3.1	10.9	3.1	4.7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50〉 생활비 마련 방법

[주관적 계층의식] 현재 느끼는 계층의식은 도시지역 1인가구의 경우 3.23점으로 '중하층~중상층' 사이로 나타났으며, 유년기(8~15세) 시절 느꼈던 계층의식은 평균 2.98점으로 '하층~중하층(2.98점)'로 나타나 과거와 현재 간 계층의식 수준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농촌지역 1인가구의 경우 유년기와 현재의 계층의식 모두 도시지역보다 높았으며 과거와 현재 간의 계층의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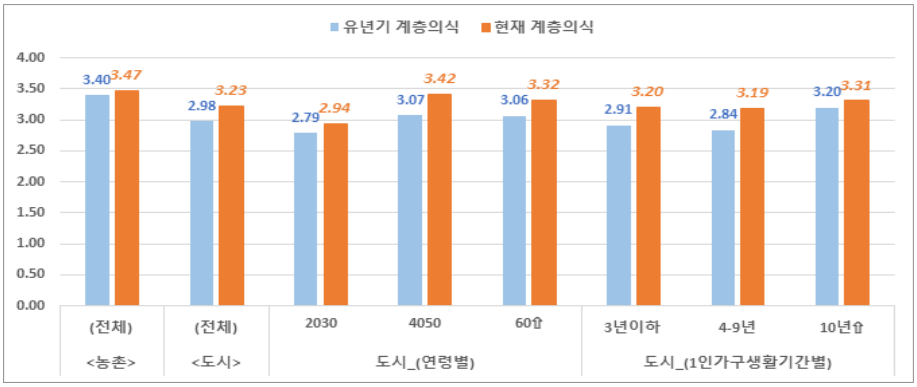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년기 계층의식은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현재 계층의식은 20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년기와 현재 간 계층의식의 변화를 보면, 4050와 60대이상 그룹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2030대는 유년기에 느꼈던 계층의식을 현재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년기 계층의식은 4-9년차 1인가구의 계층의식이 가장 낮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나, 현재 느끼는 계층의식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유년기와 현재 간 계층의식의 변화를 보면, 3년차 이하 및 4-9년차 그룹은 유년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점/5점기준)

			유년기 계층의식(M1)			현재 계층의식(M2)			Paired-t (M1-M2)
			N	M	*t/F*	N	M	*t/F*	
농촌			245	3.40	*5.04****	245	3.47	*2.94***	-1.28
도시			201	2.98		201	3.23		-4.05***
연령		2030	67	2.79	*2.17*	67	2.94a	*5.08***	-1.46
		4050	72	3.07		72	3.42b		-3.05**
		60⇧	62	3.06		62	3.32b		-2.4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56	2.91ab	*3.25**	56	3.20	*.37*	-3.43***
		4-9년	81	2.84a		81	3.19		-3.58***
		10년⇧	64	3.20b		64	3.31		-.81

주. 계층의식= 극빈층(1) 〈 하층(2) 〈 중하층(3) 〈 중상층(4) 〈 상층(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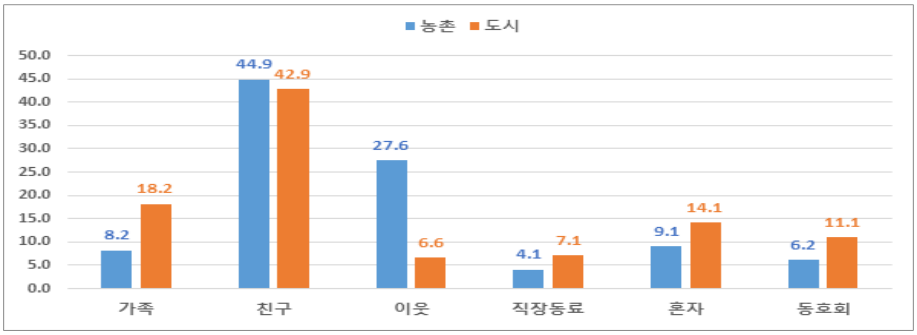


〈그림 4-51〉 주관적 계층의식

5) 여가 및 교육

[여가를 함께하는 사람] 주로 누구와 여가를 보내는지 살펴보면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친구(42.9%), 가족(18.2%), 혼자서(14.1%), 동호회(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 혼자, 동호회'라는 응답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농촌의 경우 '이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별로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의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의 경우 친구(62.7%), 4050대는 가족(26.4%), 60대이상은 이웃(16.9%), 동호회(25.4%)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3년차는 가족(23.6%), 4-9년차는 친구(53.1%), 10년차는 동호회(19.4%)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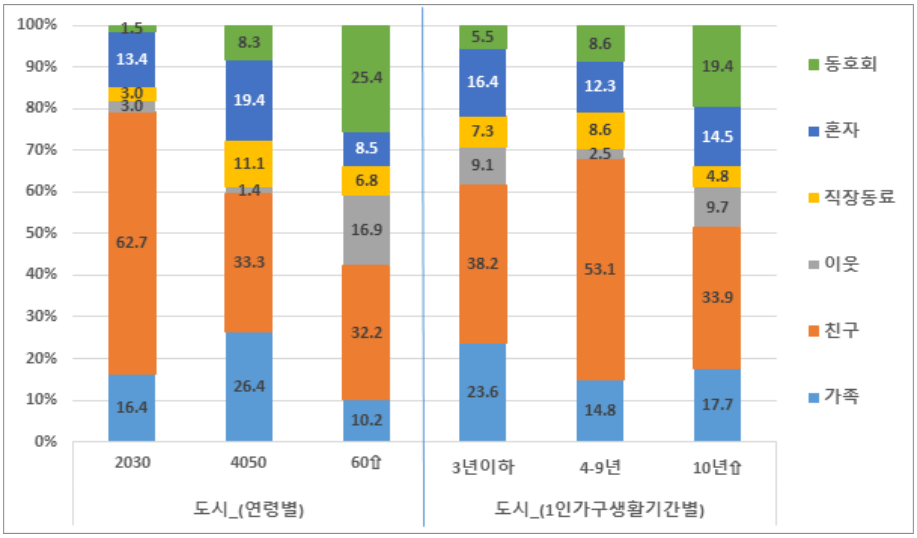
〈그림 4-52〉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도시vs농촌)

〈표 4-39〉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단위: %)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혼자	동호회	x^2
농촌			8.2	44.9	27.6	4.1	9.1	6.2	*42.55****
도시			18.2	42.9	6.6	7.1	14.1	11.1	
	연령	2030	16.4	62.7	3.0	3.0	13.4	1.5	*51.02****
		4050	26.4	33.3	1.4	11.1	19.4	8.3	
		60⇧	10.2	32.2	16.9	6.8	8.5	25.4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23.6	38.2	9.1	7.3	16.4	5.5	*15.28*
		4-9년	14.8	53.1	2.5	8.6	12.3	8.6	
		10년⇧	17.7	33.9	9.7	4.8	14.5	19.4	

*p〈.05, **p〈.01, ***p〈.001



〈그림 4-5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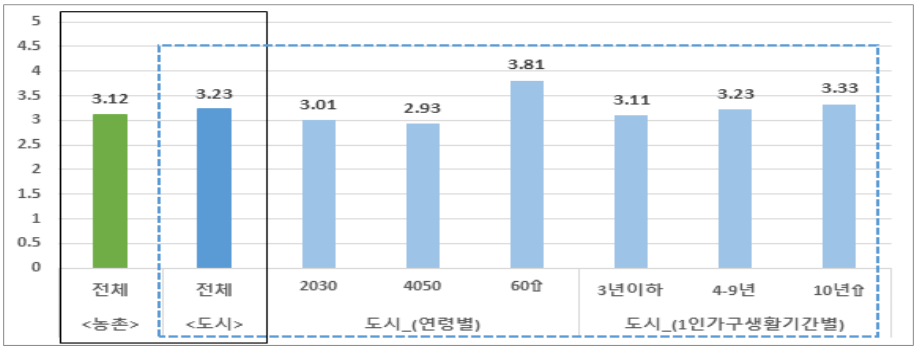
[여가시간 충족]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해 평균 5점으로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3.23점, 농촌 3.12점으로 도시지역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 연령별로는 60대이상에서 3.81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1인가구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충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40〉 여가시간 충족도

(단위: %, 점(5점기준))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평균	t/F
농촌			4.9	22.4	31.8	37.1	3.7	3.12	-1.17
도시			2.0	22.9	31.8	36.8	6.5	3.23	
	연령	2030	1.5	32.8	31.3	31.3	3.0	3.01a	20.27***
		4050	4.2	26.4	43.1	25.0	1.4	2.93a	
		60⇧	0.0	8.1	19.4	56.5	16.1	3.81b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0.0	25.0	42.9	28.6	3.6	3.11	.82
		4-9년	1.2	23.5	29.6	42.0	3.7	3.23	
		10년⇧	4.7	20.3	25.0	37.5	12.5	3.33	



〈그림 4-54〉 여가시간 충족도

한편, 여가시간 충족도를 '매우 부족함(1)~보통(3)'으로 응답한 도시지역 1인가구의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부담, 쉬고 싶음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과 비교해서는 농촌은 경제부담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연령별로는 2030대와 4050대는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경우 경제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부담을 이유로 여가호라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 생활기간에 상관없이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경제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년차부터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였다.

〈표 4-41〉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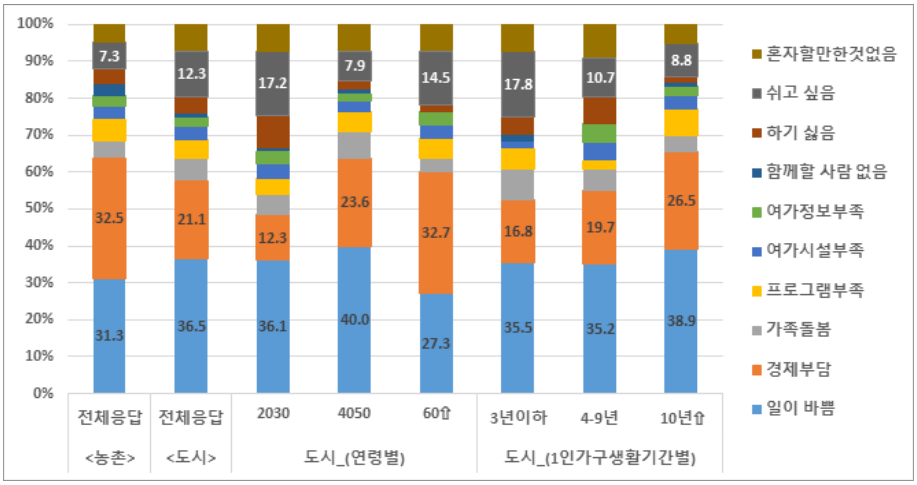
(단위: 점)

			일이 바쁨	경제 부담	가족 돌봄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하기 싫음	쉬고 싶음	혼자할 만한것 없음
농촌			66.5	69.0	9.5	13.0	7.0	6.5	6.5	8.5	15.5	10.5
도시			62.5	36.0	10.5	8.5	6.0	4.5	1.5	8.0	21.0	12.5
	연령	2030	22.0	7.5	3.5	2.5	2.5	2.0	0.5	5.5	10.5	4.5
		4050	33.0	19.5	6.0	4.5	2.5	1.5	1.0	2.0	6.5	6.0
		60⇧	7.5	9.0	1.0	1.5	1.0	1.0	0.0	0.5	4.0	2.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9.0	9.0	4.5	3.0	1.0	0.0	1.0	2.5	9.5	4.0
		4-9년	21.5	12.0	3.5	1.5	3.0	3.0	0.0	4.5	6.5	5.5
		10년⇧	22.0	15.0	2.5	4.0	2.0	1.5	0.5	1.0	5.0	3.0

※ 종합=[(1순위)*2+(2순위)]/2

〈표 4-42〉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이하	4-9년	10년⇧
1위	경제부담	일이바쁨	일이바쁨	일이바쁨	경제부담	일이바쁨	일이바쁨	일이바쁨
2위	일이바쁨	경제부담	쉬고싶음	경제부담	일이바쁨	쉬고싶음	경제부담	경제부담
3위	쉬고싶음	쉬고싶음	경제부담	쉬고싶음	쉬고싶음	경제부담	쉬고싶음	쉬고싶음



〈그림 4-55〉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이유(100%기준)

[희망 교육프로그램]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도시지역과 농촌 모두 취미, 건강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희망교육프로그램은 연령대에 맞는 관심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50대까지는 취미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한 반면, 60대 이상은 건강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교육은 40대부터 관심사에 포함하여 60대에 이르러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 보면, 3년차 시기에는 취미, 건강, 학위, 4-9년차에는 3위에 노후설계가 포함되었고, 10년차 이상에는 시민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4-43〉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2순위)

(단위: 점)

			학위 취득	취미 관련	인문 교양	직업 훈련	노후 설계	시민 활동	한글 교육	귀농 교육	컴퓨터	건강 관련	종교	가정 관리
농촌			45.0	77.0	32.0	49.0	27.5	12.0	7.5	11.5	10.0	57.5	16.0	17.5
도시			31.0	78.0	19.0	22.5	34.0	29.0	0.0	3.5	8.5	45.5	7.5	20.0
	연령	2030	20.0	26.5	8.0	10.0	5.0	7.5	0.0	0.5	4.0	8.5	1.5	9.0
		4050	9.0	33.5	8.5	7.5	12.0	8.0	0.0	3.0	3.5	14.5	2.0	5.0
		60⇧	2.0	18.0	2.5	5.0	17.0	13.5	0.0	0.0	1.0	22.5	4.0	6.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0.0	21.5	6.5	9.0	5.5	3.0	0.0	1.5	2.0	13.0	3.5	7.0
		4-9년	12.5	31.0	8.0	8.0	18.5	11.0	0.0	0.5	4.0	19.5	1.0	7.5
		10년⇧	8.5	25.5	4.5	5.5	10.0	15.0	0.0	1.5	2.5	13.0	3.0	5.5

※ 종합=[(1순위)*2+(2순위)]/2

〈표 4-44〉 향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이하	4-9년	10년⇧
1위	취미관련	취미관련	취미관련	취미관련	건강관련	취미관련	취미관련	취미관련
2위	건강관련	건강관련	학위취득	건강관련	취미관련	건강관련	건강관련	시민활동
3위	직업관련	노후관련	직업훈련	노후설계	노후설계	학위취득	노후설계	건강관련

6) 생활 및 주거환경

[주택 점유형태] 현재 거주하는 집은 도시와 농촌 모두 '자가'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에 비해 자가 및 전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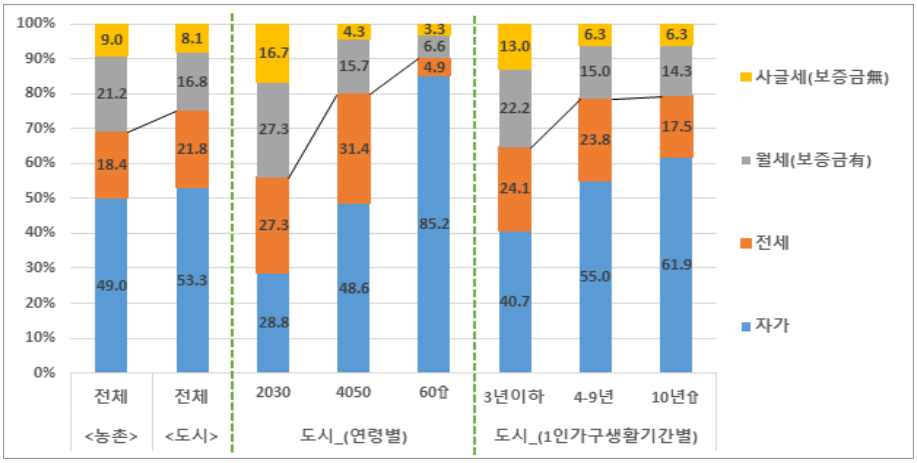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사글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30의 비율은 44%에 달하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생활기간이 길수록 자가 비율이 높고, 3년이하는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5〉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有)	사글세 (보증금無)	무상 (관사 등)	x^2
농촌			49.0	18.4	21.2	9.0	2.4	*7.11*
도시			53.3	21.8	16.8	8.1	0.0	
	연령	2030	28.8	27.3	27.3	16.7	0.0	*48.41****
		4050	48.6	31.4	15.7	4.3	0.0	
		60⇧	85.2	4.9	6.6	3.3	0.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40.7	24.1	22.2	13.0	0.0	*6.82*
		4-9년	55.0	23.8	15.0	6.3	0.0	
		10년⇧	61.9	17.5	14.3	6.3	0.0	

*p〈.05, **p〈.01, ***p〈.001



〈그림 4-56〉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유형]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은 농촌은 단독주택(52.2%), 도시지역은 아파트(43.3%)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지역간 주택의 유형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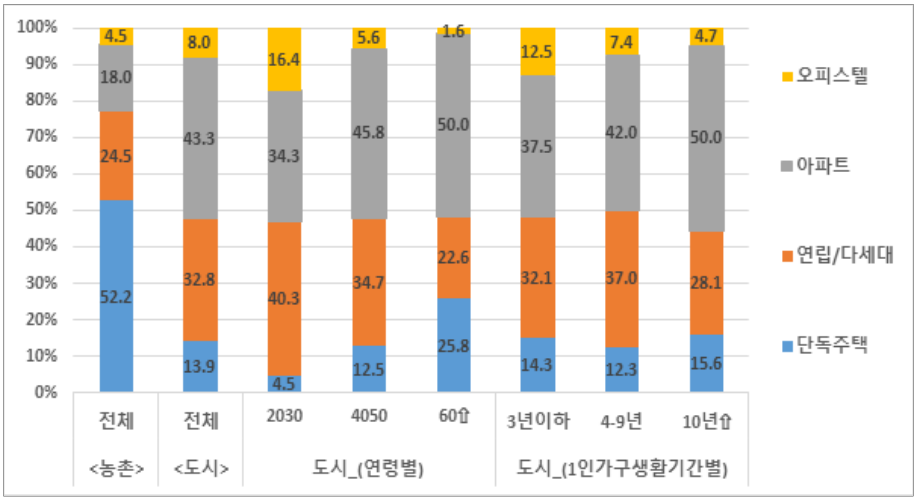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및 아파트 비중이 높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와 오피스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세대와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형태를 보였다.

〈표 4-46〉 주택의 유형

(단위: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x^2
농촌			52.2	24.5	18.0	4.5	0.8	*76.50****
도시			13.9	32.8	43.3	8.0	2.0	
	연령	2030	4.5	40.3	34.3	16.4	4.5	*29.01****
		4050	12.5	34.7	45.8	5.6	1.4	
		60⇧	25.8	22.6	50.0	1.6	0.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4.3	32.1	37.5	12.5	3.6	*n.s*
		4-9년	12.3	37.0	42.0	7.4	1.2	
		10년⇧	15.6	28.1	50.0	4.7	1.6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57〉 주택의 유형

[거주지 선택이유]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는 농촌은 '원래 살던 동네'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도시지역은 직장(학교)와의 거리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용이 공통된 선택이유였다.

- 연령별로는 20~40대 통근·통학거리, 5060대는 본 거주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비용이 공통된 선택 사유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이하 및 4-9년차 그룹은 직장거리, 10년차 이상은 원래 살던 동네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1인가구 생활 초창기에는 저렴한 비용이 거주지 선택이유 2위로 나타났다가 4년차 이후 3위로 하락하였다.

〈표 4-47〉 거주지 선택이유(1-2순위)

(단위: 점)

			직장(학교)거리	비용저렴	본 거주지	가족/친구와의 거리	거주환경 안전	좋은 주거환경	교통편리	주변 편의시설	의료시설 접근성
농촌			81.0	79.0	106.0	22.0	22.5	21.0	8.5	1.5	6.0
도시			86.5	43.5	52.5	11.5	21.5	28.5	29.0	8.5	5.5
	연령	2030	41.5	12.0	6.0	3.0	10.0	10.0	10.0	1.5	2.0
		4050	36.5	18.5	14.0	5.5	4.0	9.0	7.5	4.0	1.0
		60⇧	8.5	13.0	32.5	3.0	7.5	9.5	11.5	3.0	2.5
	1인가구 생활기간	3년이하	33.0	10.5	9.0	4.0	8.5	6.5	5.5	2.0	1.5
		4-9년	35.5	19.0	22.5	3.5	9.5	9.5	10.5	2.0	2.0
		10년⇧	18.0	14.0	21.0	4.0	3.5	12.5	13.0	4.5	2.0

※ 종합=[(1순위)*2+(2순위)]/2

〈표 4-48〉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농촌	도시	연령			1인가구 생활기간		
			2030	4050	60⇧	3년이하	4-9년	10년⇧
1위	본거주지	직장거리	직장거리	직장거리	본거주지	직장거리	직장거리	본거주지
2위	직장거리	본거주지	비용저렴	비용저렴	비용저렴	비용저렴	본거주지	직장거리
3위	비용저렴	비용저렴	교통편리	본거주지	교통편리	본거주지	비용저렴	비용저렴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도시와 농촌 모두 '높은 주택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시지역의 경우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 '정보부족' 응답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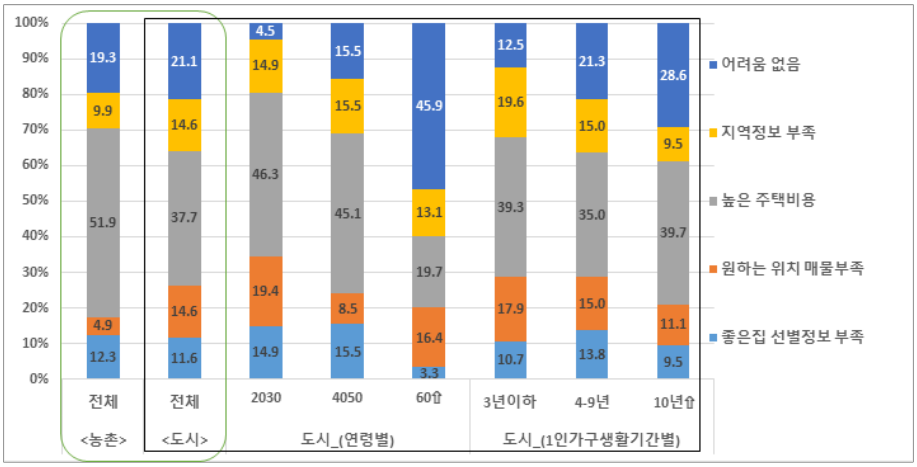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비용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 생활기간이 짧을수록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주택선정 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기간이 증가할수록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표 4-49〉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단위: %)

			좋은 집 선별정보 부족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	높은 주택비용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χ^2
농촌			12.3	4.9	51.9	9.9	1.6	19.3	*19.28***
도시			11.6	14.6	37.7	14.6	0.5	21.1	
	연령	2030	14.9	19.4	46.3	14.9	0.0	4.5	*45.86****
		4050	15.5	8.5	45.1	15.5	0.0	15.5	
		60⇧	3.3	16.4	19.7	13.1	1.6	45.9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0.7	17.9	39.3	19.6	0.0	12.5	*9.68*
		4-9년	13.8	15.0	35.0	15.0	0.0	21.3	
		10년⇧	9.5	11.1	39.7	9.5	1.6	28.6	

*p〈.05, **p〈.01, ***p〈.001



〈그림 4-58〉 주택선정 시 애로사항

[거주지역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교통접근성, 안전서비스, 범죄로부터 안전도, 사생활 침해, 주택보안 등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마을의 교통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과 비교해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소음 등 사생활 침해정도 만족도에서는 농촌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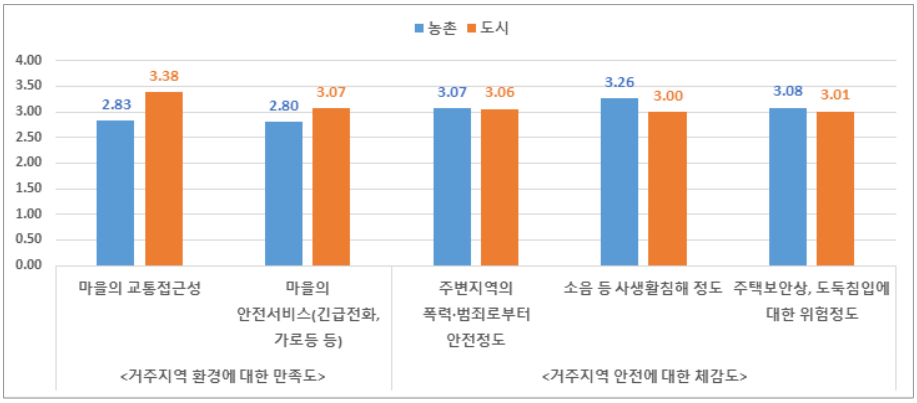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이었고, 거주지역 안전체감도 항목에 대해서는 405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생활 침해와 주택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4-9년차, 10년차 이상 그룹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4-50〉 거주지역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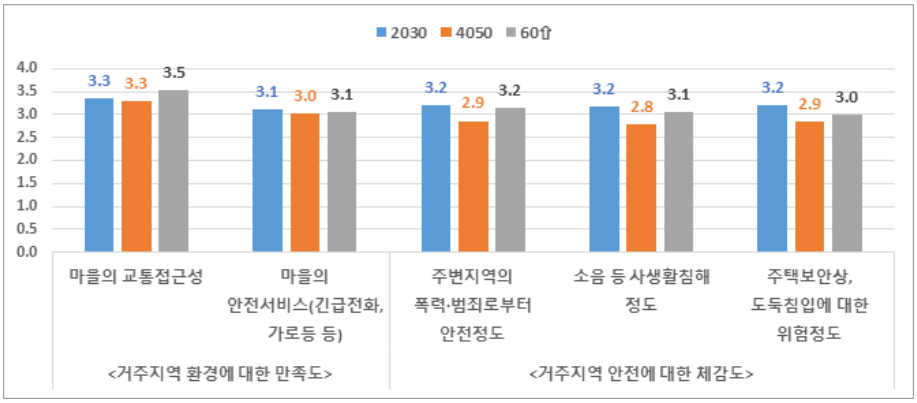
(단위: 점/5점기준)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1]		거주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2]		
		마을의 교통접근성	마을의 안전서비스(긴급전화, 가로등 등)	주변지역의 폭력·범죄로부터 안전정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정도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
전체	농촌	2.83	2.80	3.07	3.26	3.08
	도시	3.38	3.07	3.06	3.00	3.01
	t	*-7.10****	*-3.38****	*.07*	*3.60****	*.82*
도시	2030	3.34	3.12	3.19b	3.16b	3.21b
	4050	3.28	3.03	2.86a	2.79a	2.85a
	60⇧	3.53	3.06	3.15b	3.05ab	3.00ab
	F	*2.15*	*.20*	*3.88**	*4.41***	*3.88**
	3년이하	3.32	3.05	3.16	3.04	3.13
	4-9년	3.39	3.14	3.02	2.99	2.98
	10년⇧	3.41	3.00	3.02	2.97	2.97
	F	*.25*	*.47*	*.66*	*.12*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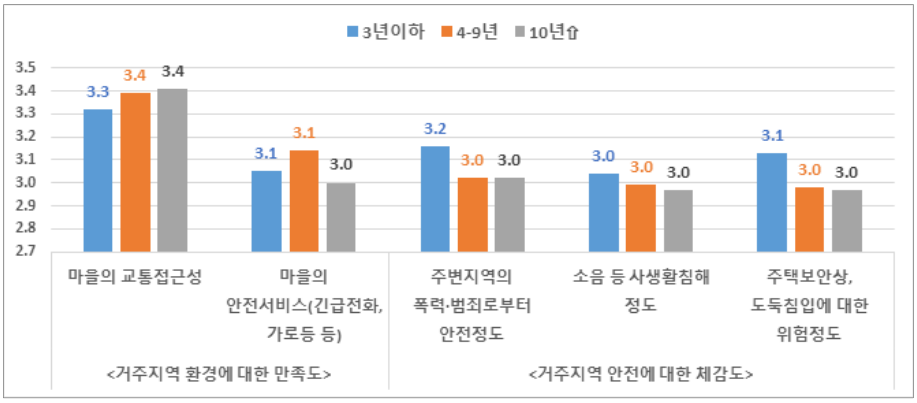
주1.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 ~ 매우 만족(5점)
주2. 매우 불안(1점) ~ 매우 안전(5점)
*p〈.05, **p〈.01, ***p〈.001



〈그림 4-59〉 거주지역 만족도(도시vs농촌)



〈그림 4-60〉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지역 만족도_(연령별)



〈그림 4-61〉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지역 만족도_(1인가구생활기간)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 필요한 점]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안전귀가서비스(39.8%), 응급전화/벨(24.4%), 자율방범활동(22.4%), 가로등(1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과 비교해서는 농촌지역은 가로등 설치와 자율방범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안전귀가서비스 및 응급전화/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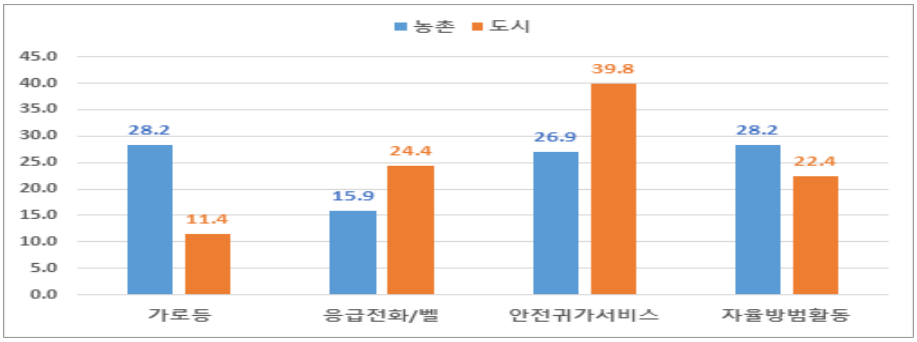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30대와 4050대는 안전귀가서비스, 60대이상은 응급전화 설치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3년차와 4-9년차 그룹은 자율방범활동, 10년차는 응급전화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표 4-51〉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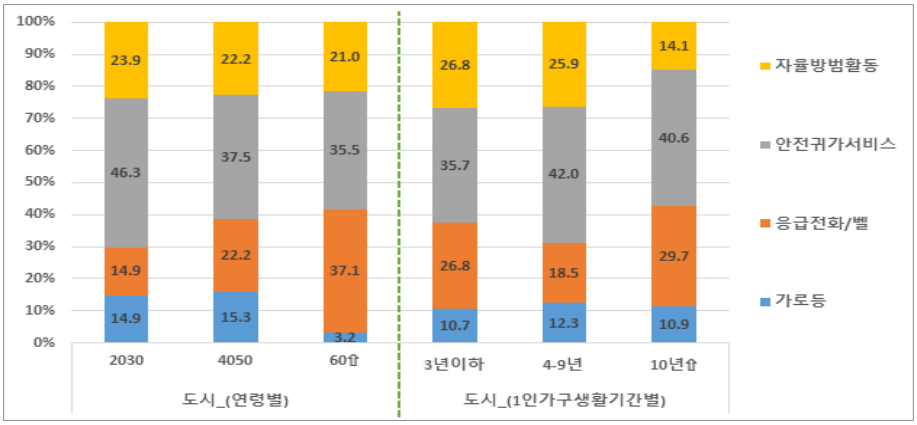
(단위: %)

			가로등	응급전화/벨	안전귀가 서비스	자율방범 활동	기타	x^2
농촌			28.2	15.9	26.9	28.2	0.8	*27.12****
도시			11.4	24.4	39.8	22.4	2.0	
	연령	2030	14.9	14.9	46.3	23.9	0.0	*15.25**
		4050	15.3	22.2	37.5	22.2	2.8	
		60⇧	3.2	37.1	35.5	21.0	3.2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10.7	26.8	35.7	26.8	0.0	*9.06*
		4-9년	12.3	18.5	42.0	25.9	1.2	
		10년⇧	10.9	29.7	40.6	14.1	4.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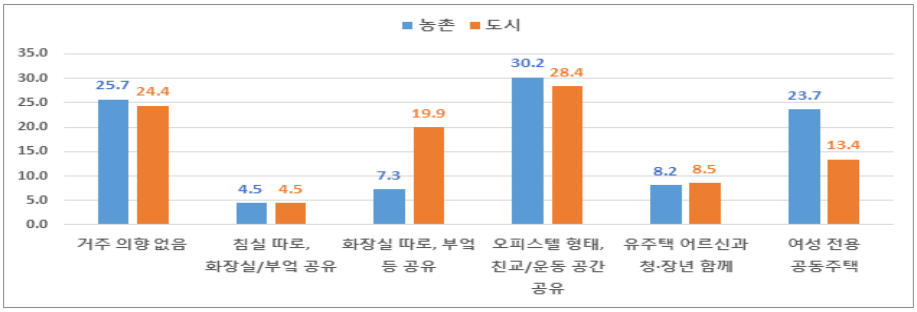
〈그림 4-62〉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그림 4-63〉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 1인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 모두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 친교/운동 위한 공동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도시지역의 경우 ‘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은 ‘여성전용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 거주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도시 24.4%, 농촌 25.7%였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주택 거주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2030대가 31.3%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여성전용 공동주택’ 희망 비율이 높아졌다.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1인가구 10년차 그룹은 ‘거주의향 없음’, 4-9년차는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 친교/운동 공동 공간’, 3년이하는 ‘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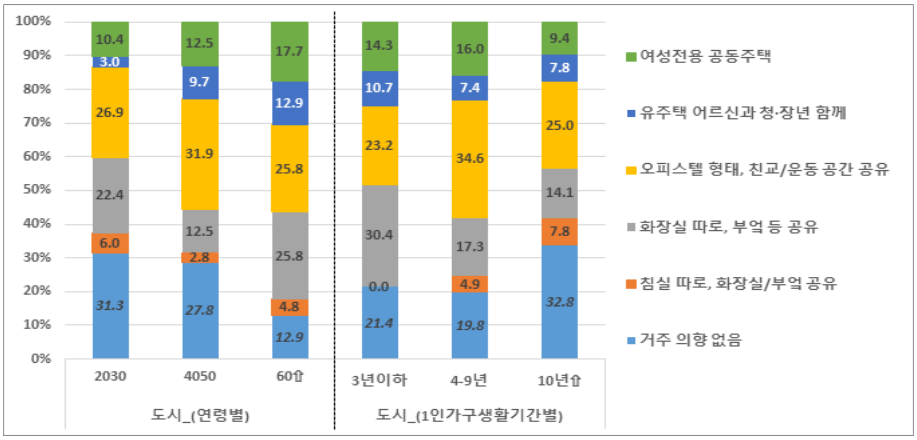
〈그림 4-64〉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도시vs농촌)

〈표 4-52〉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단위: %)

			거주 의향 없음	침실 따로, 화장실/부엌 공유	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	오피스텔 형태, 친교/운동 공간 공유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여성 전용 공동주택	χ^2
농촌			25.7	4.5	7.3	30.2	8.2	23.7	20.24**
도시			24.4	4.5	19.9	28.4	8.5	13.4	
	연령	2030	31.3	6.0	22.4	26.9	3.0	10.4	n.s
		4050	27.8	2.8	12.5	31.9	9.7	12.5	
		60⇧	12.9	4.8	25.8	25.8	12.9	17.7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21.4	0.0	30.4	23.2	10.7	14.3	n.s
		4-9년	19.8	4.9	17.3	34.6	7.4	16.0	
		10년⇧	32.8	7.8	14.1	25.0	7.8	9.4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65〉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의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범죄취약성 및 예방교육] 여성과 남성 1인가구 중 범죄취약성에 대해 여성 1인가구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도시지역 69.0%, 농촌지역 62.0%로 가장 높았고, 범죄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비율은 도시지역 61.6%, 농촌 53.3%로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이상에서 여성의 위험이 더 크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반대로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에 대한 욕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30의 경우 여성이

더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1%, 범죄예방 교육 욕구도 74.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위험하다는 응답은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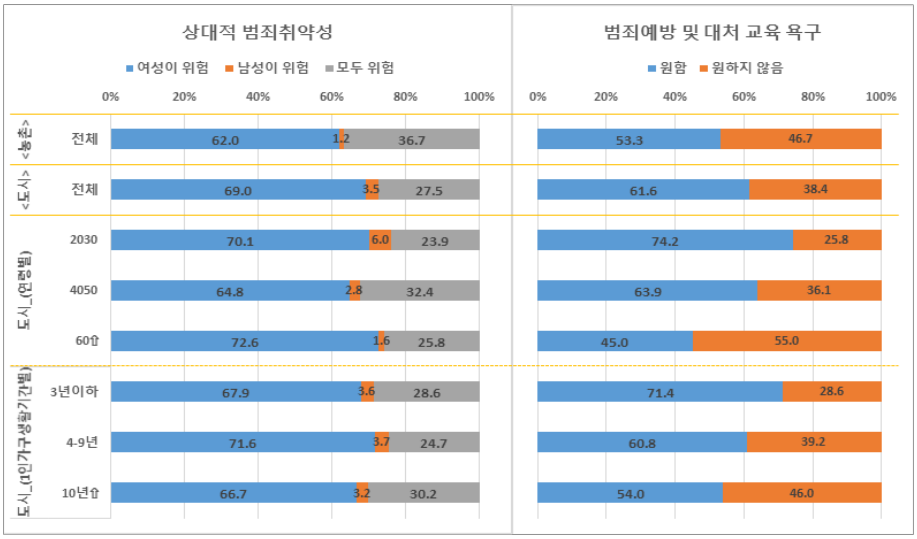
- 1인가구 생활기간별로는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은 4-9년차에서 가장 높았고,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욕구는 3년차 이하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위험하다는 응답은 10년차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표 4-53〉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단위: %)

			상대적 범죄취약성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욕구		
			여성이 위험	남성이 위험	모두 위험	x^2	원함	원하지 않음	x^2
농촌			62.0	1.2	36.7	6.24*	53.3	46.7	3.04
도시			69.0	3.5	27.5		61.6	38.4	
	연령	2030	70.1	6.0	23.9	n.s	74.2	25.8	11.61**
		4050	64.8	2.8	32.4		63.9	36.1	
		60⇧	72.6	1.6	25.8		45.0	55.0	
	1인 가구 생활 기간	3년이하	67.9	3.6	28.6	n.s	71.4	28.6	3.86
		4-9년	71.6	3.7	24.7		60.8	39.2	
		10년⇧	66.7	3.2	30.2		54.0	46.0	

주) n.s: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p〈.05, **p〈.01, ***p〈.001



〈그림 4-66〉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의견] 전라북도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개방형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주로 주거와 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4-54〉 도시지역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의견 및 사업제안(개방형 질문)

공동체	1인가구 모임활성화
	외로움 많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었음
	주거지역 모임 많이 만들어서 잔치나 행사 했으면 좋겠음
안전	범죄(성폭력) 예방교육 각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절실이 필요
	원룸 밀집지역에 가로등 설치 확대 필요
	카메라 설치와 야간 순찰 등을 자주 했으면 좋겠음
	보안이 갖춰져있는 여성다세대주택이 발전되었으면 함
	방범순찰강화
	범죄예방 시스템 단속 강화, 주변 인근 시설 확대(공원 등)
	안전귀가 시스템 설치 요함
	가로등, CCTV 등 설치
	폭력상황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교육 ex) 신고 정신 등에 관한 교육 필요. 거리에 가로등이나 안전벨, 지역안전지역이나 네트워크 구축 필요
	위급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1인가구 주거 침입 방어장치 설치
	또한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다가구 세대 등에 무인택배함(보관)을 운영하면 좋겠음
	여성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범죄 예방 위한 CCTV 증설
일자리	개인일자리 정보 공유 싸이트 창출,
	일자리 창출
	정년퇴직 후 재취업 가능한 직업 개발하여 제공 원함
주거	1인가구 거주지 시설 강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매물 정보 공유
	독일마을주택처럼 거주환경조성 필요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문제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혼족들의 증가 추세로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을 선호함.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원하면 좋음.

	여성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좋은 공동주택이 많이 필요함
	낮은 주택의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이 많았으면 바램. 높은 주택 비용 때문에 결혼도 생각을 못함
	1인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필요함
	전주에도 코리빙하우스가 생겼으면 좋겠음
취미활동· 여가프로그램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혼자 배울 수 있는 운동,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음.
	도시에서 운영하는 여가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음

〈그림 4-67〉 도시 여성1인가구 제언 워드 클라우드

다. 소결

여성 1인가구는 연령대에 따라 형성 원인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2030대는 직장/학교(52.2%)가 과반을 넘었고, 4050대는 직장/학교(46.5%), 이혼/사별(26.8%) 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이혼/사별이 70.5%로 나타나서, 형성원인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 생성 요인을 비교하면, 농촌은 사별/이혼이 51.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시의 직장/학교 37.8%, 사별/이혼 35.3% 대비,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가 농촌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1인 가구의 3.17점(5점 만점)대비, 도시의 경우 3.49점으로 도시에서의 1인가구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대답을 보이면서, 도시의 경우, 건강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계수입 만족도가 낮았으며, 농촌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도시의 경우, 농촌 대비 응급상황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농촌 68.2% 대비, 81.5%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민거리를 나눌 사람에 대한 응답도 도시지역의 94.5%가 있다고 한 반면, 농촌은 83.3%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은 도시 1인가구가 56.3%로 농촌의 46.1%에 비해 높았으며, 돌보는 대상은 농촌지역은 부모, 도시지역은 손자녀로 나타났다.

1인가구 생활의 단점으로는 도시와 농촌 모두 경제적 불안을 지적하여,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의 부재의 문제를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제일 큰 관심사에 대해, 세대별로는 2030대가 취·창업과 직장생활에, 4050대는 건강 및 직장생활, 60대 이상은 건강 및 인간관계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사가 연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웃과 맺고 싶은 관계 정도를 살펴보면, 도시 2030 1인가구 여성은 독립

된 사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비해 60대 이상의 경우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희망하였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모임, 여가모임, 종교단체 등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 연결되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도시지역에서 2030세대가 가장 높고, 4050에서 감소하였다가 60대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2030의 일자리 불안과 불확실성에 따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직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2030대에 가장 높았다가, 4050에 감소 한 뒤 60대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청년과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월평균 소득 분포와도 연관되어 나타났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이 되지 않는 비율도 45.2%에 달했다.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가 많은데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이나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으면 다세대나 오피스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는 거주지 선택 이유에서 '원래 살던 동네'라는 응답이 많은데 반해, 도시지역은 직장(학교)와의 거리와 비용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었다. 도시와 농촌 모두 주택 선정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주택비용을 들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서는 2030대 4050대는 안전귀가서비스, 60대 이상은 응급전화 설치를 가장 필요로 하여, 세대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1인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선호 유형에 대한 질문에 도시와 농촌 모두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 친교/운동 위한 공동사용"이 가장 선호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주택 거주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여성전용 공동주택' 희망 비율이 높아 세대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1인가구 경험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심층면접 방법 및 조사내용

심층면접은 2020년 9월부터 12월 초반 사이에 진행되었고,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80대까지의 1인가구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인가구의 형성과 유지, 주거, 경제적 안정성, 소비와 문화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가족과의 관계,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면접 질문지를 시작으로 면접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면접은 1:1 개별면접과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비혼 공동체 단체와의 FGI로 진행되었고, 개별면접은 약 1시간에서 정도 소요되었고, 초점집단인터뷰는 2시간 30분가량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면접자의 선호에 따라, 면접자의 직장이나 면접자 거주지 부근의 카페, 비혼공동체 사무실 등의 장소를 이용하였다.

〈표 4-55〉 심층면접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1인가구 형성과 유지	· 1인가구 형성의 이유와 시기 · 1인가구 지속기간 ·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
주거형태, 주거안전성, 주거 환경	· 주거형태와 선택 이유 · 안전 위협 경험과 대처 방안 · 주거 환경
직업과 경제적 상황	· 직업적 특성 · 안정성 · 소득 · 1인가구 지속 가능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소비, 식당, 문화서비스	· 1인가구를 위한 소비, 식당, 문화서비스 · 만족스러운 부분 · 필요한 부분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 · 여가 및 취미활동 관계망

구분	조사내용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	· 결혼에 대한 집안이나 주변의 압력 여부 · 대처방안 · 사회적 태도와 압력
1인가구 노후 및 부모부양	· 노후 계획과 준비 · 부모 및 가족 돌봄 · 의료비 등을 위한 안전망 여부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
여성 1인가구의 경험	· 세대간,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 · 시대에 따른 경험의 차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상	· 희망하는 가족의 형태 · 공동주거 등에 대한 계획
1인가구 지원정책	·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여부 ·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 정책제언

2) 심층면접 응답자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세대를 배분하여 표집하였으나, 60대 이상 세대에 대한 면접이 부족하여,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4-56〉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성별	연령	직업 및 단체	결혼상태	주거형태
1	여성	3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LH공공임대아파트
2	여성	4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LH공공임대아파트
3	여성	4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LH공공임대아파트
4	여성	4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LH공공임대아파트
5	여성	5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LH공공임대아파트
6	여성	4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빌라(자가)
7	여성	50대	비비협동조합	비혼	단독주택(자가)
8	여성	30대	전문직	결혼하지 않음	빌라(LH전세)
9	여성	20대	직업전환중	결혼하지않음	빌라(월세)
10	여성	40대	사무직	결혼하지 않음	아파트(월세)
11	여성	50대	자영업	이혼	원룸(월세)
12	여성	50대	전문직	결혼하지않음	아파트(월세)
13	여성	80대	무직	사별	아파트(자가)

나. 심층면접 응답에서 나타난 1인가구 경험

1) 1인가구 형성과 유지

가) 1인가구 형성이유와 지속 시기

1인가구가 된 이유는 취업, 진학 등의 삶의 지역이 변화하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결혼을 했던 경우에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1인가구로 바로 변화하기보다는, 이혼한 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인가구로 살다가, 아이들이 결혼하고 연애를 하면서 독립을 한 뒤에 친언니 집 근처로 이사하면서 1인가구가 된 경험을 볼 수 있었다.

>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니까는 이혼한지는 오래됐죠. 애들하고 산지는 오래됐었는데, 혼자 독립을 한거는 지금 4년 전 처음이에요. 그때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 시기에 혼자 산다는거에 대한 그 부분을 몰랐는데 막상 내려와서 혼자 조그만한 집에 원룸에 사니까 우울증까지도 오고 1년동안은 진짜 힘들었어요. (심층면접 11)

80대 여성 노인 1인가구 회고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한 지는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큰아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본격적으로 1인가구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7-8년 정도 1인가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75살경에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세대별로 다양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대의 경우는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는 통학과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취업하면서 직장이 가까운 빌라촌에 정착하면서 1인가구의 삶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30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는데, 부모님과 살다가 대학원 진학과 취직 등이 겹치면서 자취의 개념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면서는 독립하여 살기보다는,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1인가구의 경험은 40대, 50대의 응답자 역시 20여년간 1인가구를 경험하다가 아니다가 했다는 말로 표현되었다. 즉, 해외에 있거나 혹은 직장으로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는 1인가구로 살다가, 다시 부모님 집 근처로 가면 같이 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답: 사실 독립하지 않았어요. 아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직장때문에 독립을 하게 됐네요. 전주로 원래 서울이 집이였는데, 전주에 근무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네요.

문: 그럼 그 전에 서울에서는 계속 같이 사셨어요? 어머니랑?

답: 그렇죠.

문: 그러면 1인가구한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답: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근무지가 다양했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험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문: 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답: 왜냐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밖에 없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첫 직장도 역시 서울이 근무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1인가구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 뒤로도 지금 제가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된게 한 20여년 시간 동안 서울에서 근무한 시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해외근무도 하고 했으니까 거의 다 1인가구의 생활을 살아온 것이죠. (심층면접 10)

답: 저는 전주에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1인인데, 사실 경험은 제 인생의 2/3 이상은 1인가구였어요. 지금 4년에서 새 해지나면 5년차... 이게 조금 저는 되게 외국생활을 오래하다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완벽한 1인가구로 한 20년 살았어요.

문: 석사부터 하셔서 그러면 그럼 꽤 오래 사셨네요. 그럼 그때가 시기가 언젠지 여쭤봐도 되요?

답: 저는 92년 말에 나가서 2012년에

문: 아 진짜 20년 딱이네 그럼 그렇게 돌아오셔서는 서울에서는?

답: 서울에서는 일단 부모님댁에 잠깐 있다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언니네가 아이가 없는지라 저를 불쌍히 여겨 받아줘서 언니네랑 살고 있다가 이제 전주에 자리가 생기면서 전주로 내려왔어요.(심층면접 12)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내의 태도와 기대 등이 결합되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로의 독립은 지역의 구분과 같은 공식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상황은 비혼 공동체의 경험에서 약간 다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

혼을 결심하면서 가족과의 독립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혼과 독립을 통한 1인가구가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비혼을 선택하면서, 차차 공간의 분리와 독립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스스로 1인가구를 선택했다기 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음을 선택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꾸린 것이 결과적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 그니까 질문이 혼자? 1인가구? 1인가구를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어 제가 선택한 건 결혼을 하지 않음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원래있던 원가족과의 공간 분리 그리고 간섭과 통제와 사람과 보호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나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네 그렇게 가구를 꾸린 것이 이제 1인 가구가 된 것이지요. (비비 FGI)

> 어 저는 그 독립적인 삶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유지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측면은 그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가지는 무게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뭐 되게 고부갈등이나 아니면 며느리로서의 역할이나 엄마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가는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힘들거 같아서 선택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비비 FGI)

그러다 보니, 1인가구로 살고 있지만, 룸메이트가 있어서 1인가구가 아닌 기간도 같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인가구는 상태적 의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파악된다.

>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20년이 넘은거 같고 그니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인가구로 살고 있지만, 1인가구를 선택한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잠깐 룸메이트가 있었던 적은 아주 적게 20년 근처쯤에 몇 년 잠깐 있었지만 대체로 그냥 1인가구로 쭉 온 거 같아요... 어 저는 비혼을 선택을 하고 비혼을 유지할 생각이지만, 음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하는 건

없어요. 그니까 주거형태가 맞고 그리고 어 1인 그 가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어우러지는 것이 그니까 사생활이 보장이 되고,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주거형태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동반자와 같이 룸메이트 또는 하우스메이트가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비 FGI)

답: 저도 비슷하구요. 저한테도 결혼은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혼으로 살다가 1인가구로 독립한 건 한 10년이 살짝 넘은거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결혼 보면 알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한다는 상상 자체를 안했던거 같아요.

문: 1인 가구로 독립할 때의 계기는?

답: 아 계기 같은 경우는 딱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전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녹록치 않고, 그러다 보던 기회에 잠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아싸 탈출하면서 1인가구가... (비비 FGI)

1인가구로의 독립은 이미 비혼을 결심하고 살다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나타나기도 했다. 집 안에 본인의 물건을 둘 공간이 부족해서 나타나기도 했고, 독립하여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나름의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이제 그렇게 1인가구는 너무 독립하고 싶었죠.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에 좋은 조건에 독립을 할 기회가 생겨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년 됐거든요. 1인가구로 나온지 1인가구는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가족들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고 지금 제 나이 때 거의 대부분 그럴건데 거의 대가족이 많고, 그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 명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집안에서는 해야되는거고,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쌓아 놓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삶이 있고, 또 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주 진짜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아 진짜 내가 뭘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걸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내

가 내가 원하는 데다 뭘 이거 하나 놓고 이걸 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거 자체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아 뭔가 아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아주 작은 계기 였는데,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비비 FGI)

1인가구 지속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될 것 같다는 의견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룸메이트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1인가구가 가지는 장점인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한에서의 룸메이트의 개념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나) 1인가구 만족도

1인가구로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큰 불만이 없거나,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신만의 삶, 독립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많이 언급했다.

저는 어 음 1인가구로 산지는 14년이 되었구요...저도 살면서 보니까 저의 경험으로 저에게 독립적으로 혼자사는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래서 결혼적령기라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족으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았을 때, 그게 되게 좀 많이 우울하고 그 선택을 하는거 자체에 저를 끼워 맞추는게 힘들더라구요. 오히려 그 고민을 털고나니까 자유로워졌고 여전히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긴한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와보니 부모님도 이제 어느정도 인정하시고 지금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비비 FGI)

그런데 1인가구로 독립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 그니까 제금낸다* 뭐 하잖아요. 제금내는 것처럼 제가 1인가구가 되었고,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해줬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모님과의 거리도, 관계도 조금 좋아진거 같고, 적절한 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 내가 1인가구를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동시적인 삶, 나만의 삶, 삶이 그래서 저는 1인가구도 진짜 가족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나만의 어떤 삶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그걸 보살피고 가꿔가는거

* 전라도 방언으로 분가하다, 따로나다의 의미임

이런거 경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거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인가구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주거생활인 거 같아요. (비비 FGI)

오히려 1인가구 삶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주거의 문제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1인가구의 삶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1인가구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주거형태와 환경

가) 주거형태와 선택 이유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FGI를 진행했던 비비협동조합의 많은 분들이 전주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전주시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전주시, 전라북도)에 거주흐는 무주택구성원”이면 지원할 수 있고, 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비비협동조합의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따로 또 같이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거주는 각자의 아파트에 살지만, 거주 근접성을 통해 일상의 필요를 돌봐준다든지 혹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등의 공동체 활동을 주거에서도 실천하고 있었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다른 국민임대나 원래 공공 임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50년이라서 사실은 국민임대하고 거의 다름없는 방식인데, 조건 자체가 가족이 있는 거나 저소득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보지 않고, 전주시민이면서 무주택자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처음에는 지금이나 청약을 막 또 하는데 예전에는 청약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3순위 청약없는 사람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정보를 알고,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청약이 굉장히 우선 순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얼마나 오래 무주택자로 살았나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가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국민임대하고 약간 다른 좀 측면이 있는데 (비비 FGI)

다른 일반임대 주택들의 경우와는 달리, 나이, 가족 구성, 소득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청약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라는 큰 조건만 있다보니, 다른 임대주택에는 지원할 가능성이 없는 비혼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 또한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모 소식을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비혼협동조합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지원해서 들어와 살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에서 임대금 지원 펀드를 운영하여,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조합원이 집을 먼저 구하고, 주거 안정 속에서 융자한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1인가구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다른건 안따지고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냐 이게 아마 가장 큰 배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22평 같은 경우는 청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돈이 뭐 이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조금 그래서 비혼이나 뭐 이런거 상관없이 여성이나 상관없이 여기를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다만 경쟁이 이제 경쟁이 많아져가지고 여기를 많이 알다보니까 경쟁이 좀 세져서 예전에는 4번 모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번 80명 모집하고 1년에 한 번 모집하는거 같아요. 근데 이제 형별로 모집하니까 한 세 번? (비비 FGI)

그러나, 일반적으로 1인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평수가 제한되어 있어, 5평 정도로 한정되는데 비해, 실제 1인가구도 임시적인 거처가 아닌 적당한 공간의 거처를 꾸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A: 근데 국민임대주택은 1인가구면 50제곱미터 이하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그게 평형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 B: 여기는 22평도 가능하니까
> C: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거 같아요.
> D: 근데 어쨌거나 비혼이나 여성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그 설계를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뭐 변화해가지고 더 취약해지거나 더 열악해지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거 같아요. 이미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해서 근데 이게 너무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런지 이거를 지을 생각은 안하시더 라구요. 이거 하나 뿐이고 이거 이상 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거보니까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들어오기 가장 문턱이 낮은? 그러면서 좋은? 왜냐면 평수대가 17평에서 22평 두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 7평에서 10평이니까 1인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가

E: 가구원 수에 따른 평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는 되게 협소한 곳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비비 FGI)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차별에 담긴 시선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서울 등지에서 반지하나 혹은 작은 방 한칸을 경험했던 응답자는 현재의 임대아파트는 너무 좋은 조건이고, 만족도가 높은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아파트라는 낙인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는 여기가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면 제가 뭔가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라고 했을 때, 제 조카가 이모는 왜 그런데서 사냐고 자기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지 않을거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존재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설계사 그니까 취약계층만 이런 임대아파트에 살도록 하기 때문에 낙인이나 슬럼화가 조금 더 심한거 같은데, 근데 또 평화동 주공아파트랑 비교하면, 여기가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말 7평, 8평, 5평 이 정도 굉장히 작은 평수에 비해서 또 주거환경도 좋지 않아서 약간 닭장처럼 되어있어서 거기 보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비 FGI)

1인가구 중 34세까지는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그 제도를 통해 집주인, LH, 면접자가 3자 관계를 통해 전세를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만날 수 있었다. 3자 관계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월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아서, 집 선택의 여지가 적은 것을 난점으로 꼽고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 임대 프로

그램과 비교하면 이자가 높아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답: 그냥 이런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LH쪽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물론 돈도 없기도 하구요.

문: 지금은 청년전세임대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때요 조건이?

답: 그건 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게 전세 5천짜린데요. 투룸이고, 거기에서 제가 낸돈은 2백만원? 2백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LH에서 대출을 해준거죠. 그래서 LH에 이자를 내고 있어요. 나머지 4천8백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 34세?까지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 그럼 곧 34세가 되시나요?

답: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청년전세임대를 할 수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전세임대가 그다지 그냥 일반 전세 대출하고 비교했을 때, 큰 매리트가 없고, 오히려 제한들이 많아서 제가 이 청년전세임대가 작년에 되고 집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LH전세임대로 집을 내놓지 않은 집주인들이 많고 내놓는다고 해도 이제 귀찮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계약이나 뭐 이런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3주? 2~3주는 걸리고 근데 안전하기는 하죠. 대신 3자가 계약하는거여 가지고 안전하기는 한데, 법무사도 끼고, 근데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거죠. 그렇다보니까 매물 자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집을 한 번 보면, 게다가 여기 전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투룸 전세는 더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결정해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약간 집을 잘못 골라가지고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일반전세대출로 하면 이렇게 촉박하게 고를 필요도 없고 제 선택지가 제한될 이유도 없는데 (심층면접 8)

그럼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월세를 구하면 내야하는 금액에 비해 LH를 통한 전세에 내는 이자는 훨씬 저렴한 편이지만, 이제 34세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볼 수 없어진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덜 주니까, 지역 전세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관찰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동산에 계신 분의 중개사는 제가 LH주택 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LH전세임대가 여기 시세를 좀 올려놨다고 하더라구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세가 오르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원을 LH에서 해주다보니까 집주인들이 더 올리는 경향이 있는거같다. 말은 그렇게...월세를 게다가 목돈이 필요없다는 게 장점 중 하나인데 전세대출은 어쨌든 내가 목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목돈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장점 그니까 그 장점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단점이 있어도 그냥 하는건데, 나이도 제한이 있어서 근데 못해요. 끝나가요. (심층면접 8)

또한, 청년주택지원정책은 나이 제한에 대한 연장은 조건부로 가능한데, 그 연장의 조건은 결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었다.

제 친구도 서울에서 행복주택 사는데, 그것도 이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LH 청년전세임대 서울 행복주택도 청년이고 그 1인가구 자체를 위한게 아니잖아요. 청년이기때문에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지. 그 친구도 6년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6년이 되면 그냥 나가야되는데 근데 만 약에 결혼을 하면, 그거를 연장할 수 있다는거에요...그러는 거죠. 둘이 같이 살아라. 둘이 살다보면 언젠가 애도 나올거고 노동력이 하나 만들어지는거고 (심층면접 8)

원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역시,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원룸을 선택했지만, 보안과 소음 문제 등으로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답: (불만은) 좁다는거...그리고 이제 요즘에 금리도 낮은데다가 낮은데 보증금이 높잖아요. 보증금 월세가 세가 그렇게 따지면 원룸들이 다 그렇겠지만, 부담이죠. 혼자 살면서 내는 금액들 아깝지만, 또 상황이
문: 근데 그러면, 안전감이나 이런거는 그냥 괜찮으세요? 빌라 같은데
답: 아니요. 아파트로 가야죠.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시끄럽고, 이게 길가 집이라 너무 시끄러워요. 임시로 거처를 한다고 얻은 집인데, 그 거처가 계속 살고 있는거에요. (심층면접 11)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전액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응답자였다.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관사의 개념으로 지원받고 있었고, 아파트여서 주차나 경비 등의 어려움 없이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입니다. 전세 구하기 쉽지않다는거 아시잖아요.
문: 진짜 어려워요. 어떠세요? 살기는 주거 안전성? 뭐 이런거?
답: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경비아저씨도 있고, 주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일반 주택이나 빌라처럼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아주 편리하죠.
문: 도심 한가운데에 있죠?
답: 네... 직장에서 걸어서 15분? 그리고 참고로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관사의 의미로다 왜냐면 저희 본사가 서울이고, 제가 원래 그쪽에서 근무를 하던 노동자인데 이쪽에 있는 파견이 되어있으니까, 파견이라고 하기에는 발령이 난거죠. 발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주에 있는 월세를 커버할 만큼 줍니다.(심층면접 10)

다른 응답자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주한 경우였는데, 안전 문제는 거의 없었지만, 아파트로 옮긴 뒤에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답: 주거형태 아파트냐 뭐 그런거 말씀하시는거죠? 아파트 월세 이런 것도 말해야 되는거죠? 아파트 월세입니다...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혼자 살기에 더 편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런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주차나 쓰레기 처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아파트가 좀 나은거같아요. 안전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 그래서 월세를 들어가는게 꼭 소득이 없거나 이런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보다 뭔가 더 갑갑한 느낌? 층간 소음때문에 어쨌든 이사를 가야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지만, 지금 아파트로 이사오고 나서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더라구요.

문: 아까 오피스텔에 처음 살다가 오피스텔에 안전문제는 별로 없으셨어요?
답: 없었어요. 그 부분은 오히려 진짜 1인가구들한테 나쁘지 않은데, 좀 도로변에 있기도 했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돈을 들여서 근데 아 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니까 왠지 모르지만, 제가 전주에 정착한 안정되는 시기랑 맞물려서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사람 사는거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주는거 같아요. 아파트가 (심층면접 12)

80대 여성 노인의 경우, 7년 전 1인가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로 시작했고, 그 뒤 둘째 아들이 마련해 준 자가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주거 환경은 원룸 형태의 오래된 아파트로 주거 관련 비용은 자녀들이 납부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거주 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전형적인 노인 가구의 특성을 볼 수 있었고, 거주지 안전에 대한 걱정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 안전위협 경험과 대처방안

주거 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 경험은 안전 위협 경험으로 나타났다. 비혼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에 지원하면서 모여살게 된 계기는 금전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하지만 또 근처에 같이 살면서 느끼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작동했다.

어 근데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조금 다를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측면 아래에서 관계가 주는 힘이 있는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접근권이 주변의 상권이나 외지지 않고, 뭐 그런거 잘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거 같아요. 환경적인 측면 안에서도 (비비 FGI)

그러나 그 복도식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단식 빌라에 살고 있는 분의 경험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 많은 비혼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긴 하는데, 안들어오게 되는... 결심을 확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가 주는 안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정서적으로.....아파트에 쭉 사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바로 나의 문과 너무 너무 가까워 그리고 내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 그리고 듣기에 경험했던 한밤 중에 문을 두드렸던 취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놓으려고 잠깐 열어놓은 틈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을 저는 들으니까 신청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비비 FGI)

물론, 이러한 불안의 경험은 주거 형태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주택에 사는 분도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아파트, 빌라, 단독 모두 위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저는 주택에 사는데 주택이나 아파트나 여성에게는 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안전이 확보 되지 않은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경험을 주택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온다거나 남자들이 온다거나 심지어 열고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여성에게는 아파트도 주택도 안전하지 않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주택으로 가서 저는 고향이고 그래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더라구요. 몇 번 당해보니까 그래서 막 CCTV달고 막 모든 (비비 FGI)

1인가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빌라촌에 살면서, 경험하는 작은 환경의 변화는 사실상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경험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답: 네 저는 그렇게 막 무섭다는 생각은 안하고 사는데 가끔 이제 한번씩 혼자 사니까, 사실은 밖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민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날 문을 여는데 번호키가 살짝 열려 있다던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걸 덜 닫았나? 근데 아침에 사실 그걸 열지 않잖아요.
문: 어젯밤에 덜 닫았을 수도 있는데
답: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혼자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덜컥 어느 순간 손

잡이를 잡았는데 예전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거칠었나 그런 누가 만졌나? 그런 이상한 불안감은 가끔 한번씩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별다른 위험은 느끼지 못하고 살고있어요. 왜냐면 밑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때문에 사실은 생활 소음이 많긴 한데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위험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심층면접 8)

실제, 그런 작은 사건이 집을 옮기는 계기로 작동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안 역시 완전한 안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장의 불안감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특히 내부에 위험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스스로 조심하는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답: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전 집이 살기에 나쁜 건 없었는데,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그때 저녁에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어느날 그냥 잠자다가 정신이 문 열려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더라구요. 그거 몇 번하면서 삑삑거리다가 그 소리가 없어지고 다른 집 문여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갔다가 한 번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저녁에 그때도 키 홀더가 올려져 있는거에요. 이게 불안하긴 한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불안할 바에는 내가 옮기는게

문: 그럼 뭔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어요?

답: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이라는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다 원룸이라서 장소만 옮긴거죠. 당장에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문: 원룸 들어가기 전에 그런 (현관문 잠금장치)있어요?

답: 있어요. 있는데, 그 전 집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근데 이제 밖에서 쫓아오는 거면은 옮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부에서 그런거 같은 느낌이여서 실수였을 수도 있죠. 술 먹고 옆집 그냥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있다 보니까..

문: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답: 내가 조심해야 될 수 밖에 없는? 1인가구의 숙명겸 (심층면접 9)

현재 거주지를 서울로 옮길 예정인데, 서울에서의 주거비가 너무 높고, 안전문제가 걸려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은 기숙사에 머물 예정이라는 말은 안전에 대한 비용이 개인의 독립적 삶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래서 기숙사를 생각하고 있는건데, 만약에 기숙사가 안되려고 하면, 이거는 좀 고민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주거안전과 금액은 비례하더라구요. 1인가구로 사는 특히 타지에서 사는 상황에서 그 주거안전을 내가 포기하기가 너무 도박이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자취하는 것보다 그것도 있고, 제가 사실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인1실이 기본인데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층면접 9)

1인가구가 안전에 대해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감이 면접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안함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제적 상황

가)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소득의 원천이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직장이동, 실직, 혹은 큰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재원 마련과 해결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주거 불안과 관련해서는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지만,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사실상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 연구소에서 당분간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6년짜리 사업이고, 6년 이후에는 다시 지원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연구재단에 개인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건데 저는 그래도 전주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여기서 좀 생활

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뭔가 집을 막 사야겠다는 안들더라구요. 너무 큰일이니까. 집을 사는거는 그래서 지금 좀 내버려두고 있는거같아요. 잠깐 회피하고 있어요.....친구들은 그냥 어디가게 되면, 그냥 편히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너무 큰일인 거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뭔가 이제 직장생활로 인한 이제 경제가 이제 꾸려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너무 큰 큰일인 거 같아요. (심층면접 8)

노인 1인가구의 경우는 현재 노령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10만원 등을 수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수입은 없는 편이었다. 가끔 폐지 같은 것을 주워서 팔아 돈을 벌고, 연금소득은 거의 대부분 약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딸이 쌀과 반찬을 정기적으로 조달해 주어서, 식사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 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노인 1인가구의 경우가 아닌 청년, 중장년 세대의 1인가구는 나름 경제력이 있어서, 현재의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기도 했다.

A: 지금 기초수급자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너무 취약한 조건이잖아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못받기 때문에 그런데 1인가구 진짜로 만약에 가족자원이나 아니면은 친구자원이나 이웃자원이 없었을 경우에, 완전히 취약해 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가 필요한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제한 기본소득인데

B: 사실 그 경제 부분으로는 기본소득을 저희가 이야기 했어요. 그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적어도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으로써의 기본소득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냥 어느 정도라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특히나 아팠을 경우, 지금 그런 거를 기본소득하기 어렵다면, 아팠을 경우에 그래서 생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 생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돌봄도 사실 그것에서 돌봄도 나왔던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돌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랬을 경우 어쨌든 다 돈이니까 아니면 가족이 와야 되는거고,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비비 FGI)

경제적 안정감은 사실 1인가구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는 정규직이나 소득 수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고, 특히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연대망, 지원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에 따라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1인가구를 너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만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의 네트워크 등이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연결망과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1인 가구의 그 아까 직업적 특성과 안정성도 가족 개념하고 사실은 동일하다고...사실 정규직이나 뭐 이런 고정된 직장을 다니고 계신 1인 가구들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그게 큰 위협감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말씀하신 프리랜서나 뭐 이런 것들이 가족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대망과 지지망이 안정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없는 자원 안에서도 돈에 대해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고립되고 있으며 이것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1인 가구로 생존해 나가는게 굉장히 극에 달해있다라든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도 굉장히 큰들 경제가 중요해 나 혼자벌어서 혼자 사니까 이 직업이 단절되면 안돼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클거 같아서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B: 저도 약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인가족하고 1인가족하고 그 차이에 있어서의 직업적인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그것으로 구분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가족의 구성이 됐었을 때, 정책적으로 보존되는 것하고 그리고 돌봄으로 가족이 구성됨으로써 형성되는 어떤 돌봄노동 돈이 안드는 국가가 돈이 안들고 그런 부분들이 보존되는 것이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 것들인데 1인가구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뭐 스트레스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배려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동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거거든요.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립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도 이를테면 1인 가구가 그 다양한 네트워킹을 갖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고립된

그 공간으로 있는 것보다 어떤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그 세대구성으로서의 만족감을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정책적인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게 더 올라 갈 수 있겠죠.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제 다인가족과 1인가족에 있어서 1인가족이 좀 더 그 뭐랄까 열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 중에 하나 일 수 있다. (비비 FGI)

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영향을 받았는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류를 취급하는 응답자는 코로나로 인해 노인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매출에 타격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1인가구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없었을때는 몇천씩은 벌었으니까 벌어도 6개월 하면서 뗄꺼 떼고하면 몇 천까지는 아니겠지만, 혼자 충분히 겨울에 까지도 살 수 있는 돈이 됬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있고나서 거의 그 어르신들이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소득이 완전히 줄었죠. 되려 외려물건값도 못할 정도로 빚이 남았으니까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벌었다기보다 오히려 빚을 졌어요. 올해는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심층면접 11)

4) 소비, 식당, 문화서비스

가) 1인가구를 위한 생활 편의

1인가구로 사는 데 있어서, 특히 소비, 식당이용,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비슷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야채나 과일 등의 신선 상품이나 식재료가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대용량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 1인가구용 소포장을 팔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떡국을 끓여먹고 나왔는데, 떡국 떡이 슈퍼에서 파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작은 거를 산다고 해도 이걸 진짜 한번에 다 먹지도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나중에 잊어버리면 버릴텐데 그런 재료들을 살때부터 항상 혼자사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사면 이게 좀 싼데 결국에는 어차피 다 못먹으니까 버리고 그럴 바에는 적게 사서 적게 먹는게 낫다 생각은 하는데... 동네슈퍼에 가서 주로 장을 보는데, 거기는 뭐 뭐 하나 사도 양이 너무 많아요. 거기가 빌라가 사실은 1인가구가 많을 텐데도... 그니까 별로 인식이 없는거같아요. 그런 뭔가 1인가구만을 위한 그니까 왜냐면 채소나 이런 것도 다 큰 마트처럼 묶음식으로 팔거든요. 과일도 뭐 엄청 큰 한 박스? 뭐 작은거 있기는한데 작은건 사실 그 박스에 비교하면 가격이 누가봐도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층면접 8)

또한, 아무래도 혼자서 밥을 준비하고 먹으면서 음식이나 영양이 불균형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지적도 볼 수 있었다.

제가 집밥을 좋아하니까 집에서 먹기는 하는데, 원래 혼자사는 사람들 거의 다 사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그게 보니까 저는 집밥을 좋아해서 내가 먹기는 하지만, 거의 부실하게 먹는 편이지. 아무래도 먹을 사람이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맛있게 음식도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해도 혼자 먹어서 맛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심층면접 11)

식당 이용에 있어서 더 이상 혼밥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사라진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하게 된다면 친구나 동료와 함께 가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식당 자체에서 메뉴가 2인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울같은 대도시 대비 1인메뉴가 덜 발달되어 있고, 반찬이 많이 나오는 집의 경우, 주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음식 낭비 같기도 해서 망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서 외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밥도 외식을 할거면 차라리 포장을 해오지 굳이 혼자 앉아서 ...근데 내가 굳이 그렇게 외식을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거 같으면, 내가 집에서 해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정 먹고 싶은게 있으면, 포장을 해온다든가 그러지 그거 굳이? 어쩔 수 없이 뭐 밖에서 어쨌든 한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개의치 않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외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만나서 외식을 하던가 하지 굳이?.(심층면접 12)

이게 있어요. 사실 서울 같은데는 혼자서 식사하는 거에 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 전주에서는 생각보다 2인 이상 가능이라고 써져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반찬이 많이 찬이 많기 때문에, 타산이 안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서 특히 전주시를 벗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정읍이라든지 다른데 지역에 가보면, 그냥 백반집같은 경우에 2인 이상만 가능하다고 나와서 그 집에서 먹으려면 2인을 그냥 시켜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울에서의 인분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깝다는 생각이죠. 버려지는 것들....(심층면접 10)

나가서 먹는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 1인이 안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식당을 가도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2인 이상 1인이 아니잖아요. 그런거때문에도 그렇고, 혼자 나가서 먹으면 이상하데요. 기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래서 시선이 혼자 못먹고 한다고 부실하게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거 같아 (심층면접 11)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별로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은 혼밥을 위한 메뉴제공 등이나 소분해서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더 큰 문제로 문화서비스의 부재를 지적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 전시, 수업 등을 제공하는 곳이 공공부문이 많다보니, 평일 낮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인이 그런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나마 이 동네는 1인가구가 많아서 그거에 맞는 식당이 있고, 가게들에서도 소분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식재료를 사거나 할

때는 한계가 있죠. 다들 이 전북을 떠나려는 이유 중 하나 문화서비스 한계가 큰 거 같더라구요. 어쨌든 퇴근을 하고 문화서비스를 즐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럴 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다들 주변에서도 그게 큰 불만이더라고요.(심층면접 9)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그니까 이게 좀 획일적으로 뭘 하니까 원래 동사무소가 있다가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주민들 문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학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걸 다 똑같이 가져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니까 강습하는거 그래서 강사를 돌려가지고 그런 프리랜서들을 양산해내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뭘 하면은 누군가가 희생해서 그거를 봉사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막 굴리는 방식으로 되고 아까 말한데로 그럼 딱 6시까지만 하고, 정작 필요할 때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니까 뭔가 생활에 근접한 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도 있어야되고 그런 것을 맞추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지않고 너무나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게 좀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게 너무 많은거에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쓸모가 없어. 그리고 또 그래서 그거하는 사람들만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할게 또 없어 많이 하는거 같은데 많이 안하게 되 (비비 FGI)

그러나 문화공연에 있어서, 전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악의 전통이나 소리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 경험의 다변화를 노릴 필요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서울에서 내려와서 봤을 때,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많을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극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양하지 않은 편인거 같고, 일단 좁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개봉한다는 것도 사실 극장에서 걸어줘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간에 있어서도 24시간 내내 상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뮤지컬이나 이

런 개그콘서트나 이런 식의 우리가 말하는 대학로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 성향이 국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손에 꼽는 경험이 전주가 근데 예전에 전주소리축제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판소리 춘향가 완창을 여기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루에 하지않고, 이틀에 나눠서 했거든요. 한옥마을에서 그 명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는 여기야말로 성지죠.(심층면접 10)

다른 측면에서는, 주어지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만이 아닌,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빌리는데 있어서, 비싸거나 혹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저는 지역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일상적으로 ...이제 1인가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게 사실 네트워킹 자원이 핵심인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원이 돈이거나 아니면 좋은 집이거나 이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네트워킹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원들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정책은 모든 것이 개인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돌봄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비 FGI)

또한,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여하는 상황이다보니,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요가를 배우고 싶어서 공간을 빌리는데, 공공기관을 대여하기 때문에 요가 강좌를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대여가 된다든지의 조건으로 인해 요가 수업 장소를 4번이나 옮긴 경험에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을 계속 양산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제가 마음에 맞는 비혼 비비처럼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요가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러 번 옮겼어요. 근데 도서관에 빈 공간이 강의실 처럼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빌리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끼리만 할 수 없다는 거야. 주민들한테 다 열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장소를 빌려준다는 근데 우리는 아까 비비처럼 비혼여성들끼리 비슷한 관심과 비슷한 어떤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같은 주제로 근데 공공기관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간을 구하는게 엄청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1년에 요가 공간을 4번 옮겼던 적도 있어요.(비비 FGI)

나) 개선 제언

이러한 식당이나 문화서비스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단순히 소포장의 확대만이 아니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음식이나 세제 등을 구매하는데 있어 리필스테이션 같은 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그 아까 배달이나 외식업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이게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된 제품들이 소포장되서 1인가구 중심으로된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포장제의 문제나 환경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샴푸나 세제나 이런 것도 소분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이라는 곳들 이 자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주에서 이런거 공공에서 뭔가 소분할 수 있는 리필샵이나 이런 것들 공적인 영역 안에서 가지고 오면 쓰레기 문제나 이런것들 굉장히 많이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비 FGI)

또한,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의 가족지원센터에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 등이 마련되어서 그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가족문제라고 하면은 해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바로 그거를 전담 해가지고 1인가구를 아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해버 리더라구요. 근데 이제 전주는 제가 그때까지 이야기 했을 때는 가족문제 라고 이야기하면 1인 가구도 상담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센터가 있어요. 그런 센터에서 1인가구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거 카 테고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못찾지만 이런게 필요할 때, 그런거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를 안내해 줄 수도 있지만(비비 FGI)

마지막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혹은 관광지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점은 1인가구 중에 자가용을 가지지 못한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아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지만, 확실히 전주에서는 1인으로써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도시에서의 1인은 굉장히 불편함이 없거든요. 왜냐면 특히 일단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1인에서도 차가 있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처럼 경제사정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차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통이 너무나 불편해요. 일단 전주나 전라북도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대신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노선이 굉장히 뱅뱅 돌아서 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유람하면서 가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인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가족을 이뤄서 사는 사람은 어차피 여럿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1인 중에서도 그게 싫어서 차를 구할 수 도 있지만, 여건상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유를 못하는 경우는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심층면접 10)

5) 사회적 관계망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책을 정해서 읽거나 영화를 같이 본 뒤에 토론하는 모임인데, 실제 고정 멤버도 있지만, 책이나 영화가 정해지면 SNS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임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저는 모임하는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모임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편이고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그 모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하나는 같이 책이랑 영화보는 모임이고 그거 한지는 거의 한 2년? 2년 거의 가까이 되서 그 친구들하고는 거의 뭐 완전 친하게 지내죠. 심심하면 주말에 같이 놀러도 가고, 그렇게 지내고 하나는 또 대학원 선생님들끼리 하는 세미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뭐 말이 세미나지 그냥 가끔 모여서 책 한 권 읽고 그냥 수다만 좀 떨고 그런 모임?....저희가 모임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책을 읽고 영화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건데 그 책 정하고 영화 정해지면 인스타그램 홍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 멤버는 한 4명이거든요? 4명이 고정 멤버인데 다른 사람들도 오라고 신청을 받는데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더 자주 나오시는거고, 아니면은 그냥 안 나오시거나 고정멤버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책을 보고 그냥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결합이 되서 이루어지는 모임이에요.(심층면접 8)

그러나 SNS로 소통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남기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실제 전라북도도 내려온 이유가 형제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한 귀향인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고향 친구들이죠. 고향쪽으로 왔으니까...그렇죠.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거의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요....거의 형제들도 다 여기 살아요. 6남맨데, 다 여기 살아요. 저까지 저만 혼자 살다가 내가 내려온거니까 다 여기 살아서 형제들하고 모임도 잘하고 모여서 밥도 잘먹고 친구들도 또 그니까 제가 교회가서도 하는 것도 (심층면접 11)

등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요. 6~7명 많으면 10명 안쪽 그래도 근교산도 가고 차를 타고 조금 멀리도 가고 통영 사랑도까지도 가고 하니까 코로나 생기면서 안갔죠. 그거는 근처로만 갔죠. 그 뒤로는 안갔어요 (심층면접 11)

다른 경우로는 전주에 내려와 살면서 지역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민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스스로는 그 원인을 자신이 20대의 미혼이 아닌 40대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그래도 경비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우리 여기서 청소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나는 뚜벅이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 근처 주변에 동네를 다닐 때,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더라구요. 그럼 나도 그냥 말을 대답을 해줘요. 처음에는 그냥 저 아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말을 섞기때문에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는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운동이랄건 없지만, 조깅을 한다던지 주변 산책을 할 때, 얼굴을 자주 보니까 그리고 식당이나 가게에서 뭘 살 때, 나중에 줘 뭐 이럴 때도 있고, 어 지금 잔돈이 없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마 나이때문인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20대에 싱글이나 1인가구였으면, 이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거같은데 충분한 케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접 10)

마지막으로 80대 1인가구 여성의 경우는 현재 거주지 주변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맺고 지내고 있었다. 특히, 옆집에 동일 연령의 할머니와 이웃으로 지내고 있으나, 특별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는 정도의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관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돈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이용하기가 어려워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느껴질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는 동네 산책 정도가 바깥 활동의 전부로 한정되어 있었다.

6)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압력

1인가구를 시작하거나 혹은 살아오면서 결혼을 하라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냐는 질문에 대해, 세대와 결혼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은 결혼을 권하고, 한 분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본인은 결혼보다는 스스로 잘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제가 먼저 잘 사는게 중요한 거여서 제가 잘사는데 있어서 그런게 도움이 된다면 생각을 해볼텐데 먼저 그렇게 찾지는 않을거 같아요....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그런거가 보장을 해줄만한 사람을 만나야....저희 아빠는 결혼에 대해 선이라는 걸 결혼하려고 저희 아빠는 자식들 결혼까지 시켜야 다 키웠다라는 생각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지만 엄마는 뭐 네가 능력이 되면 혼자 살아도 된다 (심층면접 9)

그에 비해, 50대인 1인가구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포기하셨다고 언급하면서, 자신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선배들은 결혼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하는 무엇이었다면, 자신들의 세대부터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 부모님이 저 30대에는 되게 희망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근데 제가 뭐 한 고집하니까 40대 들어서는 그냥 포기하신 듯? 엄마가 그 희망을 아예 저버렸다라고는 생각 안 하실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언젠가는 제 짝을 만났음 좋겠다는 그 희망은 항상 있으신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아셔서 그거가지고 뭐라고 더 이상 안하시던데요. 그리고 제 성격을 아니까 그래봐야 싸움 밖에 안되니까 가만 놔두시던데요.
> 그래서 저희 세대 저희 나이 세대 때부터 그런 변화가 더 생긴거 같아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 세대들 보면은 결혼을 안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였던거 같더라구요. 대학 졸업하면 결혼하고 그게 당연시 여겨졌던거 같은데,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더 해외로 나가 유학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심층면접 12)

결혼한 후에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죽이기보다는 좋아하는 예술에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 전혀 없어요. 엄마가 나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집의 아들의 양말을 빨아주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너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도 한번 보고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런거라도 하나 더 들으면서 너의 생활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모친이 이야기하셨죠. (심층면접 10)

결혼에 대해서 주변이 아닌 스스로가 고민해보는 상황은 응급상황에서 가족이 아니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조건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을 위급상황만을 위해 할 수는 없다는 언급은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전에 그 제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서명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데,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이제 싸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는 거에요. 가족이 아니여서 본인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아픈 몸을 막 이끌고 막 그 컴퓨터 앞에서 싸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커플들이 아마 그 순간에 가장 많이 결혼이라는 걸 이래서 해야되는 건가 제도적으로 이게 내가 그 사람의 공식 보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마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그거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심층면접 8)

비혼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비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그들의 공동체가 생기면서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서로 나누면서 다독이는 경험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거나 혹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 그 저는 그 커뮤니티의 힘을 좀 느끼는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비혼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힘을 주고 비혼이 당연한 삶의 선택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잘살아보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훨

씬 더 많이하는 집단이여서 그런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감으로 부터 제가 설사 그냥 보통 직장있잖아요. 그런 직장에 다녔을 때, 그런 이야기도 결혼 안하냐 왜 비혼하냐 이런 식의 약간 시선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덜 상처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20대 저같이 오프라인 커뮤니티 아니고 여초카페들 안에서 그런 비혼방 이런 방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인터넷 안에서도 서로 자조하고 지지하는 가족 안에서의 불화 나엄마한테 이런 소리했다 아빠한테 이런 소리했다 친구한테 이런소리 들었다 이런이야기를 굉장히 토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유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거 같아요.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의 기능 중에 하나 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비비 FGI)

또한, 과거에는 비혼을 선언하는 자식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지만,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니, 자식이 비혼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비혼이 워낙 트랜드가 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뭐랄까 부모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후회가 있거나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내 딸도 비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부모들도 나오기도 시작하는거 같아요. 예전에는 아유~내 딸은 아직 20대 비혼 그런 이야기를 해 지금은 아유 내 딸도 결혼하지 말라고 할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비비 FGI)

부모님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과는 달리, 비혼주의자에 대해서 반남성주의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 압력이 다른 곳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A; 근데 저는 어 여성의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남성의 인식은 그다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B: 아니 더 혐오감이 더 많아졌어. 왜냐면 그게 약간 반남성처럼 비춰지니까 그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거는 반남성이랑 아무상관없거든. 상관 있

지 상관 있기도 하고...그게 꼭 이꼬르는 아니잖아. 그런데 남성들은 그거를 반남성 이꼬르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해가 많아. 그러다보니까 훨씬 더 약간 혐오성 뭐 이런 발언들이나 시선들이 있는거같아. (비비 FGI)

50대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이혼을 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평범한 삶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은 이 면접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전히 결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을 권하는 문화 속에서 있으므로 더욱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일 때는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를 수 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범했잖아요. 또 생각하기에는 남들은 이렇게 다 편안하게 가정을 가지며 누리는 삶을 평범하다고 보면 평범한거고 어려운거라고 보면 어려운건데 그 기본적인 것을 내가 못지켰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거는 있어요. 그니까 뭐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나다가 그렇게 내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화가 났을 때 부분으로 생각나는 부분은 그때 그것도 이제 잠깐 그냥 또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또 내가 행복한 것도 많아요. 혼자라는 이유로 행복한 것도 훨씬 많아요. 남편 제약 안받고 (심층면접 11)

7) 노후 및 부모봉양

노후에 대한 계획은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유동적인 성격으로 1인가구 형태를 지속할지 안할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었다. 이혼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현재 재혼을 할 생각도, 마땅한 대상자도 없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나한테 맨날 그래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해요. 내가 왜 구속을 또 받고 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지금 만나서 근다고 해서 애들

아빠도 아니고 진실한 남편이 될 수도 없을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그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안하면 안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이먹어서 정말 혼자였을 때는 그때는 정말 나중에는 후회하지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후회할 거 같아요. 왜그냐면 이제는 아이들도 독립을 해서 자기 삶이 있잖아요. 엄마가 혼자 만약에 건강하지 않고 아파서 혼자 그러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힘들거같아. 짐이 될거같아. 내가 짐이라는 존재가 될거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 시골에서 살던 여기에서 살던 둘이 살면서 살면 일단 신경은 안쓰이잖아요. 양쪽 집의 자녀들이 그래서 있는게 맞나?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떤게 나중에 정말 내가 후회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 진짜해요. 애들도 엄마 좋은사람없어? 물어보지. 엄마 내가 생기기만 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내가 생기기만 하면, 엄마 정말 잘할게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아직 없어. 그러고 마는데 후회는 할 거 같아요. (심층면접 11)

8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딸과는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으나, 두 명의 아들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위급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딸이라고 언급하며, 실제 불안한 노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노후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돌봄 이슈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부모 부양에서 좀 벗어나 있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아까 또 예외적인 거가 될텐데, 제가 4남매 중 막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뚝떨어져서 거의 없는 애나 마찬가지라고 살아서 그렇고 또 막내이기 때문에 좀 더 봐주는 거 일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부모님은 80 중반 나이가 꽤 드셨는데, 여기저기 편찮은데 생기시면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거기서도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도 또 지방에 내려와 사니까 거기서 또 열외가 되버린거에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염치없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그런 몰염치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요. 계속 좀 제가

할 수 있는거는 전화해서 괜찮으시냐 안부 전화 정도 하는거 밖에 없고, 지금도 제가 바쁘다는 이유때문에 여름에 한 번 가족모임 가진거 말고는 계속 전주에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그러네요.(심층면접 11)

그러나 비혼 1인가구의 경우, 부모님의 돌봄을 자연스럽게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볼 필요없는 온전한 "우리 딸"로 불리면서, 그리고 다른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에 부모 돌봄이 이들의 몫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님도 그렇고, 또한 스스로도 조금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 1인가구의 경우에 부모 돌봄을 하면 그 부담을 다른 자식들이 나누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더 비가시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당연하게 여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A: 아마 부모님과 좀 연결이 될거같은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되게 저는 50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제기하시고, 더 너 어떻게 할거냐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떤 어떤 순간을 딱 넘어가서부터는 우리 딸이었어요. 우리딸 뭔가를 해야만하는 거에요. 온전히 자기거인 자식이잖아요.

B: 눈치 안보고 부릴 수 있는

A: 그니까 저희가 이제 딸 둘,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은 결혼했고 딸 둘은 결혼안했거든요? 딸 둘이 온전히 우리 딸이여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 절대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사위 눈치 볼 필요도 없지 딸 둘이 며느리 눈치 볼필요도 없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원가족한테 잘하려고 결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혈연가족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특히나 우리 세대에는 또 중요한 관계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르면 가야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고 가장 하기가 좋다라고 다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모든 비혼 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많은 부모들과 가족관계 안에서 비혼여성이하는 돌봄노동, 감정노동이 너무 많다라는거는 저희가 이제 부모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워크샵이나 집중토론이나 이런걸 하면서 알게되었고, 근데 그런게 굉장히 가시화되지않고, 당연한 것, (비비 FGI)

8) 원하는 가족·공동체상

장차 1인가구를 지속하면서, 혹시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공동주거나 혹은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혼공동체의 한 분은 지금의 삶을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공동체 주거에 대해 구상하고, 심지어 해외로 주거 공동체를 실천하는 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언제 완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같이 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동 주거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어렵다면 스스로라도 공동의 주거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가 여성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왔을 때, 지금처럼 사는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너무 나이들어서 이게 너무나 더 완전 노인이 되어 가지고는 이거를 고민할 수 없을거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가 사는 곳에 맞는 공동체 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될 거 같아요.(비비 FGI)

비혼공동체의 멤버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딱히 호불호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30대의 여성 1인가구도 비슷하게 건물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다.

> 제가 그런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셋이삽니다. 막 그런 책들 읽는데 그냥 굳이 가족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사는? 그런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제가 지금 독서모임 영화모임 하는데도 2년동안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컸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번뇌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산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당연히 생길거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진짜 애증의 관계인 그래서 그런거고

독서 모임하거나 그 친구들하고는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들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농담삼아서 하는데, 같이 건물을 하나사서 뭐 1층은 네가 살고 그렇게 한 번 해보자라고 농담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쉽지 않겠죠. (심층면접 8)

이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은 50대의 여성 1인가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족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서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연결망이나 네트워크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공동체) 네 저도 그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모여서 사는 집이지 내 집에서 같이 사는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거 자유롭게 할 수도 있으면서 연금 뭐 그렇게 혼자 살면서 많은 돈은 필요하지않으니까 쓸 수 있을 정도만 일 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살면 최고의 행복이겠다라는 생각들어요. (심층면접 11)

9) 1인가구 지원정책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나 제안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1인가구 지원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고,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시설이나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예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한 부분은 주택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청년전세임대를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청년을 넘어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1인가구의 주택 지원 사이즈가 너무 작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전주에서 보면 1인인 여성가구한테 카메라 같은거? 집 새로 이사가면 몰래카메라 같은거 있을 수 있다고 그거 감지할 수 있는거 그런거 빌려준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걸 이제 그게 아마 전주에서 미는거 같고, 전주도 사회 주택하면서 사회주택을 여성안심주택?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인거 같아요. 전주에서는 제가 가장 크

게 이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 LH에서 지금 청년전세임대라고 되어있는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좀 확장되면 좋겠고 사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부각되는 것도 좀 불편한거 같아요.
네 그냥 그게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다 혼자 살 수있는건데 그런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고 LH에서 그 LH에는 전국단위니까 전북에도 있잖아요. 전북주택공사같은 데서 한번 최종적으로 1인가구를 위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주택이 가장 큰거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활에서 엄청 큰 위험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빌려주고 감지기 빌려주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건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근본적인 것 주택의 문제가 굉장히 잘 정리가되어야 다른 것들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잘 확장될 수 있기때문에 주택이 온전히 가장 큰거 같고 1인을 위한 공영주택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특정하게 사이즈를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층면접 8)

또한, 1인가구에게 지원되는 주택의 크기도 작고,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수준도 낮아서, 혜택을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집 문제가 1인가구를 가더라도 소득이 기본소득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거 만큼 진짜 최저 생활비 생계비 외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 정도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대체로 아주 진짜로 100 이하로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혼자 살아도 어느 정도 벌이가 있잖아요. 그 단위가 너무 낮지.....국민임대보다 국민임대도 혼자 1인가구 못들어가요. 국민임대는 가구가 혼자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아예없고 혼자잖아요. 1인가구로 들어가는거에요. 1인가구여서 열 몇 평인가 들어가는게 무슨 주택이라고 하던데 서민주택식이겠죠. 그게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들어가는 조건 해당되는 조건에 그 금액이 안맞더라구요. (심층면접 11)

주택지원에 있어서, 너무 취약한 사람들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가 재테크의 개념이 아닌, 개인이 가져야 하는 주거권의 확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언급도 볼 수 있었다.

A: 아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니까 취약하다라고 하는걸 전제로 하니까
B: 취약한 사람들은 조금 적어도 되지 않은가
C: 가구가 많은 사람 위주로 그럼 해야지 니넨 1인 가구인데 무슨
A: 근데 또 가구가 많은 사람들도 가구가 많은 만큼의 어떤 편함을 보장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1인가구가 2인가구도 그러면은 그 이상이 필요한 건데 1인가구 36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28제곱미터 이내로 이런식으로 막 써놓는거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그게 56제곱미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4인가구가 그 안에서 버글버글거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좋은 주거환경은 아니죠. 싸우란 이야기지. 그 안에서 (비비 FGI)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주거는 재태크의 개념이 아니라 쭉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주거권을 꼭 이야기하고 있거든요....내가 얼마 있으면 이게 또 전세금 올려줘야 될 수도 있고 보증금 올려 이것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거 너무 많은데, 일단 그런 모든 고민에서 너무 딱 떨어지는거죠. 그니까 그런 가치와 이게 맞아야 될거같은데 일단 재테크 집을 재테크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임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데 좋은 건가라고 하는 거를 사회주택시험 이런거 되게 많은데, 이런 임대들이 좋은 임대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야될 필요나 그거를 해야될 필요를 못 느낄텐데 지금은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거 같거든요. (비비 FGI)

마지막으로, 80대의 여성1인가구는 다른 것은 없고, 경제적 지원을 가장 바라는데, 기초수급자나 혹은 차상위 혜택이 주어지길 희망하지만, 본인에게는 자녀들이 소득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자식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국가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다. 소결

1인가구의 형성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이나 취업에 따른 지역 이동에 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1인가구의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는 꽤 높은 만족도를 볼 수 있었지만, 주택문제나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와 같이 살거나 혹은 원가족과의 결합도 가능해서, 1인가구는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구 형태로 보여졌다.

주택문제에 대해, 청년전세임대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부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1인가구들은 34세로 청년의 연령이 한정되어 있는 점과 1인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제한된 문제를 이야기했다. 1인가구의 주거 상황은 대체로 열악해서 자가를 가진 경우는 인터뷰한 사람 중 3명이었고, 그 외에는 월세를 이용하고 있어, 주거부담을 꽤 크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의 문제에 더해, 현관문 키패드가 열려있다든지 등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지역의 다른 원룸으로의 이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1인가구는 소득의 원천이 본인에게 있고, 직장이동, 실직, 이사, 질병 등과 같은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있을 때,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인가족에 비해 낮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1인가구 전체라기보다는 직업이나 종사상의 지위 등과 연관되어 있고, 개인이 어떤 지원의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싼 자원 네트워크의 많은 부분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1인가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연결망과 보호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소비나 문화생활에 있어 젊은 세대의 경우 혼자 문화 활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등 연령대에 따라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판매 기준이 다인가족 중심이여서 양이 많거나 혹은 소포장의 경우 가격이 높아 불편하다는 지적이나, 많은 성인대상 교육이나 취미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그 형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정과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부터 SNS를 통한 온라인 모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비혼공동체는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예로 볼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나 가족 내에서의 압력 경험에 대해서는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특히 일정 연령이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부모 봉양의 책임을 다른 형제에 비해 강하게 느끼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혼공동체와 같은 결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존재는 비혼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정서적인 지지자로 작동하고 있었다.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주거 공동체에 대한 바램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연결망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에 대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주택지원을 볼 수 있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개인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노인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바램을 들을 수 있었다.

5 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Jeonbuk Institute

1. 도시 여성1인가구의 세대별, 지역별 특징
2. 도시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제 5 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도시 여성1인가구의 세대별, 지역별 특징

가. 도시 여성1인가구 세대별 특징

1) 청년세대

청년1인 가구의 경우,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고립 문제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청년 고용 불안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다. 안전을 선택하기에는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직장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보니, 높은 월세를 지불하고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할 수 밖에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청년행복주택, 청년청약통장 등의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고, 공급된 주거의 전용면적이 너무 작아, 청년기의 임시적 거처로만 한정된다. 청년 1인가구에게는 안정된 직업과 좀 더 긴 안목으로 자신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중장년세대

중장년 세대는 직장의 이동과 이혼/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비중이 높은데, 실제 고독사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는 노년층이나 청년실업, 빈곤 등의 문제로 주목받는 청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다는 가정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세대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면서 들어가는 업종은 제한적이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4050대의 경우 서비스직과 판매직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050대의 자살생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가계수입과 거주지 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중장년세대의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안정적인 세

대라는 관점 속에서 오히려 지원이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노년세대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70.5%가 이혼/사별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의 경우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녀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비율은 74.6%, 100~200만원 미만은 20.5%로 대다수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여성1인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며, 1인가구 삶의 단점으로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불안감 순으로 지목하고 있어, 이들의 불안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노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등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라북도,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에 제정되어 실행 중에 있다.

나. 여성 1인가구 지역별 특징

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1인가구 삶의 모습은 지역적 차이라기보다는 세대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세대나 중장년세대가 농촌 지역에서는 분포 자체가 적고, 그들이 거주는 농촌 지역에서 할지라도 직장이나 활동반경이 도시지역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반면, 60대 이상의 농촌 1인가구는 그 수도 많고, 주거 및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교통접근성과 안전감에 대한 불안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수인 외. 2020: 202). 즉 도시 여성 1인가구에서 보여지는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문제와 노년세대의 고민이 농촌에서도 나타나는데, 단지 그 인구구성에 따라 부각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프라와 인구 분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2. 도시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가. 1인가구 안전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 대비 지역의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거주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소음 등 사생활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농촌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귀가서비스(39.8%), 응급전화/벨(24.4%), 자율방범활동(22.4%)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볼 수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에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하여,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비상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총 3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연합뉴스 2020. 5. 1). 혹은 범죄예방이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나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 등의 예방조치도 가능하다. 이 외에는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장비 대여서비스와 같이 여성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성친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안전 주거환경 도모사업에 대한 도내에 도입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층면접 응답자들도 스스로 경험한 작은 사고를 언급하여, 원룸에 보안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안심 시스템 도입과 보급으로만은 실제 안전한 사회 구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안심 시스템의 지원과 마련에 더불어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여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확대와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교육이 가능한 강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 방침 마련과 더불어, 지역에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과 상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나. 1인가구 주거에 관한 정책

도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에 있어 자가의 비율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사글세의 비중이 높아서, 2030세대의 경우 월세 및 사글세의 비율은 44%에 달하고 있었다. 월세의 부담은 고정비용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안전과 학교나 직장과의 근접성에 따라 주거비용의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된 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은, 오히려 미래의 나은 거주지로 옮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에 청년 여성1인 가구에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 노인,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낙인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 등의 가점 방식으로는 1인가구의 경우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년과 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1인가구도 주거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에 희망하는 거주 형태에 대해서 많은 여성 1인가구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보장받으면서 일정정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형 주거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주거 형태에 대한 실험을 각 지자체의 공간 재활용에 대한 계획과 민간의 공동체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향후 이런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방향설정과 해결 과제를 고민하고, 추후에 이런 공동체형 주거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1인가구 대상 경제적 지원

1인가구 대부분이 본인 소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의 확보는 1인가구 삶의 유지에 있어 기반 마련의 의미를 지닌다. 전라북도의 1인가구 고용률은 2018년 기준으로 52.5%에 그쳐,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고, 여성 1인가구의 68.8%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며,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3.8%에 이른다. 이러한 빈곤에 근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력단절 해소와 일자리 유지 사업 등을 위해 지역내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이 활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

6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생활비 마련에 있어,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가족에게 지원받는 부분은 크게 늘지 않고, 저축이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들 중 자녀들이 소득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자식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실제로 지원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라. 1인가구 건강, 돌봄

1인가구의 노후에 대한 염려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2030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4050대에 감소했다가 60대 이상으로 되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후를 위해 2030은 저축과 연금 등을 중시하는 반면, 4050대부터는 건강이 우선순위로 바뀌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스로의 건강의 문제가 주요한 관심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원의 간병제도나 보호자의 조건이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1인가구의 경우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곤 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원인이 존재한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돌봄 문제만이 아닌, 많은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이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가족 돌봄을 하는 도시지역 1인가구는 56.3%로, 농촌지역(46.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50 세대의 가족돌봄이 가장 많았고, 돌봄대상은 자녀(65.2%)와 부모(28.3%)로 나타났으며, 60대이상은 손자녀 돌봄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본인은 스스로 돌봐야 하는 1인가구임에도 가족 내의 여성 노동으로 간주되는 돌봄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보여지듯이, 비혼 1인가구 여성들의 경우 부모의 돌봄 역할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몫이 되었고, 남성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돌봄의 역할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아이리스, 2019). 이에 대한 한 비혼 돌봄노동 경험자는 돌봄의 역할을 온전히 맡게 되는 스스로의 상황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푸른산, 2019). 즉 돌봄 노동은 여성 1인가구를 둘러싸고,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돌봄노등을 과하게 수행해야 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돌봄노동을 가족 구성원 안으로 한정하여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서 사회가 일정정도 책임을 나누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건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방안과도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 1인가구 지원 조례 마련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특별히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에서 출발한다. 즉 권리 보장의 기반을 개인으로 설정하게 되면, 가족 중심으로 복지지원 제도 속에서는 제외되었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가 복지의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다(이명진 2019). 개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행에 있어 세대, 가구구성 등의 구분을 적용하는 정책만이 아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의 시발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과 동시에,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1인가구, 특히 취약 1인가구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1인가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1인가구 관련 조례들과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와 같이 개인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한 접급만은 특정 생애주기에 집중하고 있어, 1인가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설립하기 어려우니, 통합적 관점에서의 1인가구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가치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28(2), 241-256.

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48(2), 135-144.

경향신문 2020. 3. 5. “언니들의 플랫한 생활(1) 노년의 길목에 들어선 비혼 여성들, 또 다시 같이 살기로 했다”.

권문영. 2018. “비혼 여성의 소외와 노후 불안: 30~40대 비혼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여성학연구』. 28(2), 48-86.

권종선. 2019. “중노년 1인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1, 153-167.

김기태·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 지역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 20(1), 153-168.

김미혜·원형중·권지혜·황선영. 2018. “여성노인 1인가구의 여가스포츠 참여 특성과 여가만족 및 행복”.『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449-458.

김상훈· 한혜련. 2014. "CPTED 가이드라인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제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160-168.

김선주· 김행종. 2018. “1인가구의 자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111-119.

김은경·박숙경. 2016, “우리나라 여성 1인가구와 다인가구 여성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율 비교: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중심으로”,『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3), 483-494.

김정은·정혜은·남영주, 2018, “여성 1인가구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내 2차자료 분석”,『한국가족복지학』23(3), 463-488.

김진영, 2013,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계획을 위한 주거의삭과 주거요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4), 109-120.

김혜경. 2019. “비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갖기: 소위 ‘공동체’의 실험과 그 의미”,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권 2호, 7-40.

나영정. 2019. “가족구성권 운동과 생활동반자등록법의 필요성”,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남기민·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노경혜 외. 2018.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건·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미선·조윤지. 2020.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18, 국토연구원.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2012년 4월, 55-67.

서명희·김영희·이현옥. 2017. “1인가구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석재은. 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월간복지동향』, 102, 37-40.

석재은. 2018. “비혼여성의 부모돌봄 경험: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송영신. 2015.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신상영. 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4), 81-95.

심영. 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아이리스. 2019. “부모를 돌보다(see)! 보다(care)?”,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여성가족부. 2017.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연합뉴스 2020. 5. 1. “관악구, 여성 1인 가구 200세대에 안심홈 3종 세트 지원”.

염지혜·전미애. 2020. “단독가구 노인의 가족관계가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2), 239-255.

유지영. 2019. “우리나라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85-91.

윤강인·강인선, 2016,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센(Sen)의 역량접근이론을 통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6(2) 457-473.

이동욱. 2020. “여성주의 관점에서 대안적 노인여성 공동체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와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6(2), 75-108.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이미정. 2019. “만나면 좋은 비혼”,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이선영·정한채·고대영, 2019,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2, 53-78.

이성림·김기옥, 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이수인·전희진·최지훈. 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북연구원.

이여봉. 2017. “1인가구의 현화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10, 64-77.

이연주·권민경·백희준·이상선, 2015. “서울 일부지역 여자노인들의 가구유형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 및 식사의 질 평가”. 『한국영양학회』, 48(3), 277-288.

이지숙. 2009. “지방도시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개조요구”. 『디자인지식저널』, 11, 70-77.

이진숙, 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이희연·노승철·최은. 2011. “1인 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 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1-501.

임미화, 2020, “성별 주거비용 비교분석”, 『주택연구』, 28(2), 113-129.

임민경·고영미, 2018, “비동거자녀 지원이 1인가구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3), 265-277.

장재원·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10. 85-86.

장진희, 2018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9(4).

조규원·김태형, 2019 “도시 1인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전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5-16.

지은숙. 2019. “비혼의 페미니즘과 돌봄,”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 협동조합.

채현주·김미종, 2019, “1인 가구 성인 여성과 다인 가구 성인 여성의 건강행태, 의료 서비스이용과 건강관련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5(3), 299-314.

최경원·임연옥·윤현숙. 2012. “사별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85-105.

최성헌, 2020, “도시 거주 노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

최성헌·허준수, 2019,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69-95.

최원진. 2018.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은영·주소현, 2018, “다변량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은퇴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2), 21-44.

푸른산. 2019. “비혼으로 집에서 부모를 돌본다는 것”,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한민경, 2019, “서울 행정동별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특성: 여성 1인가구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39-71.

Yeung, Wei-Jun Jean & Adam Ka-Lok Cheung. 2015. “Living Alone: One-person households in Asia,” Demographic Research 32, 1099-1112.

Ronald, Richard. 2017. “The Remarkable Rise and Particular Context of Younger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and Tokyo,” City & Community 16(1), 25-46.

Ho, Jeong-Hwo. 2015. “The problem group?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married people living alone in the Republic of Korea,” Demographic Research 32, 1299-1328.

Teerawichitchainan, Bussarawan, John Knodel and Wiraporn Pothisiri. 2015. “What does living alone really mean for older persons? A comparative study of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Demographic Research 32, 1299-1328.

Dales, Laura. 2014. “Ohitorisama, Singlehood and Agency in Japan,” Asian Studies Review 38(2), 224-242.

Piekut, Marlena. 2020. “Living Standards in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Population”, Sustainability 12.

jthink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1인가구 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북도 1인가구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향후 전라북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2020년 10월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희진 ☎ 063-280-7183

공동연구자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최지훈 ☎ 063-280-7159

==========

※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지역	1) 전주	2) 익산	3) 군산		
출생년도	( )년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성별**	1) 남성 2) 여성
최종학력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이상 6) 기타( )
혼인	1)기혼 (현재 배우자 있음)	2)미혼	3)이혼/별거	4)사별	

Part 1. 1인 가구의 형성원인

1.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2. 혼자 생활하시는 <u>가장 큰 이유는</u>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 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 결혼을 하지 않아서 ⑧ 기타( )

3.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 현재 귀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_

① 취업, 창업 ② 직장생활 ③ 학업/진학 ④ 건강

⑤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⑥ 연애 ⑦ 여가생활 ⑧ 결혼

⑨ 재테크 ⑩ 내 집 마련 ⑪ 기타( )

5.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자유로운 의사결정 ② 여가시간 활용 ③ 일 또는 직장에 몰입
④ 자유로운 연애관계 ⑤ 가족(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 ⑥ 기타( )

6.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⑦ 반려동물 키우기의 어려움 ⑧ 주택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⑨ 기타( )

7. 만약 조건이 된다면, 귀하가 앞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가구·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지금처럼 계속 혼자 ② 원래의 가족과 함께
③ 배우자와 함께 ④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는 주거공동체 등) ⑥ 기타( )

Part 2.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8.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3) 현재의 거주지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직업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지난 6개월간 자살 관련한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경험 없음	경험 없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경험
1)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2) 죽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	①	②	③	④	⑤
3) 자해하고 싶은적이 있었음	①	②	③	④	⑤
4)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음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지난 1개월간 다음 사항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경험없음	경험없음	가끔경험	자주경험	매우 자주경험
1) 잠들기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⑤
2) 피곤감, 기력저하	①	②	③	④	⑤
3) 식욕저하/과식	①	②	③	④	⑤
4) 일에 흥미없음	①	②	③	④	⑤
5) 가라앉은 느낌/우울감/절망감	①	②	③	④	⑤
6) 신문, TV 집중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실패자라는 느낌,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하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질병이나 신체적 이유로 얼마나 자주 병원에 방문하십니까? (*1개 선택*)
① 안한다 ② 월 1-2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12. 귀하는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분이 계십니까? ① 없음 ② 있음(명)

12-1. (문12에서 ②번 선택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개 선택*)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정부지원 도우미 ⑤ 종교기관/동호회 등 회원 ⑥ 기타( )

13. 야간 응급상황 시, 구급약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3-1. (문13에서 ②번 선택시) **구급약품을 주로 어디서 구하십니까?** (*1개 선택*)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종교기관 등 단체 ⑤ 기타( )

Part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4. 귀하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의사결정에서 내 가족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도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타인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본인의 문제,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명)

16. 귀하는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1개 선택*)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자녀
④ 친구와 선후배 ⑤ 직장동료 ⑥ 이웃
⑦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⑨ 기타 ( )
⑩ 없음

17. 귀하께서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 및 빈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항목		월 4회이상	월 1회이상	월 1회미만	없음	해당없음
직접 만남	부모	①	②	③	④	⑤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전화 (문자) 연락	부모	①	②	③	④	⑤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매일 한다

18-1. (문18에서 ②,③ 선택 시) 귀하가 돌보는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고르세요.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손자녀 ⑤ 자녀 ⑥ 기타 ( )

19. 귀하에게 이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20. 귀하는 거주지의 마을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연 1~2회 ③ 연 3~6회 ④ 월 1회 가량 ⑤ 주 1~2회 이상

21. 귀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바라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친목도모 ② 위급시 도움받을 네트워크 구축 ③ 지역 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④ 봉사활동 ⑤ 경제적 이익 ⑥ 지역 사회운동의 일환
⑦ 기타 ( )

22. 귀하가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음 ② 참여할 시간이 없음 ③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음
④ 사람들과의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때문 ⑤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
⑥ 기타 ( ) ⑦ 현재 참여하고 있음

23. 귀하의 이웃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웃과 관계없는 독립된 사생활을 유지하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 택배수령과 같은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받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웃을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5) 잦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6)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께서 지난 1년간 활동하셨던 사회단체나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동창회(동창모임)
② 지역사회모임(반상회/부녀회/청년회/계모임 등)
③ 여가모임(취미 및 스포츠 등)
④ 정치단체
⑤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⑥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⑦ 종교단체
⑧ 기타(　　)
⑨ 활동하는 모임이 없음

25. 귀하는 자신의 노후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염려되지 않음　② 염려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염려됨　⑤ 매우 염려됨

26. 귀하는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저축　② 보험/연금　③ 가족관계　④ 친구관계
⑤ 신체적 건강　⑥ 안정된 거주　⑦ 기타(　　)

Part 4. 경제활동

27.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직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
⑩ 자영업　⑪ 학생　⑫ 기타(　　)
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문29 로 이동*

28.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사업체)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 계약, 정규직)　② 임시직(1개월~1년 미만 계약)　③ 일용직(일당 받음)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 종사자(가족사업 종사)

29. 귀하가 현재 <u>일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u>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어서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④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⑦ 학업이나 자격증취득, 혹은 취업교육을 받느라고
⑧ 경력단절로 인해
⑨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기타(　　)

30. 귀하의 <u>최근 6개월간</u>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소득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100만원　④ 10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400만원　⑦ 400~600만원　⑧ 600만원 이상

31. 귀하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생활비(주거비 비포함)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개 선택*)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250만원 ⑥ 250~300만원 ⑦ 300만원 이상

32.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월평균 저축액(예금, 보험 등) ③ 여가생활비(공연/영화, 여행/레저, 취미활동비) ⑤ 교제 및 사교비(친구모임, 술값, 경조사비 등) ⑦ 주거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포함)	② 식비 (외식, 간식, 음료 등) ④ 자기개발비(운동,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⑥ 가족 부양비(생활비, 용돈,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2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가장 적게 지출하는 항목 2개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33. 귀하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1개 응답*)

① 본인의 근로소득 ② 부모 형제의 도움 ③ 자녀로부터의 지원 ④ 저축(예금 포함)
⑤ 친구로부터 빌림 ⑥ 기초생활보장급여 ⑦ 실업급여 ⑧ 배우자의 지원
⑨ 애인의 지원 ⑩ 은행이나 카드 대출 ⑪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등) ⑫ 기타( )

34. 귀하는 스스로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⑤ 극빈층

35. 귀하의 어린시절(초중시기, 8-15세 사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⑤ 극빈층

Part 5. 여가활동

36.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십니까? (*1개 선택*)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직장동료 ⑤ 혼자 ⑥ 동호회 등 단체회원 ⑦ 기타( )

37.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가생활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근로와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개인시간을 말합니다(수면 제외).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함 ③ 보통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7-1. (문37 ① ② ③ 선택 시) 여가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가족(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⑧ 하기 싫어서/귀찮아서 ⑨ 쉬고 싶어서
⑩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⑪ 기타( )

38. 귀하가 앞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학력인정기관/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특수대학원포함)
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취미관련 교육 ③ 외국어, 인문교양 관련 교육
④ 직업 훈련 ⑤ 노후설계 교육(노후설계, 직업설계 등)
⑥ 시민활동 교육(자원봉사교육 포함) ⑦ 한글 교육
⑧ 귀농·귀어·귀촌, 농업 관련 교육 ⑨ 컴퓨터 사용 교육
⑩ 건강/보건 관련 교육 ⑪ 종교 관련 교육
⑫ 가정관리 및 음식 관련 교육 ⑬ 기타 ( )

Part 6. 생활 및 주거환경

39.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⑥ 기타( )

40.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여관/여인숙 ⑥ 기타( )

41.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 거주지역 환경이(CCTV, 방범창, 파출소와의 거리 등)이 안전해서
⑥ 주거환경(주거면적, 냉/난방, 방음, 거주 층 수 등)이 좋아서
⑦ 교통이 편리해서 ⑧ 여가·교육·문화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 )

42. 귀하가 주택을 구할 때 <u>가장 어려운 점</u>은 무엇이었습니까? (*1개 응답*)

①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 부족 ②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③ 너무 높은 주택비용 ④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⑤ 기타 ( ) ⑥ 어려움 없음

43. 귀하는 지역의 <u>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u>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4. 귀하는 지역의 <u>안전 서비스(응급전화, 가로등 설치 등)</u>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45. 귀하는 <u>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해서</u>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로등 ② 응급전화/응급벨 ③ 안전귀가 서비스 ④ 자율방범활동강화 ⑤ 기타 ( )

4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은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1) 주변지역의 폭력·범죄(성폭력/강도/상해 등)로부터 안전정도	①	②	③	④	⑤
2) 주거공간의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도	①	②	③	④	⑤
3)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	①	②	③	④	⑤

47.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을 선호하십니까?

①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
②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화장실, 욕실,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
③ 방에는 욕실·화장실이 따로 있지만, 부엌/거실 등은 공유하는 주택
④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 여가를 위한 공동공간이 있는 주택
⑤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
⑥ 남성/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⑦ 기타 (　　)

48. 여성 1인가구와 남성 1인가구 중 어느 쪽이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여성 1인가구　　② 남성 1인가구　　③ 둘 다 위험함

49. 귀하는 범죄예방 및 대처 등의 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0. 전라북도 1인가구를 위한 의견, 정책이나 사업제안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간략히라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 오랜 시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 2020-21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08-7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6 123087
ISBN 978-89-6612-308-7